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22년 8월

박사학위 논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 종 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justment

2022년 8월 26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 중 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용섭

공동지도교수 박희서

이 논문을 사회복지학 박사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2022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전 종 순

전종순의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호남대학교 교수 오세윤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진숙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정성배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박희서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용섭 (인) 

2022년 6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1
제2절 연구문제 및 범위	6
1. 연구문제	6
2. 연구범위	7
제2장 이론적 배경	8
제1절 다문화 청소년	8
1.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8
2.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11
제2절 문화적응스트레스	14
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개념	14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16
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주요이론	19
제3절 삶의 만족도	25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25
2.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27
3. 삶의 만족도 주요이론	29
제4절 자아존중감	34
1. 자아존중감의 개념	34
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37
제5절 학교생활적응	39
1.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39

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42
제6절 주요변수들의 관계	45
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45
2.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47
3.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49
4. 선행연구의 평가	51
제3장 연구설계	53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53
1. 연구모형	53
2. 연구가설	54
제2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57
제3절 측정도구	59
1. 문화적응스트레스	59
2. 삶의 만족도	60
3. 자아존중감	61
4. 학교생활적응	62
제4절 분석 방법	63
1. 잠재성장모형 접근	63
2. 자료처리 방법	67
3. 분석 절차	69
제4장 실증분석	70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70
1. 연구자료의 특성	70
2. 변수의 기술적 통계	70
3. 변수 간 상관관계	73

제2절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 관계	77
1. 문화적응스트레스	77
2. 삶의 만족도	79
3. 자아존중감	81
4. 학교생활적응	83
제3절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85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검증	85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87
3.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 매개효과	93
제4절 분석결과와 논의	100
1.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 및 성장변화 분석결과	101
2.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102
3.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 매개효과 검증	103
제5장 결 론	106
제1절 연구결과 요약	106
1. 주요변수의 성장변화	107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112
3.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매개 효과 분석	115
제2절 연구결과 시사점	117
1. 이론적 시사점	118
2. 정책적 시사점	122
3. 실천적 시사점	124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125
참고문헌	128
부 록	158

표 목 차

<표 2-1> 다문화 청소년의 구분 및 정의	9
<표 2-2> Berry의 문화적응 이론	20
<표 2-3> 주류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네 가지 문화적응 태도	22
<표 2-4>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44
<표 3-1> 다문화 청소년 현황 차수 및 지역별 원표본 유지율	58
<표 3-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조사항목과 신뢰도	60
<표 3-3> 다문화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조사항목과 신뢰도	61
<표 3-4>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조사항목과 신뢰도	62
<표 3-5>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조사항목과 신뢰도	63
<표 4-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기술통계	71
<표 4-2>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72
<표 4-3> 자아존중감의 기술통계	72
<표 4-4> 학교생활적응의 기술통계	73
<표 4-5>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76
<표 4-6>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78
<표 4-7>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 수치	79
<표 4-8>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80
<표 4-9> 삶의 만족도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치	80
<표 4-10>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82
<표 4-11> 자아존중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치	82
<표 4-12>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84
<표 4-13> 학교생활적응의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치	84
<표 4-14>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 적합도 지수	86
<표 4-15> 다변량잠재성장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86

<표 4-1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89
<표 4-17> 연구문제 1의 가설검증 결과	90
<표 4-18> 연구문제 2의 가설검증 결과	91
<표 4-19> 매개효과 분석	95
<표 4-20> 개별 매개효과 검증	97
<표 4-21> 연구문제 3의 가설검증 결과	99

그림 목 차

〈그림 2-1〉 단일차원 문화적응이론	24
〈그림 3-1〉 연구모형	53
〈그림 4-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78
〈그림 4-2〉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80
〈그림 4-3〉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 비교	82
〈그림 4-4〉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84
〈그림 4-5〉 다변량잠재성장 수정모형	88
〈그림 4-6〉 팬텀 모형	96

ABSTRACT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o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 Focusing on the Longitudinal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Jong-Soon, Chun

Advisor: Prof. Yong-Seob Kim Ph.D.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growth change in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o longitudinally check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n life satisfaction changes. Data from the 4th year (2014, 1st grade of middle school) to 6th year (2016 and 3rd grade of middle school) of the Multicultural Youth Panel Survey (MAPS)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ere used. The total gender ratio was almost 1:1, with 1,143 people who responded to the survey from MAPS 4th to 6th, 50.6% (578 people) for women and 49.4% (565 people) for men. As an analysis method, after perform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and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23.0, a potential growth model for each variable of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school life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was developed using AMOS 23.0, and a multivariate potential growth model was combine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mediating effect was

verified throug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between variables. The main research results according to the research problem are summarized as follows.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school life adaptation, and life satisfaction variabl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matched the linear change model, and the initial value and rate of change of each variable were confirmed to be significant, and the effect of acculturation stress on life satisfaction was verified to be mediated by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Specifically, it was confirmed that life satisfaction, acculturation stress,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ll decreased over time, and especially, life satisfaction,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creased over time.

The 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 is an appropriate analysis model for longitudinal studies, which complements the limitations of cross-sectional studies that examine only the influence of a single point of view, can examine both growth change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value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wa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ange value of acculturation stress and the change value of life satisfaction. It suggested that an approach to lower risk factors and strengthen protective factors affecting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could be more effective than direct intervention aimed at reducing acculturation stress in order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confirmed the longitudinal influence of cultural adaptation stres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on life satisfaction through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and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to reveal their structur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theoretical meaning of the role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between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attempted in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setting intervention measures for acculturation stress, which was recognized as a factor negatively affecting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In addition, the confirmation results of the role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mediating role are expecte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follow-up studies on the life satisfaction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provides a mor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perspective than previous studies focusing on cross-sectional approaches by looking at changes in the cumulative influence and life satisfaction of self-esteem and school life adaptation in the long term.

Keywords: Multicultural Adolescents, Acculturation adaptation stress, Life Satisfaction, Self_esteem, School life adaptation, Mediation Effects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유입으로 인종적, 문화적인 다양성이 공존하는 다문화사회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법무부(2020)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국제결혼이민자 수는 168,594명으로 2016년 152,374명에 비해 무려 10.6배나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교육부(2020)의 「교육 기본통계」는 2020년 다문화 학생 수가 147,378명으로 2016년 99,186명에 비해 무려 48.5배나 늘어났다는 보고를 볼 때, 다문화 학생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사회구조로 변화하고 있어 앞으로도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증가세는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 청소년 수의 양적 팽창과 동시에 이들에게 보이는 발달상의 문제가 표면화되면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나재은, 2017; 서영우, 2016; 양계민, 2016; 김평화, 2019)도 늘어나고 있다.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 연구는 부모의 출신 국적과 사회경제적 지위, 양육 태도 등에 따른 부적응과 학교생활적응(김희경, 2011; 오정아, 2019; 은선경, 2010; 이희정, 2018)에 주목하고 있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이 외국 출신 부모 배경을 이유로 한국문화와 통합하는 과정에서 겪는 정체성과 가치관의 혼란, 미숙한 한국어 구사 능력 등 일반 청소년과 다른 사회 환경들이 이들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인(전경숙·임양미·양정선·이의정, 2010; 김평화, 2019; 강유선, 2020)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결과를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연구가 삶의 만족도로 관심이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국내의 다문화 청소년은 한쪽 부모가 외국 출신이며,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하여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변의 다양한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구분 짓는 차별적인 시선을 인식하며 성장하게 되고, 일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발달단계별 과업을 수행함과 동시에 암묵적으로 부여받는 ‘다름’을 인정해가며 한국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이차적인 과업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국내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문제행동보다는 종합적 차원에서 삶의 만족도 향상에 관심을 두고 진행하고 있어 다문화 청소년 또한 결핍관점에서 문제점을 설명하기보다는 일반 청소년과 비슷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다문화적 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는 방향으로 연구범위(안선정 외, 2013; 김평화, 2019)가 확장되고 있다.

Huebner et al. (2004)는 삶의 만족도를 자신의 삶에 대한 정도를 인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라 하였고, Day & Jankey(1996)는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해석과 평가에 의미를 둔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일상에서 부정적 자극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서 기능(Huebner, 1991; Mc Knight et al. 2002) 함과 동시에 성인기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Diener, 1994)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성장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안선정 외(2013)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외국출신 부모의 문화적응, 언어 문제, 가치관과 생활방식 등의 차이에서 오는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가 낮아질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김현숙 외(2018)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주변의 배타적 환경으로 인해 이들이 지각하는 주관적인 삶의 만족도는 떨어진다고 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외부 환경요인에 의해 달라지는 특성이 있고(Fujita & Diener, 2005; Gilligan & Huebner, 2002) 자아 존중감(한선영, 2011; 강유선, 2020)이나, 스트레스(김재엽외, 2013), 사회적 지지(손영미, 2012; 김민주 외, 2018), 학교생활적응(이지민, 2007; 유경훈, 2013) 등도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공통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일반 청소년과 동일한 성장 과정을 겪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 또한 청소년기에 이행되어야 할 발달과 문화적응이라는 이중 과업수행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가 더 낮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에 관한 Berry et al.(1997)의 연구에서는 이들이 소속된 주류문화에서의 차별적인 감정, 소외감, 주변화된 느낌을 경험하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고, Cokley & Chapman(2008)은 이러한 경험이 학업에 대한 성취동기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주어 우울·분노와 같은 내재화된 문제와 공격성 등 외현화된 문제를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Ward & Kennedy(1993)는 다문화 청소년은 두 나라의 문화 적응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인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부모가 속한 사회와 주류 사회의 문화적 충돌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이런 경험들의 축적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고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이외에도 자아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또한 삶의 만족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목되었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인식 중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관한 문제로 자신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관련이 있다. 청소년기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발달은 청소년기를 무난하게 보내고 성장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다(송승민·이유현, 2012; 한신애·문수백, 2010). 이는 다양한 문제행동을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강유선, 2020; 오영경·이형실, 2010; 이지숙, 2009)할 뿐만 아니라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변인으로 일관되게 보고되고 있다.

Kessler et al.(1998)은 자아존중감을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로 보기 때문에 그 자체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느끼고, 반대로 낮아질수록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신미등(2012)의 연구에서도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있어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이

검증되었으며,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고, 한아름(2018) 역시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남윤주·이숙, 2009; 백지숙 외, 2014; 박은민, 2013)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김평화 외(2019)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자아존중감이 직접적인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고,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을 유형화한 천희영·이미란(2015)의 연구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내적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자신이 속한 독특한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백경희·이수천, 2014; 백지숙 외, 2014)는 다문화 청소년은 이중문화 환경 속에서 차별과 따돌림 등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일반 청소년들에 비해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다문화적 특성 변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에서도(김미지, 2014; 오정아, 2019; 차한솔, 2020), 자아존중감은 자아 정체감이나 자기효능감보다 학교생활적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에게 있어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은 학교생활적응을 돕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으며, 높은 자아존중감은 자신감을 형성하고 원만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게 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손한결, 2020; 노보람 외, 2019; 박계란·이지민, 2011; 백지숙 등, 2014). 안선정 등(2013)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학교생활에 적응을 잘할수록 자아존중감은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전 학년(1학년에서 3학년까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영향 관계를 살핀 연구(손한결, 2020; 윤은영, 2019)에서도 두 개 변인 간에는 서로 순환적 관계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처럼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상호 간의 영향 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청소년기에 학교는 단순히 지식 학습의 장이 아닌 새로운 환경에서 타인과 조화로운 관계 형성을 배우는 힘을 기르는 장소이다. 특히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가족 중심 관계를 벗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짐에 따라 교사와 또래 접촉을 통해 학교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관계 형성을 배우는 중요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에서의 건강한 상호작용이 성인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를 논의할 때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것과 동시에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요인임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간의 관계와 변화를 살피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발달단계나 경험에 따라서 변화하는 유동적인 특성을 가진다(정익중, 2007; 홍세희 외, 2006; 김평화, 2019; 강유선, 2020; Doyle & Kao, 2007; Phinney, 2005). 백승희 외(2018)의 연구에서도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발달하는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장기적으로 축적되고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관한 종단연구(백승희 외, 2017; 최유선·손은령, 2015; Anusic, 2013; Tolan & Larsen, 2014)는 삶의 만족도가 시간이 흐를수록 감소한다고 하였다. 김윤희·김현숙(2016)의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rol & Orth(2011)의 자아존중감 변화를 살펴본 연구에서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연령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한성희, 2015; 김민주·윤기봉, 2018; 서현석·김태균, 2020)는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관계를 횡단적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이나 학교생활적응은 성장함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

에서 발달단계별 특징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종단적 접근 연구방법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의 발달과정에 따라 그 양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탐색하고 종단적 변화에 대한 구조적 관계를 분석하여 각 변인의 잠재성장모형을 추정하고 청소년들의 개인 내, 개인 간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직접적 영향과 함께 간접적 영향을 매개 효과로 밝혀 삶의 만족도 정도의 차이를 설명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는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삶의 만족도의 변화 양상을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본 연구가 한국 사회의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실질적이고 정교한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시에 연구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제2절 연구문제 및 범위

1. 연구문제

본 연구는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를 근거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에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를 살펴보기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변화 양상은 어떠한가?

연구문제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 생활적응의 각각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2. 연구범위

본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 매개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 조사(MAPS)의 4차 년도(중학교 1학년), 5차 년도(중학교 2학년), 6차 년도(중학교 3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인 다문화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 확인 결과 최종 분석대상자는 1,143명으로 여자는 578명(50.6%), 남자는 565명(49.4%)이며 전체 성비는 거의 1:1에 근접하였다. 연구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 확인을 위해 종단분석 변수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변인으로 선정하였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간의 종단적 관계를 분석하였다.

셋째, 종단 매개분석을 위해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선정하고 문화적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넷째, 종단 매개 효과분석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개인 외적 요인으로 학교생활적응을 선정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다문화 청소년

1. 다문화 청소년의 개념

한국 사회는 국제결혼이주여성 및 이주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 등의 유입으로 급속하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법무부(2020)의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체류 외국인 수는 203만 6,075명으로 인구 대비 3.93% 차지(코로나 19 발생 전 2019년은 252만 4,656명, 인구 대비 4.87%)하고 있어 한국 사회가 다문화사회로 이행하는데 다문화가정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다문화 가정’이란 용어를 사용하기 전까지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루어진 가정을 ‘혼혈 가족’, ‘이중문화 가정’으로 불려왔다. 신명주(2018)의 연구에서는 2004년 건강 가정시민연대를 통해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적인 용어를 추방하여 국제결혼 가정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자 이를 하나의 가족 안에 다양한 문화공존의 의미로 ‘다문화가정’ 용어를 처음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다문화가정은 다른 민족 또는 다른 문화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다양한 가정을 통칭하며(최효인, 2017), 국제결혼 가정, 이주 노동자 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을 포함한다. 진은영(2014)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다문화 가정 자녀, 다문화 청소년, 다문화 학생으로 다양하게 지칭하였고, 다문화가족은 결혼이민자 또는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하여 이뤄진 가족과 외국인 노동자, 북한 이탈주민이 구성한 가족의 자녀까지를 포함하는 광의적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

「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을 국제결혼가정의 24세 이하 자녀로 부나 모 중 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인 가정의 자녀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양계민(2019)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본인 또는 부모가 이주의 배경을 가진 청소년으로 선정하였고, 그 연령을 「청소년기본법」 기준인 9세~24세인 자’로 정의하였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구분을 국제결혼 가정 중 국내 출생 자녀, 국외 출생 후 중도입국 자녀, 그리고 외국인 가정의 자녀로 분류하였고 이들에 대한 정의는 다음 <표 2-1>과 같이 제시한다.

<표 2-1> 다문화 청소년의 구분 및 정의

국제 결혼 가정 자녀	국내 출생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인 부와 외국인 모 사이에 태어난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 · 과거에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었으나,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외국인 부모가 생긴 경우는 포함하지 않음
	중도 입국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이민자가 한국인과 재혼 후에 외국에서 태어난 자녀 · 국제 결혼가정 자녀로 외국인 부모 본국에서 성장하다 청소년기에 부모와 함께 한국에 입국한 자녀 · 국내 입국 시에는 외국 국적이었으나 특별귀화로 한국 국적으로 전환 가능한 외국인가정 자녀
외국인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가 모두 외국인(외국인 근로자, 재외동포 등)이며 한국에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

출처: 양계민 외(2020). 유·초·중등 기본교육통계의 다문화 청소년 정의.

다문화 청소년 통계는 행정안전부(2018)의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조사와 교육부(2021)의 「다문화 학생현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2018)는 다문화 가구 구성원 중 다문화가정 자녀를 ‘외국인가정 자녀’라 하고, 가정 내에 부모가 전체 외국계인 경우와 부모 한쪽이 외국계인 경우 생

물학적 부모가 모두 한국인이고 이혼, 사별 등으로 외국인과 결혼하여 한쪽 부모가 외국계인 경우 모두를 포함한다.

교육부(2021)의 「다문화 학생현황」 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다문화 청소년 수가 16만 명이며, 이중 국제결혼가정의 중도입국 자녀(0.9만 명, 5.8%)와 외국인가정 자녀(2.8만 명, 17.8%)가 약 24%를 차지하는 반면에 국내에서 출생한 자녀는 76%(12만 명)로 다문화 청소년의 대부분은 국제결혼가정에서 국내 출생한 자녀이다. 이를 학교 급별로 살펴보면 초등인 다문화 청소년이 매우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중학생과 고등학생 순으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전체 다문화 청소년 16만 명 중 초등학생이 69.6%(11만 명), 중학생은 21.2%(3만 명)이며, 고등학생은 8.9%(1.4만 명)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비율이 90%이며 이들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을 국제결혼가정에서 국내 출생한 자녀로 한정하여 연구하였다.

교육부(2021)의 「교육 기본통계」에 따르면, 국내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 학생 수는 2021년 160,056명으로 전년 대비 8.6% 상승하여 2012년 조사 이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반 청소년 학생 수는 2021년 532만 명으로 전년 대비 0.4%(3만 명) 감소하여 학령인구는 지속해서 떨어지는 추세이다.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정책과 관심은 이민자나 결혼이주여성에 비해 소홀한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국내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 세대와는 다르게 세대를 거치면서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으므로 이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 완전하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책지원과 관심이 요구된다.

홍봉선·남미애(2007)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은 발달단계별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해가는 “청소년기”에 해당하고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통해 성인기로 옮겨가는 과도기라고 하였다. 또한, 부모의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을 배워가는 시기로 긍정적인 자아와 부정적인 자아 간의 갈등을 반복하고 이를 극복하면서 정체성을 확립해가며 성장하는 시기이다. 이렇게

일반 청소년과 다른없는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중문화 적응과 학교생활적응의 이중 과업수행으로 더욱 정체성 혼란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으로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문화적응의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2. 다문화 청소년의 특성

여성가족부(2018)의 「전국다문화가정 실태조사」 발표에 따르면, 다문화가정 자녀 중 83.7%가 국내에서 성장하였고 외국인 어머니인 경우가 89.8%로 확인되었다. 이는 주로 어머니가 외국인이고, 국내에서 성장한 경우로 절반 이상은 우리나라 다문화 청소년의 주요한 특징을 형성하며, 이들 대부분은 국내에서 태어났거나 성장하기 때문에 자신을 한국인이라 인식하지만, 이들이 반드시 그 문화를 완벽히 받아들였다거나 통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Pope-Davis et al. 2000; 설동훈, 2017)는 연구도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가정 안에서는 부모와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가정 밖에서는 주류인 한국문화를 경험하면서 성장한다. 이들의 두 문화가 양립하는 한국 사회에서는 다문화가정을 결핍, 취약, 소외 등으로 인식되어 이들이 한국문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 사이의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충돌을 직접 겪기 때문에 성장 과정에서 이중 문화를 경험하고, 이에 적응하면서 많은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고 있다(김순규, 2011; 박진우·장재홍, 2014; 박동진, 2022). 또한 이들의 상당수는 한국어가 서툰 언어 문제와 사회적 편견, 차별 등으로 인한 낮은 자아존중감을 보이고, 자아정체성 문제로 혼란을 겪고 있다(김경란, 2006; 박진우·장재홍, 2014; 차승은·유정균, 2019)고 보고하였다.

박동진·김송미(2021)의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 환경을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 낮은 삶의 만족도를 경험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 뿐 아니라, 높은 우울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일부 매체는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 사회 속에서 겪는 어려움(가정폭력, 의사소통의 어려움, 사회적 차별 등)과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임을 보여주어 이들의 어려운 환경이 주목받으면서 사회적, 정책적으로 지원의 정당성은 확보되었지만, 이들이 취약집단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져 이에 따른 정책과 연구가 진행되었다(양계민 외, 2016).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이 가족특성과 부모의 양육방식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에서 주류 학생들과 큰 차이가 없다는 연구결과(김혜미·문혜진, 2013; 은선경, 2010)가 알려지면서 부정적인 이미지에서 벗어나 이들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집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연구결과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 보다 뒤떨어진다는 기존의 인식은 잘못되었음을 제시하였고, 김현철 등(2015)의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도 다양한 배경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결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은 결핍, 소외, 취약하다고 인식되고 있다. 김영은(2014)의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도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와 연결된 부정적인 단어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은 이를 뒷받침 해주는 결과이다. 두 가지 이상의 문화가 공존하는 가정에서 성장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정체성을 정립해가는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다른 사람의 평가도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를 인용(Khanna et al. 2004)하면, 이러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한국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청소년기에 개인적인 정체성과 사회적인 정체성의 혼란이 예상된다. 황윤미 등(2018)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고, 정서 행동문제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도 있다. 정체성 형성과정은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을 찾아가는 과정

으로 개인적인 정체성과 사회적 정체성이 상호작용을 이룰 때 정체성이 건강하게 형성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송렬(2020)의 연구에서는 자아정체성은 기본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 경험에 따라 형성되고 이것은 자신과 환경에 대한 인지적인 지각을 강조하며, 이러한 자기지각은 자신이 행동을 결정하는 중요 변인이 된다고 하였으며, 정체성 형성에 있어서 긍정적인 자아는 개인의 자아실현뿐만 아니라 성인기의 미래를 대비하는 필수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강유선(2020)은 일반 청소년과 같은 시기의 다문화 청소년은 주류문화와 외국 부모 나라 문화가 양립하는 상황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할 수 있으며, 이들은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국내 일반 청소년과는 다른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이 다문화가정 자녀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드러낼 때 건강한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부향숙·김진한(2010)은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을 ‘국가 간 관계 속에서 다른 위치에 속해 있는 이질적 언어, 문화유산, 이질적 외양이나 역사 등 다수의 요인에 의해 형성된 문화적 배경으로 그들만의 특징이나 의식’이라고 설명하였다. 결국, 문화 정체성과 연결되는 개념이며, 문화 정체성은 어떤 소속된 집단에 주관적 감정(Phinney, 1990)과 문화 선호도 문제로(Ward, Bochner & Furnham, 2001) 그 사이에 개념적 차이는 존재할 수는 있으나 문화적응 연구(Liebkind, 2001; Nguyen et al. 1999)에서는 문화 정체성과 문화적응 태도는 동일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다. 이는 문화 정체성을 문화 적응과정의 핵심적인 부분으로(Liebkind et al. 2006) 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성수나(2020)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출생 유형에 따라 성장배경과 다양한 이주 배경을 지니며 이들의 발달과정에서 경험한 심리적 미해결된 문제들이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사회 안에서 다문화가정이라는 이유로 차별과 편견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이는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본유적으로 서로 다른 문화에서 성장하고, 이로 인해 내가 누구이며 어떤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끊임없는 선택과 결정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 청소년들이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고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사회적인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

제2절 문화적응스트레스

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개념

사회구성원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는 문화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으며 사람이 동물과 구분 짓는 기준이 문화(정진경·양계민, 2004)이며, 사람들이 함께 생활하는 민족의 척도 기준 역시 문화라고 하였다. 문화란 어떤 집단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교환, 사유, 생활, 행동 등 그 집단에서 오랫동안 습득하여 계승해온 양식을 의미한다(Redfield & Linton, 1936). 모든 사람의 관습과 가치관, 이들이 사용하는 모든 물질적 측면을 문화의 범주로 포함한다(김선웅, 2006). 보통은 문화를 한 사회 공동체 사람들이 공유하는 생각, 행동, 사물을 모두 포함하는 총체라고도 할 수 있다. 신혜정(2007)은 인간은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본인이 속한 사회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만 이전과 다른 문화 안으로 편입될 때는 이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다고 보고 하였다.

적응(adaptation)이란 ‘사람이 환경이나 일정한 조건에 맞추어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적응(Acculturation)은 각각의 독립적인 문화 집단이 다른 문화를 배우고 습득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발생하는 현상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20세기 초부터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문화적응이란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교류하면서 문화접촉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적응 상황은 이민자, 이주 노동자 또는 소수민족이 공존하는 사회라면 반드시 경험할 수밖에 없는 사회 현상이다(박현선 외, 2012). 즉, 어느 한쪽 문화만의 일방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개의 문화가 상호 영향을 주고받아 함께 변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은 서로 다른 문화가 접촉한다는 전제하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다른 문화 도입을 추진하는 문화 전파와는 다른 개념이다.

Berry et al.(1997)는 다차원적 문화적응 측면을 강조한 대표적인 학자로 이민자와 이들이 정착한 주류사회와의 상호작용 현상을 분석한 결과로 문화적응 모형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문화적응의 두 개 측면을 중심축으로 설정하여 네 개로 유형화하는 모형을 제시하였다. 새로운 주류사회에 정착하려 하는 이민자들의 고유문화와 정체성 유지 수준을 하나의 중심축으로 설정하였고, 또 다른 하나는 주류사회의 규범과 수용수준을 중심축으로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주변화(Marginalization), 분리(Separation)로 분류하였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문화적응 관련 이론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Berry(1997)는 이런 문화 적응과정 중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문화적응스트레스 개념을 제시하였고, 문화적응 유형에 따라서 적응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정도가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Acculturation stress)는 주변의 환경요구가 개인이 가진 자원의 양을 넘어서 개인의 심리적 안녕을 위협하는 현상이라고 한다(Lazarus & Folkman, 1984). 스트레스란 개인이 살아가는 환경적 요구와 개인이 보유한 자원이나 능력의 부조화로 인해 발생하는 현상을 의미하며, 새로운 문화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모든 스트레스와 차별을 함께 내포한다(Finch & Vega, 2003). 문화적응스트레스는 Lazarus & Folkman(1984)이 정의한 스트레스의 개념적 정의로 낯선 문화가 개인에게 요구되는 적응 능력이 개인의 내적 역량과 외적 역량 이상으로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거나, 타문화 속에서

자신의 지지와 신념체계를 상실함으로써 유발될 수 있다고 하였다(Berry & Kim, 1987).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이나 집단이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역기능적 긴장 상태로서 불안,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부정적 정서 속에서 부적응을 경험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학자들은 이러한 문화 적응상의 스트레스를 개념화하기 위해 Lazarus & Folkman(1984)의 스트레스 이론에 근거하여 개인이 보유한 자원을 초과하는 내·외적인 스트레스를 사회·문화적으로 확장하여 정의하였다.

Berry(1997)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문화적 상황에서 변화를 직면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으로 적응과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라고 하였고, 송순택(2014)은 문화적응스트레스란 ‘다른 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심리·문화적 스트레스를 말하며 원래 자신의 문화 및 사회에서 경험한 것에 대한 현격한 차이를 직면하고 경험할 때 받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하였다. 홍진주(2003)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이주민들이 주류문화 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신과 주변에 대한 통제 능력으로 개인적 관계와 심리적 만족에서 일어나는 심리적 안녕 상태를 대변하는 개념’이라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란 ‘두 가지 이상의 문화를 동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느끼는 부담감, 걱정, 근심, 불안, 긴장과 같은 자신이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넘어서는 스트레스’라고 정의한다.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기존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관한 국내 연구들은 주로 결혼이주여성(이하늘, 2013; 전미숙, 2011; 조용재, 2018)이 대상이며, 이들이 한국문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로 주를 이루었고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드물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

에서 태어나고 성장하여 한국인이라는 정서가 있다. 하지만, 부모 한쪽은 한국
 인이고 다른 한쪽은 외국 국적으로 두 개의 문화가 상호 접촉하며 발생하는
 문화 적응과정을 경험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다문화 청소년은 성인과 마찬
 가지로 외국인 부모가 속한 사회와 주류사회의 문화적 가치의 충돌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Ward & Kennedy, 1993). Sirin & Gupta(2013)
 는 국외에서 태어나 이주해 온 중도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태어나
 한쪽 부모가 외국인인 2세 청소년 역시 문화적응스트레스에서 자유롭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릴 때는 가정 내에 국한되었던 문화 이슈가 성장하면서 학교
 진학과 지역사회 외부 사람들과 접촉을 통해 한국인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위협받는 경험을 하게 된다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은 청소년기에 이행되어야 할 발달과 문화적응의 이중과업으로
 인해 부모 세대와는 다른 문화적응스트레스 양상을 보이며, 부모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할 가능성도 있다(금명자 외, 2006, 강유선,
 2020). 외국 출신 부모는 문화적응에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본국 문화와 연결된
 자신의 탄탄한 연계가 있어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와의 마찰에서 때론 비껴갈
 수도 있고, 또 선주민 부모는 한국인 정체성을 의심받아 본 적이 없는 것에
 반해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인 정체성을 위협받는 이중문화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변 환경이 이중문화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소외와 차별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면서 ‘중간에 낀’ 문화적 정체성 혼란으로
 인해 높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으며, 이들은 청소년기의 특성상 외국
 출신 부모보다는 새로운 문화에 더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부모와 또래 사이
 에서 가치관의 혼란과 갈등이 가중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관한 선행연구(Gil et al. 1994; Hovey & Marana, 2002)
 에서는 차별이나 언어적 문제, 사회적·재정적 자원의 부족, 소외감, 가족과의
 분리, 문화적 비 양립성 등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예측요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이 느끼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중심에는 언어 문제가 깊이

개입되어 있다. 고유미(2009)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 구사 능력이 부족한 상태로 이주하면서 자녀의 언어 능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느린 언어습득 능력이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처럼 한국 사회에 존재하는 배타적인 문화와 비서구권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오성배, 2005), 상대적으로 낮은 지위와 취약한 사회 환경(이상균 외, 2012)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을 저해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선행연구(Padilla, Alvarez & Lindholm, 2006)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정의 혼재된 문화와 부모로부터 전이되는 특성으로 인해 더욱 심화 된다고 지적하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사회적, 가족적, 환경적 맥락에서 탐색한 연구들은(Castillo et al. 2008; Fuertes & Westbrook, 1996)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외국 출신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기인 된 경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astillo et al.(2008)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부모의 문화적응 태도와 관련이 있으며, 부모와 자녀 세대 간 발생하는 문화적응 차이로 인한 가족 내 긴장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에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과 주변 환경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삶의 만족을 저해한다(Hovey & Magana, 2002). 는 점에서 주목해 볼 만하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가정이 처한 환경적 맥락에 따라 변화될 수 있으며(Schwartz, Montgomery & Briones, 2006), 국외 연구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 양상에 대한 종단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Phinney et al. 2001; Ying et al. 2005).

김서정(2019)은 잠재성장모형을 통한 집단분석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하였으며, 모든 집단에서 학년이 높아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한편, Ying et al.(2005)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점점 감소한다고 하였다. 이처럼, 연구대상의 국가와 연령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지속해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들도 발달과정 속에서 우리나라의

민족적 특수성을 기반한 경험들로 인해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발달 양상 역시 다양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주요이론

가. Berry의 문화적응이론

Berry의 문화적응(Acculturation) 이론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 수용 태도에 관한 연구의 이론적인 기틀을 제공하였다. 문화적응에 대한 연구는 1970년경 심리학 이론에서 이민자의 심리 부적응에 관한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고, 초기 연구들이 일차원적인 개념을 제시하면서 이민자들의 문화적응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문화 및 정체성을 상실하고 주류사회가 가진 규범과 가치를 습득한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주장은 원 문화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이주 사회에서도 적응을 성공적으로 해가고 있는 이민자들을 설명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다차원적으로 문화적응을 설명하려는 모델을 제시하게 되었다(Berry et al. 1997). 이 모델은 개인이 가치가 있고 갈망하는 주류문화를 수용하는 태도와 자국 문화의 전통을 유지하고 고수하려는 두 개의 문화 조합을 네 가지의 범주화를 통해 다차원적으로 접근하려 시도하였다. 먼저 개인 차원의 문화적응의 첫 번째 유형으로는 문화 유지에 대한 것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문화 정체성은 확립하고 그에 대한 가치와 특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관한 것과 두 번째는 접촉과 참여로 다른 문화 집단에 소속되거나 그들 사이에 머물러 있으면서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와 관련해서 문화적응 유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모국의 문화도 유지하면서 새로운 문화를 동시에 받아들이고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통합(Integration)이라 하였다.

둘째, 모국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는 원하지 않지만 다른 문화와의 상호작용

용을 받아들이면 동화(Assimilation)로 보았다. 이처럼 통합유형은 주류문화 정체감과 자국 문화 정체감 모두 높게 인식하는 경우로 양쪽 문화에 대한 가치관이 높게 형성된 집단을 의미하며, 동화유형은 주류문화에 대해서는 높은 인식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자국 문화에 대한 정체감은 낮게 형성되어 자국 문화 정체감은 포기하고 주류문화에 흡수되는 집단이라고 하였다.

셋째, 자신의 모국문화 정체성과 가치는 유지하지만, 외부와의 상호작용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리(Separation)라 하고, 마지막으로 문화 유지에 대한 정체감도 낮으면서 새로운 문화와의 관계 유지 가능성도 작다면 주변화(Marginalization)라고 정의하였다(Berry et al. 1997).

이처럼 분리유형은 동화유형과 반대로 자국 문화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하고 주류문화에 대해서는 낮게 평가하여 자국 문화의 정체감만 수용하고 주류문화 정체감은 거부하는 집단이며, 주변화 유형은 자국 문화와 주류문화의 가치를 모두 낮게 평가하거나 거부하면서 자국 문화와 주류문화와의 관계 형성을 모두 다 수용하지 못하는 집단으로 보았으며, 이를 표로 제시하면 <표 2-2>와 같다.

<표 2-2> Berry의 문화적응 이론

차원 2 \ 차원 1		모국문화의 정체감 및 특성 유지	
		아니다	그렇다
주류사회 관계를 유지할 것인가?	그렇다	동화(Assimilation)	통합(Integration)
	아니다	주변화(Marginalization)	분리(Separation)

출처: Berry et al. (1997). (강유선, 2020에서 재인용, 연구자가 재구성)

일련의 연구에서 문화적응 이론을 살펴보면, 이주민들의 가장 유용한 문화 적응 양상은 양쪽 문화 모두를 적절하게 수용하는 통합유형이며, 양쪽 모두를

거부하고 있는 주변화 유형은 통합과 반대되는 가장 비효율적인 문화적응의 상태임을 밝혔다(Phinney & Deivch-Navaro, 1997; Berry et al. 1997; 강유선, 2020). 이러한 문화적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종류의 자극들은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자 할 때 개인이나 집단에서 경험하게 되는 현상으로 신체적·정신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어 개인이나 집단의 균형을 깨뜨리며, 현재의 주류문화와 모국 문화의 유사성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한다(Nwadiora & McAdoo, 1996). 한편으로 Berry의 이론은 주목은 받았으나, 현실적인 문제점은 있었다. 이민자가 문화 적응과정에서 실제로 네 개의 전략 중에 한 개를 선택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한계이다(김평화, 2019). 이에 관련된 전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한 개의 특정 전략을 선택한다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선택된 전략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사적인 영역과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다른 전략으로 대처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는 자신의 고유 문화를 유지하는 방향을 취할 수 있으나, 현재의 주류사회가 통합을 중시하는 정책을 시행한다면 개인도 통합 지향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높고, 동화를 중시하는 정책을 펼친다면 이들도 동화전략을 취하기가 쉽다.

둘째,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활하면서 문화적응의 전략을 바꾸어 나간다는 것이다. 즉, 평생 하나의 전략만 고수하며 계속해서 그 전략만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 증가하면서 다른 전략도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개인과 집단에서 선호한 전략이라 할지라도 주류사회에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동화정책을 취하는 국가에서 통합전략을 선택한 개인이나 집단은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Berry et al.(2001)은 후속 연구에서 문화적응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들을 받아들이는 주류사회의 태도까지 언급하며 이민자들의 문화 적응전략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주류집단의 태도라는 관점을 덧붙여 기존의 문화 적응이론을 보다 확장 시켰다.

문화적응 개념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주류사회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현상임에도 그동안 진행된 연구에서는 주류사회가 접하고 있던 문화적응의 양상을 살피지 못했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주류사회가 이민자 자국의 고유한 문화 정체성과 주류사회와의 관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따라 문화적응 형태가 달라질 수 있어 이러한 문화적응 현상을 설명할 때에는 이민자의 집단뿐만 아니라 주류사회의 고려 사항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논의에 따라 주류사회의 문화적응을 네 개의 형태로 제시할 수 있으며 표로 설명하면 <표 2-3>과 같다.

<표 2-3> 주류사회가 이주민에 대한 네 가지 문화적응 태도

차원 2 \ 차원 1		이주민이 모국문화에 대한 정체성 및 특성 인정	
		그렇다	아니다
주류 사회와의 관계 인정	아니다	격리(Segregation)	배제(Exclusion)
	그렇다	다문화주의 (Multiculturalism)	용광로 또는 융합 (Melting Pot)

출처: Berry et al(1997). (강유선, 2020에서 재인용, 연구자가 재구성).

위의 표에서도 보여주듯이 이주민이 가지고 있는 모국문화의 특성들은 인정하면서도 주류사회와의 유대관계 유지를 위해 배려하는 태도를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라고 한다. 주류사회의 기존 주류집단이 이주민들이 지녀온 모국문화 정체성을 인정해주지 않고 주류사회로 흡수하여 동화되기를 강요하는 경우 주류집단의 문화적응 태도는 용광로(Melting Pot)의 양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형태는 소수집단의 문화적 지속성이 부정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하나로 통일된 국민, 하나의 문화, 하나의 국가 형태로 통합된다. 이와 같이 동화 모델은 이 입국 주류사회에 의해서 용광로 모델이 강하게 추진되었을 때 구축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주민이 가진 모국문화의 특성

들은 인정하지만, 주류사회에 참여하려는 것을 제한하는 태도를 격리(Segregation), 주류사회가 이주민들이 지닌 모국문화의 특성도 인정하려 않고 주류사회에서도 분리하려는 태도를 배제(Exclusion)라 하였다.

Berry의 이론에서는 새로운 문화접촉과 수용을 통해서 이주민 본국의 고유 문화는 유지하면서 자신들의 문화 정체성을 지킬 수 있는 이차원적인 관점을 제시하여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문화 적응과정을 인지·정서·행동적인 요소로 넓게 다루었고, 문화접촉을 적응적·능동적인 대처 측면에 초점을 두었다. 또한, 문화접촉 과정에서는 정서·인지·행동 요소를 살펴봄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과정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과 문화적응을 심리적 적응과 사회적 적응으로 구분하여 각 변인의 측정 과정을 수월하게 해주었으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각 변인의 체계적 분석을 가능하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나. 단일차원 문화적응 이론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다문화사회에 살아가는 이주민들의 문화적응 연구(하재필·박성희, 2012)는 이들의 원 문화와 주류문화 사이의 적응 관계를 기반으로 몇 가지 이론적 틀을 개발하였다.

단일차원 문화적응이론(One-Dimensional Acculturation Theory)은 문화적응 현상을 이주민들이 주류문화에 관한 가치와 행동을 내면화하는 과정이며, 이를 동화유형으로 정의하였다(Franco et al, 1983). 단일차원 문화적응 이론 관점에서는 문화적응 현상을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과 낮은 수준의 문화적응, 문화적응과 비 문화적응의 형태로 구분하였다. 실제로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 상태란 이주민이 주류 문화 가치에 대해 동화된 상태를 내포하며, 낮은 수준 문화적응 상태로는 이주민들이 스스로 자국의 문화에 대해 높은 가치를 두는(Nguyen & Von Eye, 2002) 현상을 의미한다.

제3절 삶의 만족도

1. 삶의 만족도의 개념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인지하고 평가하는 것으로 개인의 강점과 행복에 비중을 두는 긍정심리학에서 제안되었던 개념이다(Huebner et al. 2004). 개인의 행복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최근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김현주, 2019; 허미정 외, 2016; 백수진·임영진, 2013).

Humbler et al.(2004)의 연구에서는 삶의 만족은 객관적인 지표에 따라 측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평가에 따라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하게 삶의 만족도에 대한 정의를 자신의 삶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라고 하였다. 노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연구가 처음 시작되어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다가 청소년기의 적응과 긍정적 발달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면서 점차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연구로 확장되었다(Lyons et al. 2013). 서희정·윤명희(2018)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자신의 삶에 대해 다양한 내·외적 요인으로부터 영향을 받으면서 느끼는 만족감의 주관적 판단 또는 평가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청소년기의 높은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 정서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성인기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Diener, 1994)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주목받게 되었다.

국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에서 특정 시점에서 삶의 만족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박미정과 유난숙(2017)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증가하다가 중학교 3학년 이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감소하는 역 브이(∧) 형태로 나타났다(김소영·윤기봉(2017) 또한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

년까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종단분석 결과에서도 중학교 3학년까
 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우리나라 청
 소년의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삶의 만족도 감소 폭이 다른 나라 청소
 년에 비해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이봉주 외, 2015).

신미 등(2010)은 삶의 만족도는 개인이 자신의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만족
 하는 정도에 대한 인지적인 평가로써 자신이 현재까지 삶을 잘 수행해 왔고
 현재 삶에서 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며 스스로 만족해하는 것이라고 보았
 다. 한편, 삶의 만족을 행복 안에서 설명하고자 했던 Diener(1994, 1984)는 자
 신의 객관적인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 개인의 삶 전체를 고려한 전반
 적인 판단을 삶의 만족으로 보았다. 특히 Diener는 Suh, Lucas, Smith(1999)와
 공동 연구에서 삶의 만족을 개인의 주관적 판단 결과로 보고, 정서적 영역과
 인지적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정서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은 즐거운
 감정 요소가 높고 불쾌한 감정 요소가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았고,
 인지적 영역에서 삶의 만족은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평가하여
 얼마나 삶에 만족하고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았다.

삶의 만족과 행복 사이의 관계는 매우 밀접하여 삶이 만족스럽지만 행복하
 지 않거나 행복하지만 삶은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도 있다(이현송, 2000). 이
 처럼 청소년기 삶의 만족은 다양한 영역에서 주관적인 느낌과 평가(김남정·
 임영식, 2012; 최미원, 2017)로 사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며 스트레스와 고민
 이 낮은 상태를 스스로가 행복하다고 느낀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내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며
 (Fujita & diener, 2005) 삶의 만족도를 적절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개인, 가정,
 환경 등 여러 요인 모두를 고려하여야 한다(조성연 외, 2011).

이와 같이 삶의 만족도는 ‘삶이 즐겁고 평안하며 행복하다’라고 하는 안정
 적인 만족감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2.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국내 선행연구(김영민·임영식, 2013)는 전반적으로 아동·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가 낮다고 보고한다. 국내 청소년들은 학업에 대한 부담감, 지식 중심의 경쟁적 교육체제로 본인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느끼며, 삶에 관해 부정적이며, 비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다(전유신, 2010).

초등학교 4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 총 5,0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2018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의 연구결과, 주당 평균 60시간 이상의 학습 시간과 학년이 올라갈수록 개인 시간 소멸 등은 행복감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어 삶의 만족도가 일관되게 낮게 나타난다(정익중, 2018)고 보고하고 있다. 김소영·윤기봉(2017)의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 연구는 중학교 3학년까지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 청소년의 삶의 만족이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이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삶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부적응과 내재적 또는 외현화 문제의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러한 문제행동 발생 연령이(이현웅, 곽윤정, 2011; 홍태경·류준혁, 2011) 점차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 삶의 만족도 증진에 대한 조기개입의 중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 삶의 만족도 변화에 대한 선행연구(신미 외, 2012)에 따르면,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이행하는 시기에 삶의 만족도도 변화될 것이라고 유추하고 있다. 이 시기는 발달 특성상 학교와 학업에 대한 부담과 부모와의 관계가 분리·개별화되는 시기인 동시에 또래, 교사, 이웃과 같은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어 사회적 역할에서도 변화가 일어난다(Feldman & Elliott, 1990; Holmberk et al. 2000).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유사하게 적용될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 청소년과 성장 과정이 비슷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추이를

분석한 연구(김현숙·김옥녀·윤은영, 2018)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 역시 일반 청소년들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였다. 최현주·하영진(2017)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지속해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백승희 외(2018)의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초등학교 시기에는 증가하다 중학교 시기에는 점차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청소년기의 긍정적인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부정적 발달의 보호 요인으로서 역할수행을 한다고 하였다.

Diener et al.(1994)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부정적 현상에 대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성인기의 행복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의 절대다수가 국내에서 출생하여 한국인으로 성장해옴에 따라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일반 청소년 삶의 만족도 관련 요인들에서 벗어날 수는 없을 것이다. 더욱더, 다문화 청소년은 외국 출신 부모 특성에서 오는 조건과 차별적인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과 관련된 연구들(곽금주, 2008; 김승권 외, 2010; 노충래, 2000; 양미진 외, 2011; 이영주, 2007, 강유선, 2020)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의 심리, 사회적 측면 뿐만 아니라 가정 내 이중 문화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해서도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안선정 외(2013)는 다문화 청소년은 부모의 문화적 차이, 언어 문제,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출신 어머니의 서로 다른 가치관과 생활 태도, 사회적 편견과 차별로 인해 일반 청소년보다 더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아진다고 하였다.

김아영·김수인(2011)은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이 낮고 따돌림에 대한 피해가 높다고 하였다.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살펴본 국내 연구들은 소수지만(안선정 등, 2013; 강유선, 2020), 국외

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이들의 부정적인 심리 증상에 대한 유의미한 보호 요인으로 밝혀진 바도 있다(Gilman & Huebner, 2003; Neto & Barros, 2007; Sam & Berry, 2010).

Neto & Barros(2007)는 다문화 청소년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는 이주 배경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심리적 부적응 및 문제행동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가 문화 적응과정 속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성장변화를 살펴보고 다문화적 특성과 결합하여 어떤 인과관계가 있고 어떠한 발달수준을 보여주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삶의 만족도 주요 이론

사회과학에서 삶의 만족도(Life Satisfaction)를 삶의 질, 행복, 주관적인 안녕으로 정의하였다(황매향 외, 2016; 김현주, 2019; 송정화, 2011).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삶의 만족도 이론인 욕망 충족이론, 목표이론, 비교이론, 적응과 대처이론을 통해 살펴보고,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가. 욕망충족 이론

욕망 충족 이론(Desire Fulfillment Theory)은 인간의 다양한 욕망(식욕, 권력욕, 성욕, 명예욕 등)을 만족하게 충족될 때 삶의 만족도가 높다(Diener et al. 1984)는 이론이다. 욕망은 충동, 욕구, 동기와 혼용하여 사용되며, 심리학에서 흔히 사용되는 동기를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행동하는 내면의 원동력으로

(김현주, 2019; 권석만, 2008) 정의하고, 동기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유도하고 지속해서 조절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Ford et al. 1992). 내재적인 동기로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관련된 경험을 계속 추구하게 하는 유능성의 욕구와 서로 지지적인 관계로 인간관계 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관계성의 욕구, 독립적으로 삶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려고 하는 자율성 욕구(Ryan & Deci, 2000)로 구성되어 있다.

Diener et al. (1984)는 욕망 충족을 통해 쾌감과 환경적 여건 충족에 만족감이 더해지면서 삶은 만족스러워진다고 하였다. 또한, 인간의 욕구를 선천적인 생리적 욕구와 후천적으로 발생한 심리적 욕구로 구분하며 이러한 욕구는 상호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며 발전되는 경향이 있다. 욕망 충족이론에 따르면 내적 동기를 통한 욕망 충족으로 쾌감과 만족감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이들의 자발적 참여와 활동 지원을 통해 내적 동기유발의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

나. 목표이론

목표이론(Goal Theory)은 사람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향해 전진하여 성취하였을 때 행복하다는 이론으로, 여기에서 목표는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향점과 미래를 향한 희망, 기대(Austin & Vancouver, 1996)를 말한다. 이처럼, 목표이론에서는 목표의 성취(Wilson et al. 1967), 목표 상호간 일관성(Sheldon & Kasser, 1995), 목표 달성의 접근속도(Hseem & Abelson, 1991) 등에 따라서 행복할 수 있다는 여러 의견이 있다.

인간관계의 긍정적인 수용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목표를 향해가는 사람들이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명성을 추구하는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 수준이 더 높다(Cantor & Sanderson, 1999)고 하였다. 평가이론을 제안한 Lucas 등(2000)의 연구에서는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과정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이며 평가는 평가 기준, 개인 기질·성격, 소속 문화, 현재 처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평가과정 중심은 추구하는 목표 달성 정도와 향후 어떻게 잘 달성할지에 대한 평가(김현주, 2019; 권석만, 2008)라 하였다.

이상과 같이 목표이론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자신의 내재적 동기에 의해 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성취감을 느끼고 삶의 만족도도 높일 수 있다.

다. 비교이론

비교이론(Discrepancy theory)은 괴리 이론으로도 표현하며 인간은 어떤 기준과 비교를 통해 차이를 긍정적으로 인지할 때 행복하다는 이론이다(Michalos et al. 1985). 사람들은 자신의 과거의 삶과 지향하는 목표 및 이상적인 자기 상을 타인과 비교기준으로 삼아 본인의 가치를 평가하고 현재의 자신이 처한 상황보다 자신을 평가하는 기준의 속성이 더 중요하며 그들과의 차이가 긍정적일수록 행복하다 하였다(김현주, 2019; 권석만, 2008).

타인과의 사회적 비교는 본인을 평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수평적 비교와 상향적 비교 및 하향적 비교가 있으며, 하향적 비교가 상향적 비교보다는 행복하다(Lyubomirsky & Ross, 1997)고 하였다. 권석만(2008)의 연구는 과거와 비교는 본인 과거와의 비교를 통해 좋아졌다고 인식할 때 행복하다는 것으로 이는 과거보다 좋아졌다는 긍정적인 변화인식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목표와의 비교평가는 본인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와 비교를 통해 행복감을 느끼는 것으로 이는 목표 관련성(본인의 목표와 특정한 사건과의 관련성), 자아 관여성(특정 사건이 본인의 삶의 만족과 자아존중감과 관련성), 목표 합치성(본인의 목표 달성을 위한 도움의 정도) 등의 측면에서 평가한다(Lazarus et al. 1991). 가장 좋은 자기 상과의 비교평가는 자기 상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으로 이상적인 본인과 의무적인 본인에 대한 평가를 동시에 하며, 이들 간의 괴리가 클수록 삶의 만족도는 저하된다(Higgins et al. 1987)고 하였다. 이상과 같이 종합하면, 청소년기에는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기준이

필요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를 통해 자신의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작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적절한 이상에 대한 기준과 긍정적인 자기 상 확립이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라. 적응과 대처이론

적응과 대처(Adaptation & Coping Theory)이론은 행복의 이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적응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론이다. 적응은 동일한 쾌락 자극에 대한 점진적 감소 현상을 수동적으로 인식하는 것이며, 대처는 새로운 변화에 대해 인지적으로 반응하는 능동적인 행동이다(권석만, 2008; 김현주, 2019). 적응을 습관화 또는 둔감화 라고 정의하며 외부자극에 대해 보호해주고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해지도록 하여 새로운 변화 상황에 적응하면서 중립적인 상태로 돌아가도록 한다(Campbell et al. 1971)는 이론이다. 이처럼 변화에 예민한 사람들은 충족된 욕망이 달성되어서 행복감이 계속되면 긍정적 상태에 대한 신속한 적응으로 행복감이 저하될 수 있다. Brickman 등(1978)의 복권당첨자들에 대한 삶의 변화를 조사한 연구를 보면, 복권당첨자들이 일상 활동에서 느끼는 즐거움과 과거, 현재, 미래의 행복감은 이웃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덜 즐거웠으며 덜 행복했다고 한다. 이처럼 대처이론은 행복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여기에는 낙관적인 신념이 중요하다.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사람들은 변화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부여와 성숙한 해결 방식으로 문제를 대처하며, 이에 따라 합리적으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삶의 만족도가 높다(Kahneman, Diener & Schwarz, 1999)고 하였다. 하지만 비현실적 낙관은 잘못된 안전감과 위험한 지각으로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지속적인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낙관성이 현실적이어야만 한다(Schneider et al. 2001). 따라서 적응과 대처이론은 부정적인 사건에 대한 수용과 긍정적인 변화에 주목하고 앞으로 완성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처할 때 행복하다(권석만, 2008)고 하였다.

위의 주요이론을 통해 삶의 만족도 영향 요인이 청소년기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교생활적응(성경주·김재철, 2017; 조성희·박소영, 2015; 김신경 외, 2014), 학업성취(유경훈, 2013), 또래 애착(김현주, 2019; 오승아·유준호, 2017; 한영수·송원영, 2012), 교우 관계(이현정 외, 2018; 송현주·황순택, 2016) 등이 있다.

삶의 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중학교 시기에는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다가 고등학교시기에 다시 증가한다는 연구(정운화 외, 2018; 김현주, 2019)와 청소년 초기에 증가하다가 후기에 감소한다는 상반된 연구(김소영·윤기봉, 2016; 전현정·정혜원, 2016; 김진아, 2016; 이웅택 외, 2016), 학년이 올라갈수록 계속해서 높아진다는 연구(이혜주·정의현, 2018) 및 감소한다는 연구(김윤희·김현숙, 2016; 임종필, 2017), 일정한 흐름을 유지하다가 감소하고 다시 증가한다는 연구(이순성, 2010) 등 연구결과는 일관되지 않은 현상들을 보인다. 그런데도 시간이 경과 할수록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연구(최유선 외 2015; 김윤희·김현숙, 2016)를 살펴보면, 연령이 높아질수록 스스로에 대한 현실적인 판단과 사회적인 평가가 가능해지고(Stone & Lemanek, 1990) 또 사회적 책임을 갖게 되면서 연령에 따라 주관적 삶의 평가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Harter et al. 1986).

이상과 같은 이론을 바탕으로 본 우리나라 청소년의 행복지수와 삶의 만족도는 계속해서 낮게 나타나면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다수 등장하였다. 이를 살펴보면, 청소년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 중 개인적인 내적 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자아 탄력성, 우울, 스트레스(김영민·임영식, 2013; 전명순·김태균, 2018)가 있으며, 외적 요인으로는 대인관계와 또래 애착, 학습활동, 학교생활적응(김영민·임영식, 2013; 안선정 외, 2013; 김신경 외, 2014; 서영우, 2016) 있다고 보고하였다. 일반 청소년과 동일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외모나 언어 문제로 인해 사회적 차별과 편견 등의 경험하면서(금명자 외, 2006) 문

화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

서영우(2016)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내적 요인인 개인의 특성뿐만 아니라 다문화적인 배경으로 인한 환경적 요인까지 살펴 문화적응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삶의 만족도 주요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는 본 연구 결과에 따라 이들이 우리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부심을 느끼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정책지원 마련이 필요하다.

제4절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의 개념

자아존중감(Self-esteem)은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로, 스스로를 수용하고 존중하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주관적 신념을 포함한다(Rosenberg et al. 1979). Coopersmith et al.(1967)은 자아존중감이란 한 개인이 자신에 대해 형성하고 유지하는 감정, 평가, 가치, 태도라고 하였으며, 한 개인의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에게 행하는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기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아존중감이 낮다고 보았다. 자아존중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해결에 대한 확신과 신념을 의미하는 자기효능감이 높고(송승민 · 이유현, 2012), 성장과 발달과정에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도 높다(이하리 · 이영선, 2015). 또한,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내재화된 문제행동이 감소(오영경 · 이형실, 2010)할 뿐 아니라 자신의 삶에 대해 진취적이고 만족스러운 태도를 갖게 된다(Battle et al. 1978).

개인의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은 개인 정신건강의 중심이 되며,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핵심적인 역할수행을 하는 요인으로 개인의 삶에 필수적이며, 일상생활에서 적절히 필요한 경험(박경남·김정미, 2019)과 다양한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다는 능력에 대한 자신의 믿음(Braden et al. 1994)이라고 하였다. 자아존중감은 평생 발달하고 형성되며, 특히 청소년기는 자아에 대한 인식과 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자아존중감 발달에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모든 일에 합리적이며 활동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며 사회적 기술이 뛰어나 변화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실수를 인정하며 자신의 행동을 바꾸려는 태도를 보여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한다(김효선 외, 2012). 반면, 자아존중감이 낮은 청소년들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과 지속하려는 경향이 있어 또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며 성인기에도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Kohlberg, LaCrosse & Ricks, 1972). 이런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하고 작은 칭찬, 성취, 성공에서도 성장한다. 특히,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적·심리적·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사회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립해가는 시기라는 점에서 자아존중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하는 시기이다(Erikson et al. 1956). 안신호·박미영(2005)은 자아존중감은 개인의 성격 형성, 자아실현, 행복감, 일상생활에 매우 주요한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른 사람과 상호작용에 통해서 형성되고 청소년기에 발달하고 변화하는 개인의 정서, 인지행동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자아존중감의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백한숙(2010)의 연구는 긍정적 자아존중감은 성취동기가 높고, 환경의 요구에 잘 적응하며, 대인관계도 원만하게 유지하고, 자신을 가치 있게 생각하며,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 역시 신뢰할 수 있고, 자신의 삶을 행복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반면 부정적 자아존중감은 매사에 의욕이 없고, 환경의 요구에 잘 적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인관계를 불편하게 느

끼며,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으며, 정서가 불안정하여 타인을 잘 믿지 못하고 삶의 만족 또한, 느끼지 못한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자기 자신이 느끼는 긍정적인 감정과 부정적 감정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문두식·최은실(2015) 연구에서 자아존중감은 한 개인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하게 느끼고, 지각하며, 경험하는 것을 기초로 자신에 대한 신념과 타인이 자신에게 느끼는 신념과 태도를 활용하여 자신의 능력, 성공 가능성, 외모 중요성 등에 대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개념적이며, 판단하는 평가체계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은 발달과정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는 요인이지만(Cole et al. 2001), 개인의 경험에 따라서 그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Trzesniewskii et al. 2004). Kernis 등(2003)은 자아존중감을 안정성 차원과 자존감의 독립적인 차원으로 간주하고, 안정적 자존감과 불안정적 자존감으로 분류하였다. Kernis et al.(2003)에 따르면 불안정한 자존감은 외부의 평가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고 손상되기 쉬운데, 청소년기는 신체적 변화와 더불어 확장된 사회관계로 인해 외부의 사회적 평가에 더욱 예민해지며, 이는 자아존중감의 급격한 변화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들에서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고(Erol & Orth, 2011), 청소년기 내에서도 연령과 학교급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유창민, 2017; 정익중, 2007; 홍세희 외, 2006). Erol & Orth(2011)는 14세에서 30세까지 16년 동안 7,1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청소년기부터 초기 성인까지 자아존중감은 천천히 감소하는 경향이 있어 시간이 지날수록 자아존중감은 변화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추이를 분석한 박미정·유난숙(2017)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증가한다고 하였다. 반면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발달 추이 비교 연구한 박승민 등(2015)은 중학생이 고등학생 보다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 같은 청소년기 내에서도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진솔한 바와 같이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의 발달과정 상의 과업들을 수행하면서 전 생애 동안 지속해서 발달해 가는 요인이며,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 Coopersmith et al.(1968)은 사회적인 상호작용에서 중요한 타인과의 관계와 사회적 지지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신정이·황혜원(2008)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애정적 양육 태도와 지지는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며, 강상진·전민정(2006)은 또래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형성은 청소년기의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최미영(2013)은 부모의 거부와 통제 등의 부정적 양육 태도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2.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발달에도 자아존중감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선행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일반 청소년 같은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보고하였다(남윤주·이숙, 2009; 백지숙 외, 2014; 박은민, 2013; 김평화, 2019).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부모의 서로 다른 문화가 혼재된 가정교육과 학교 교육을 동시에 경험하면서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발달 과업과 더불어 다문화가정이라는 특수한 환경적인 어려움이 가중되어(송선진, 2007) 이중과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라 하였다.

선남이(2013)의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단지 다문화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중 문화로부터 오는 이러한 스트레스들이 다문화 청소년의 정체성 혼란으로 이어져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문화 적응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외국출신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의 결혼을 통해 구성된 다문화가정 환경은 이들의 가족 구성원들부터 태생적으로 문화적응 과정을 경험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의 가정 내에 존재하는 다른 두 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문화의 변용 현상을 겪으며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전수정·윤희미, 2013; 강유선, 2020). 이러한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이주여성이나 유학생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만을 주로 다루고 있어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다.

소수의 비주류문화 집단인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정 내외에서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무시한 한국 문화수용을 일방적으로 강요받거나 압력을 경험하게 되고, 이로 인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등의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김유미, 2011; 은선경, 2010; Dumais et al. 2002). 다문화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와 한국문화 간 갈등을 경험하며, 가정 내부에서는 부모의 권력 서열과 분위기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가지 문화를 공존하거나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에 압도되어 변 방화된 어머니 나라 문화로 생활하면서 성장해야 한다. 반면, 가정 외부에서는 온전히 한국 문화가 우세한 환경에 적응해야만 하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외모상 차이가 없다면 이러한 압박이 내부적으로 더 심할 수도 있고, 거꾸로 외모 차이가 있다면 이로 인한 차별을 최소화하기 위해 Berry(2005)의 구분처럼 동화의 압박을 받거나, 혹은 주변화로 소외될 수도 있다. 부모 어느 한쪽 문화에도 온전히 소속되지 않는다는 소외감은 사회관계가 확장될수록 더 심화되어(이소희·최운선, 2008; 전수정·윤희미, 2013) 자신의 정체성 혼란까지 경험할 수 있다(오성배, 2007). 특히 학령기에 접어드는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또래들과 다른 외모와 가정환경을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청소년들이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학업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또래 관계 형성 등의 과업과 맞물려 건강한 자아존중감 형성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김갑성, 2008; 서현석·김태균, 2020).

여성가족부(2018)의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 부적응 이유에 대한 설문 응답 중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해서’가 53.5%, ‘외모가 다르기 때문’이 10.3%나 된다는 결과는 또래 관계에 대한 고민과 다른 외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적지 않음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다문화 청소년과 자아존중감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홍진주(2004)의 연구는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나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된 문제와 가출, 학교 무단결석 등 외재적인 문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선화(2009)의 연구 또한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이중문화 환경에 대한 거부감은 스트레스와 부정적 사고로 이어져 건강한 자존감 형성을 방해하며(김숙정, 2013, 강유선, 2020), 극단적 공격성과 같은 문제행동을 나타낸다고 보고 하였다(박주희·남지숙, 2010). 노충래(2000)의 연구 또한, 전술한 연구들과 같은 결과들을 보고하면서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이중문화 환경은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발생하기 때문에 스트레스의 강도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제5절 학교생활적응

1. 학교생활적응의 개념

적응(adaptation)이란 ‘개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해가며 생존과 성장, 생산 등과 같은 여러 기능을 충족하기 위해 환경과 적합도를 맞추는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한다(Germain & Gitterman, 1980). Grove & Torbion(1985)은 적응이 사회적

적응과 인지적 적응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사회적 적응이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이 원하는 성취 결과를 성공적으로 이루어내는 능력이라면 인지적 적응은 개인이 처한 환경을 정확하게 인지하는 능력이라고 하였다.

김용래(2000)는 적응은 개인에게 주어진 환경에 단순하게 순응(Adoptation)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신의 욕구를 합리적으로 충족해나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적응의 개념은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공통으로 개인과 환경 간의 관계를 의미하며, 수동적으로 환경에 영향을 받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주어진 환경에 대한 개인의 대처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학교생활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정의를 살펴보면 학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적응의 개념을 활용하여 학교생활적응을 정의하는 경향이 있다(Missall et al. 2002). 즉, 학자들은 학교생활적응을 학교라는 환경에 대한 청소년의 적응이라는 관점에서 개념을 정의하였다. 김용래(2000)의 연구는 학교적응을 ‘학습자가 학교의 수업 과정에서 지적·심리인 성장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자들이 학교 내에서 접하게 되는 여러 교육적인 여건들을 자신의 욕구에 맞게 변화하거나 학습자가 학교에서 이러한 모든 여건을 받아들여 수용하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하였다.

전푸르나(2010)의 연구는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것은 교사, 또래 등 의미 있는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고,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를 통해 학업에 흥미를 느끼며, 학교 규범을 바르게 준수하는 등 역할수행을 해가는 과정이라고 정의였다. 이처럼 학교생활적응은 또래나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어진 학교 수업과 학교 규범을 준수하며, 열악한 주변 환경들을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한편, 선행연구들은 학교생활적응을 하위 구성개념을 통해 정의하기도 하였다. 학교생활 적응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 또한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며 학업과

같이 학교에서 하는 활동에 대한 적응 측면, 교사나 또래 집단과의 관계적 측면, 학교 규율과 같은 규범적 적응 측면 등과 같이 여러 측면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곽수란, 2006; 백소영 외, 2018; Bierman, 1994). 강윤아·신택수(2018)는 학교생활적응은 단일차원의 개념이 아니라 추상적이며 여러 가지 차원이 복합적이고 광범위하게 포함되어 있다고 하였다.

Bierman et al.(1994)은 학교생활적응을 학업에 대한 적응, 청소년의 관심 영역이나 욕구충족에 대한 행동방식 등과 같은 자기통제와 관련된 행동적인 적응, 그리고 의사소통과 같은 사회적인 기술이나 또래 집단과의 규범과 관련된 사회·정서적 적응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신정희(2010)는 교사와 교우와의 원만한 관계, 학습활동의 성실성, 규칙 준수 및 학교행사 참여를 학교생활적응의 구성개념으로 정의하였고 강윤아·신택수(2018)는 학습활동 구성요소만으로 학교생활적응 개념을 구분하였다. 이처럼, 청소년에게 있어 학교는 중요한 환경 중 하나이며, 단지 교과목 학습을 통해 인지 발달을 돕는 역할수행 장소일 뿐만 아니라 또래나 교사들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장소로도 기능해 왔다. 이를 통해 청소년기의 학교생활적응은 학교에서 요구되는 필수적인 발달과업을 잘 성취해 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성공적인 사회적응을 예측할 수 있는 척도로(김지은 외, 2017; 안수빈 외, 2017; 박정희·장영애, 2008; 황진, 2017)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학교는 청소년들이 사회를 미리 경험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장소이며, 학교에서의 경험은 청소년이 성장하여 사회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 형성과 더불어 습득한 지식을 활용하여 경제 활동을 수행하는데 내재한 중요한 능력이 될 것이다.

2.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다문화 청소년들에게 학교는 학습하는 장소로서 기능함과 동시에 주류 사회의 문화를 처음 접하게 되는 일차적인 공간이며, 또래 관계와 학습활동, 학교 규칙 등을 배우며 주류문화를 학습하는 장소이다(Trickett & Birman, 2005).

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청소년으로 전환하는 시기로 신체적,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학교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 환경의 변화까지 겹치게 되면서 학교생활적응이 다른 시기에 비해 더 많은 어려움으로 작용하게 된다(유순화, 2008). 다문화 청소년 또한 일반 청소년이 경험하는 발달과업에 다문화라는 특성이 더해져 학교생활적응을 더 힘들게 경험함에 따라 이들에게 있어서 학교생활적응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라는 이유로 일상적인 생활에서도 일반적인 청소년들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하게 된다(Thomas & Choi, 2006). 이들은 외모나 국적, 가정에서 사용되는 언어나 문화 등에서 일반적인 청소년들과는 다른 경험으로 정체성의 혼란(윤지영·허은정, 2017; 이희정, 2018; 전종미, 2011; 조영달, 2006)과 이로 인한 사회적인 위축감, 우울(홍나미·박현정, 2017; 한상철, 2012; 차한솔, 2020)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 또한,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에 비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추가적인 요인으로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가정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언어발달이 늦어지고 의사소통에 많은 제약을 받기도 하며(문영희·안은미, 2010; 전수정·윤혜미, 2013), 이러한 환경이 학습 부진으로 이어져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손한결, 2020; 김종백·탁현주, 2011; 은선경, 2010).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에게 학교는 또래나 교사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학습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학습은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능동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학습 동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김희경(2011)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학습

동기가 분명하고 명확할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았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언어와 문화의 이질성으로 인해 학교 수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초등학교부터 누적된 학습 동기의 저하가 높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의사소통 능력과 직결되는 언어 능력이나 사회적 유능 감, 사회적 위축 정도와 같은 사회적인 기술이나 학습능력이 학교생활적응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박순희 등(2008)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이 높을수록 학업 수행의 수준이 높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보고하였다. 이영예·안 권(2013)은 학교생활적응이 단순히 지적기능 발달이나 지식의 습득에 대한 적응이라기보다는, 학교생활에서 학교 규칙을 수용하고 학교 수업을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교사나 또래와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로 원활하게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렇듯 비(非) 다문화 청소년과 달리 다문화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인들이 학교생활적응을 포함한 심리적, 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선행연구를 통해 증명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을 일반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비교한 연구를 살펴보면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다문화 청소년이 일반가정의 청소년들보다 학교생활적응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한다는 연구(박희훈·오성배, 2014; 황선영·고재욱, 2013)도 있고, 다른 연구에서는 일반가정의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적응을 오히려 더 잘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의 연관성 확인을 위해 선행연구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과정이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짐에 따라 그로 인한 적응의 결과 또한 다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본 연구는 다음 <표 2-4>와 같이 이들의 영향력을 종단분석으로 밝히고자 한다.

<표 2-4>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자	대상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고
박희훈·이유정 (2019)	중학생	· 모 한국어 능력, 희망 교육 수준, 자존감, 사회적 자본(부가 지각하는 자녀와 관계 수준, 모가 지각하는 자녀와 관계 수준,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와 관계 만족도, 부모와 대화 빈도, 관심 수준), 다문화 정체성 인식	
윤지영, 허은정. (2017)	초·중학생	· 부모 효능감, 자아존중감 종단분석	
설진배(2018)	초·중학생	· 사회적지지(독립), 다문화 수용성(매개효과)	
은선민, 이수현 이강이(2019)	초·중학생	· 문화적응스트레스 종단분석	
장유진(2019)	중학생	· 사회적 지지	
임선아(2018)	초·중학생	· 떠돌림, 자아 탄력성, 학교 내·외 도움을 주는 어른	
이중찬(2019)	초·중학생	· 대학생 부모와의 관계 만족도	
한혜령·김현숙 (2010)	중학생	· 외모 만족도, 외모 의식성	
서보준(2017)	초등학생	· 부모 양육 태도(애정:적대, 자율:통제, 합리:비합리), 자아 탄력성	
박용환·이신동 (2017)	초·중학생	· 성별, 성취 목표, 자아 개념, 자아탄력성, 가족 건강성, 부모지지, 친구지지, 교사지지, 지역사회지지, 모-자녀소통, 가구소득	
이형하(2017)	초·중학생 대학생	· 보호요인: 부모관계, 자아존중감, 한국어 능력, 국적취득 위험요인 : 차별 경험, 학교폭력, 우울	
홍나미·박현정 (2017)	중학생	· 부모의 방임적 양육 태도, 사회적 위축, 우울	
이희정(2018)	초·중학생	· 국가정체성, 이중문화 수용태도	
박동진(2019)	중학생	· 문화적응스트레스	

연구자	대상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비고
오정아(2019)	초·중·고등학생	· 위험요인(문화적응스트레스, 차별 스트레스, 우울, 불안, 비행), 보호 요인(자아존중감, 자아 정체성, 자기효능감, 자아 탄력성)	
이덕희(2016)	중·고등학생	· 스트레스 대처 방식, 사회적 지원, 자아존중감, 스트레스	
장혜림,이래혁(2019)	중학생	· 부모의 지지, 자아존중감	
최경란,홍지영(2018)	초·중학생	· 문화적응스트레스, 부모 애착	
심미영,이들녀 박종옥(2013)	초등학생	· 이중언어 적응, 이중문화적응, 사회적지지	
심미영,이들녀(2016)	초등학생	· 스트레스, 사회적 유능성, 스트레스 대처유형	
김지혜(2019)	중학생	· 문화적응 스트레스, 우울, 자아존중감	

출처: 차한솔(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p 39.

제6절 주요변수들의 관계

1.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변수로서, 개인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삶의 만족을 저하시킨다(Barnes & Lightsey, 2005). Jackson et al.(1996)은 다문화가족을 포함한 민족·인종적 소수자들의 차별인지 경험은 삶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를 저해할 수 있다.

Berry(1998)는 문화적응 과정에서 오는 스트레스 원인을 문화적응스트레스

라고 하였고,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우울 및 불안 등의 부정적 정신건강, 소외감과 주변화의 느낌, 정체성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보았다(신민자, 2005; 강유선, 2020).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서투른 언어 문제, 사회적·경제적 어려움, 차별로 인한 소외감 등으로 보고하였다(Hovey & Magana, 2000). 이중 사회적 차별은 다문화 청소년에게 한국 사회에 대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중하고, 이러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Berry & Kim(1988)은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의 특성이나 사회의 조건, 관계 안에서 악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다시 말해, 성이나 연령, 직업, 교육 정도, 결혼상태, 이주 과정에서의 경험, 거주기간, 이주 후의 요인들, 문화적응의 유형이나 사회가 이들을 수용하는 태도와 특성, 이주자들이 가지고 있는 태도나 대처 능력 등이 문화적응스트레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Liebkind & Jasinskaja-Lahti, 2000).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를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조기유학 청소년 대상으로 한 이수연(2009)의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우울과 불안 등 내재화된 문제의 심각성이 높게 나타났으며,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높을수록 지각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민주·윤기봉(2018)의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사회적 지지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외국인 근로자 등 새로운 문화로 이주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Jasinskaja et al.(2006)의 연구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주 노동자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김보미(2007)는 외국 부모 나라 문화와 주류문화를 동시에 접촉하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문화 청소년 연구(이지연·그레이스 정, 2016; Barnes & Lightsey Jr, 2005)에서도 이들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를 낮추게 한

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개인 삶의 만족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하는 추론이 가능하다. 이처럼, 문화적응 유형이 통합(Integration)유형이 아닐 경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주류사회가 다문화가족에게 요구하는 가장 강력한 문화적응 유형인 동화(Assimilation)를 요구받는다면 소수집단인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의 이중문화적 정체성을 포기하거나 적어도 공공영역에서는 숨기려 할 것이며(이희정, 2018), 이러한 부담은 사회적 위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선주민 가정 청소년에 비해 생활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며, 일상적인 생활의 문제해결 과정에서 정보 획득에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쉽다는 사실들이 종합적으로 작용되어 삶의 만족을 감소시킬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로 인해 사회적 위축을 경험하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도움이 필요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타인의 반응적 기대 행동에 대해 무감각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회피하면서 스스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 쉽다(모상현, 2018). 이러한 문제가 장기화할수록 결국 개인의 삶의 만족 수준은 떨어지게 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상태에서 이들과의 인과관계를 확정적으로 논의하기는 어렵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의 심리사회 영역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삶의 만족도를 위협하는 요소라 할 수 있다.

2.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에 주요한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감은 스스로에 대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하는 정도를 의미한다(Rosenberg et. al. 1979). 전반적으로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많이 활용

되고 있는 개인적인 특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자아존중감이다.

이와 유사하게 자아존중감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으로도 설명되고 있다(정득·이종석, 2015).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재적인 특성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 자아 정체감 등 자아 요인(한성희, 2015; 송정화, 2011; 이상록 외, 2015; 이순성, 2010), 삶에 대한 통제력(김혜원 외, 2007), 목표 지향성(송정화, 2011), 심리적 요인(김신영 외, 2008; 이상록 외, 2015; 김서정, 2019) 등이 이에 속한다. 이 중에서도 자아존중감은 청소년 삶의 만족도 또는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이며, 삶의 만족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검증하고 있는 국내 연구들은 자아존중감 자체가 자기 가치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김소영·윤기봉, 2016; 김지혜, 2012; 전해진·유미숙, 2015; 장유선, 2020; 김평화, 2019). 또한 한아름(2018)의 연구에서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으로 자아존중감을 선정하였다.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관계를 연구한 김소영·윤기봉(2016)의 연구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를 높게 느끼고, 자아존중감이 낮아질수록 삶의 만족도 또한 낮아지는 것은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감소 폭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를 검증한 석말숙·구용근(2015)의 연구는 가족 요인 중에서 부모의 지지가 직접적으로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자아존중감은 부분 매개한다고 하였다.

류지영·김미진(2019)의 연구에서는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관계를 영재, 일반 영재, 일반 학생으로 비교 분석한 결과,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에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소외계층의 영재들이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가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밝혔다. 이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가 더 높고,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영향이 더 크게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기 인식과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관계를 살펴본 Ullman & Tatar(2001)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으로 자아를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전반적 삶의 만족도와 관련해서도 자아존중감은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다.

3.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청소년기는 아동기의 가족 중심적 관계를 벗어나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고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접촉이 이루어지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청소년에게 학교는 의미 있는 장소이며, 학교 환경에서 또래나 교사 등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역할수행을 하는 것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결정짓고, 이후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기의 삶에 만족을 논의할 때 학교생활적응은 중요한 변인으로 고려되고 있다. Negru & Baban(2009)의 연구에 따르면, 학교생활적응은 학업 성취도와 더불어 학교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고, 학교에서 유발되는 스트레스를 줄이게 한다고 하였다. 민하영·권기남(2004)은 학교생활에 긍정적인 태도로 임하고 학교 환경에 적응을 잘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얻어 바람직한 사회·정서적 행동을 보이고 삶에 대해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손보영 외(2012)는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고 학교에서 맺는 또래와의 관계가 방과 후 활동에도 연장된다는 점에서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이 이들의 삶의 만족으로 확장되어 이어진다고 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안선정 외, 2013)에서도 삶의 만족도와 학교생활적응 간에는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일반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비교한 연구(최성보 외, 2011)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 중 교사 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은 일반 청소년보다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박희훈·오성배, 2014) 학년이 올라가면서 학교적응의 어려움으로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도 증가한다(류방란 외, 2012)고 하였다.

여성가족부(2018)의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의 학업 중단율은 초등 0.87%, 중등 1.34%, 고등 1.97%로 전체 학생 학업 중단율(초등 0.66%, 중등 0.73%, 고등 1.62%)보다 높게 나타났고, 학교생활 적응을 못 하는 학생들은 학교 공부가 더 어렵다(63.3%)거나, 또래와 잘 어울리지 못해서(53.5%)로 나타나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학업성과 또래 관계에 대한 고민이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이 청소년기 심리·사회적 적응을 보여주는 주요한 지표이자(강유진·문재우, 2005; 유안진·이점숙·서주현, 2004; 최윤정, 2019; 강유선, 2020) 추후의 적응을 지속해서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점(Wentzel et al. 2003), 그리고 이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문화적응스트레스 발달의 결과로서 탐색할 근거가 충분하다고 본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김민형(2016)의 연구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정서 문제, 공동체 의식, 자기 통제력과 긍정적인 부모 양육 태도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와의 관계에서 매개 효과가 있음이 검증되었고, 김은혜 외(2019)의 연구에서도 다문화 청소년이 인식한 가족 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학교생활적응이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학교생활적응은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를 예측해볼 수 있고, 나아가 원만한 학교생활적응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완화시켜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예측해 볼 수 있다.

4. 선행연구의 평가

지금까지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의 상호 영향에 관한 이론적 관점 및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청소년기라는 발달단계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심리적 어려움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이중고를 경험하고, 한국인 아버지와 외국출신 어머니의 가정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적응 과정을 겪으면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또한, 이들은 성장하면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전수정·윤희미, 2013). 이러한 경험은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일반 청소년들보다 낮은 자존감, 우울, 불안 등의 심리적 부적응의 문제가 높다는 연구가(강유선, 2020; 배은경·강화, 2018; 서진희, 2012) 있는 반면에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다문화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간의 비교 연구에서는 두 집단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학교생활적응이 높다고 보고된 연구도 있다(이지애, 2008; 손한결, 2020). 하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아정체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한성희, 2015; 신혜정, 2007; 이소희·이선희, 2013), 불안과 우울, 사회적 위축 등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연구들도 있다(모상현, 2018; 노충래 외, 2018; 김은경, 2016; 우희정, 2015).

김순규(2012)의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이 가정 내·외에서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차별적인 경험이 이들의 우울감과 불안지수를 높이며 이로 인해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면서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적 특성으로 또래 관계에서 느끼는 차별과 같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감정을 억압하고 해결하는 과업을 수행하면서 우울감을 느끼고 있다는 연구(Wei, heppner, mallen, ku, liao, & Wu, 2007)와 차별적인 경험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높게 하고 우울로 이어졌다는 연구(Fisher, Wallace,

& Fenton, 2000)가 있다. 이는 차별의 경험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높이고 이는 삶의 만족도를 낮게 하는 위험요인임을 알 수 있다. 전수정·윤혜미(2013)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이 낮아진다고 하였고, 은선경(2010)은 이질적 문화가 공존하는 환경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낮추고, 이는 자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갖게 한다고 하였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중학교 진학 이후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이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다(양계민 외, 2017; 김평화, 2019).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를 살펴본 김민주·윤기봉(2018)의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매개 변인으로 선정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 연구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았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으면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높아진다고 밝혔다.

이상의 선행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중요한 변인이고, 각 변인은 상호 연관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횡단적인 수준에서 예측한 변인으로 사용되어 종단적인 수준의 예측 변인이 될 때는 다른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의 변인들은 종단연구를 통해 종합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아직은 미흡한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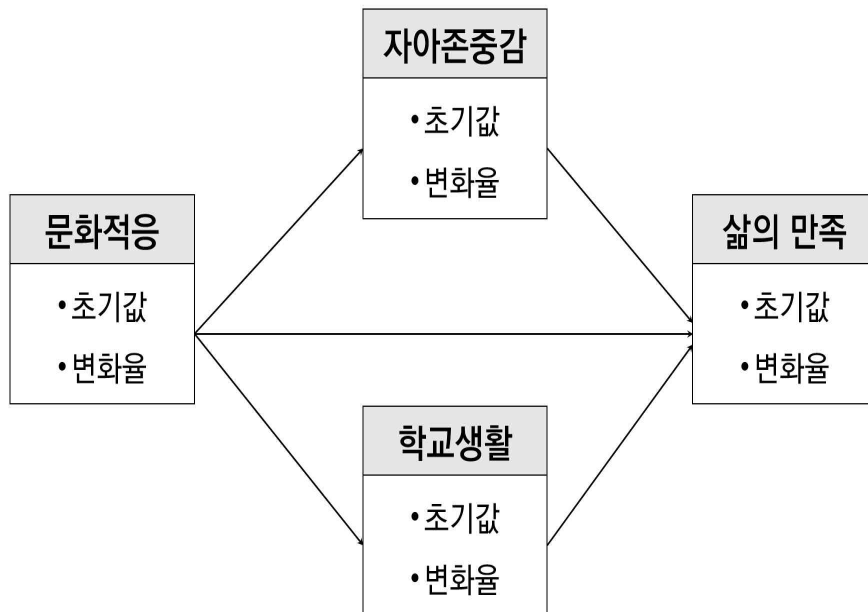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선행연구의 고찰을 토대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밝혀 이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가 삶의 만족도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3장 연구 설계

제1절 연구모형과 연구가설

1. 연구모형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변인들의 변화과정을 여러 시점에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살펴보기 위한 종단연구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을 종단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모형은 <그림 3-1>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3-1> 연구모형

2. 연구가설

다변량 잠재성장 연구모형을 근거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한다.

연구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 적응의 종단적 성장변화는 어떠한가?

가설 1.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에 개인 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1-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 차이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2-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2-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3.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3-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3-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가설 1.4.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에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1.4-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1.4-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개인차가 존재할 것이다.

연구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각자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1-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1-2.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1-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가설 2.2.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2-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2-2.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2-3.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가설 2.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3-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3-2.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3-3.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가설 2.4.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4-1.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4-2.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4-3.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가설 2.5.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5-1.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5-2.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2.5-3.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연구문제 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 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설 3.1.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1-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1-2.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1-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1-4.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2-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2-2.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2-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 3.2-4.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제2절 연구대상 및 분석자료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 확인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2011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다문화 청소년과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패널이 구축되었으며, 동일한 대상을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2018년까지 총 8회에 걸쳐 조사 진행한 자료이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자료는 다양한 유형의 다문화 배경 청소년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모집단 분포에서 보면 국제 결혼가정 자녀가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는 2011년 초등학교 4학년 자녀가 있는 다문화가정 1,625가구를 대상으로 수집되었고, 2012년에는 1,490가구, 2013년에는 1,433가구, 2014년에는 1,371가구, 2015년에는 1,388가구, 2016년에는 1,322가구, 2017년에는 1,251가구, 2018년에는 1,188가구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2018년까지 조사에 성공한 표본은 1,188명으로 원 표본 유지율은 73.1%이다. 한국의 다문화 인구 특성상 표본의 대부분이 국제결혼가정으로 구성되어 전문조사원의 면접에 의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학부모에게는 한국어를 포함한 총 9개 외국어로 번역된 설문지가 제공되었고,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한국어 설문지가 제공되었다. 이상의 자료는 다음 <표 3-1>로 제시한다.

<표 3-1> 다문화 청소년 현황 차수 및 지역별 원표본 유지율

구분	2011년 (1차)	2012년 (2차)		2013년 (3차)		2014년 (4차)		2015년 (5차)		2016년 (6차)		2017년 (7차)		2018년 (8차)	
	원표본 (가수)	조사 표본 (가수)	원표본 유지율 (%)	조사 표본 (가수)	원표본 유지율 (%)	조사 표본 (가수)	원표본 유지율 (%)	조사 표본 (가수)	원표본 유지율 (%)	조사 표본 (가수)	원표본 유지율 (%)	조사 표본 (가수)	원표본 유지율 (%)	조사 표본 (가수)	원표본 유지율 (%)
서울	179	154	86.0	146	81.6	142	79.3	139	77.7	137	76.5	126	70.4	114	63.7
부산	74	70	94.6	64	86.5	61	82.4	58	78.4	56	75.7	51	60.9	52	70.3
대구	42	37	88.1	35	83.3	32	76.2	31	73.8	30	71.4	27	64.3	26	61.9
인천	67	60	89.6	57	85.1	55	82.1	51	76.1	50	74.6	50	70.6	46	68.7
광주	42	34	81.0	31	73.8	29	69.0	27	64.3	26	61.9	26	61.9	26	61.9
대전	24	20	83.3	18	75.0	16	66.7	16	66.7	16	66.7	11	45.8	11	45.8
울산	31	29	93.5	29	93.5	27	87.1	27	87.1	25	80.6	24	77.4	23	74.2
경기	383	347	90.6	330	86.2	304	79.4	292	76.2	292	76.2	274	71.5	254	66.3
강원	90	85	94.4	83	92.2	82	91.1	81	90.0	81	90.0	82	91.1	80	88.9
충북	74	64	86.5	60	81.1	59	79.7	59	79.7	59	79.7	57	77.0	53	71.6
충남	117	112	95.7	111	94.9	107	91.5	106	90.6	105	89.7	99	84.6	95	81.2
전북	108	102	94.4	99	91.7	99	91.7	99	91.7	99	91.7	93	86.1	90	83.3
전남	160	152	95.0	152	95.0	148	92.5	148	92.5	144	90.0	142	88.8	137	85.6
경북	101	99	98.0	98	97.0	95	94.1	95	94.1	95	94.1	89	88.1	86	85.1
경남	118	113	95.8	110	93.2	105	89.0	100	84.7	99	83.9	94	79.7	90	76.3
제주	15	12	8.0	10	66.7	10	66.7	9	60.0	8	53.3	6	40.4	5	33.3
합계	1,625	1,490	91.7	1,433	88.2	1,371	84.4	1,338	82.3	1,322	81.4	1,251	77.0	1,188	73.1

출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데이터 설명 자료집.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4차 년도(중학교 1학년), 5차 년도(중학교 2학년), 6차 년도(중학교 3학년) 자료를 사용하였다. 4차부터 6차까지 모두 조사에 응한 청소년은 1,143명으로 여자는 578명(50.6%), 남자는 565명(49.4%)으로 나타나 전체 성비는 거의 1:1에 근접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잠재변인을 구성한 개별 관측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 4차 년도 시점을 초기인 1차 시점으로 설정하여 6차 년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자료 중 ‘잘 모르겠다’와 ‘응답 거부’로 코딩된 음수(-9, -999) 값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자료인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는 4차 년도, 5차 년도, 6차 년도 자료를 사용하므로 4차 년도를 1차 측정 시점으로 사용하였다. 혼동을 줄이기 위하여 연구에 사용된 각 년도별 자료를 1차 시점(4차 년도 자료, 중학교 1학년), 2차 시점(5차 년도 자료, 중학교 2학년), 3차 시점(6차 년도 자료, 중학교 3학년)으로 재명명하고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을 적용하여 종단 연구를 실시하였다.

제3절 측정도구

1. 문화적응스트레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Hovey & King의 The SAFE(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 Environmental acculturative stress) 척도를 수정한 연구(홍진주, 2004) 척도로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이러한 척도는 사회·가족·환경적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측정할 10문항으로 구성하고 본 연구에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신뢰도가 낮은 1문항을 제외하고 9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배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점수가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세한 문항 내용과 1차 시점부터 3차 시점까지 각 시점별 신뢰도는 <표 3-2>와 같이 제시한다.

<표 3-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조사항목과 신뢰도

조사항목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
문화적응 스트레스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를 가지고 농담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721	.736	.744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주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무시를 당한다.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리 동네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못살게 군다.			
	한국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못살게 군다.			

2. 삶의 만족도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척도는 김신영 외(2006)의 연구에 사용되었던 척도를 수정·보완하여 이경상 외(2011) 연구의 척도로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이 척도는 총 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별 리커트식 4점 배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 내용과 1차 시점부터 3차 시점까지 각 시점별 신뢰도는 <표 3-3>과 같다.

<표 3-3> 다문화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조사항목과 신뢰도

조사항목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
삶의 만족도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721	.736	.744
	나는 걱정이 별로 없다.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 생각한다.			

3.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 척도는 Coopersmith et al. (1967)이 개발하여 오진영(1981)이 번안하고, 박난숙·오경자(1992)의 연구에서 재사용한 자아개념 검사 16개 문항 중에 자아존중감과 관련한 4개 문항만 측정되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0). 해당 자아개념 척도는 총 48문항으로 자아수용, 자아존중감, 자아신뢰 등 세 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다문화 청소년 패널 실제 조사에서는 예비조사의 설문 문항 분석 및 결과를 바탕으로 자아존중감 영역의 16개 문항을 4문항으로 간소화하여 진행되었다(양계민 외, 2012).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배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이렇게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배점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문항 내용과 1차 시점부터 3차 시점까지 각 시점별 신뢰도는 <표 3-4>와 같이 제시한다.

<표 3-4>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조사항목과 신뢰도

조사항목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
자아 존중감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롭다.	.818	.806	.819
	나는 내 자신을 소중히 생각한다.			
	나는 우리 학급 임원(반장 등)이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한다.			
	나는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4.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것을 수정·보완을 거친 김지경(2010)의 학교적응 중 학습활동 5문항을 사용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자료로 측정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 수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도를 질문한 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식 4점 배점 척도(4: 매우 그렇다, 3: 그저 그렇다, 2: 그렇지 않다, 1: 전혀 그렇지 않다)로 응답이 이루어졌으며, 배점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이 학교생활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세한 문항 내용과 1차 시점부터 3차 시점까지 각 시점별 신뢰도는 다음 <표 3-5>와 같이 제시한다.

<표 3-5>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조사항목과 신뢰도

조사항목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
학교생활 적응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재미있다.	.762	.772	.760
	나는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는다.			
	나는 수업시간 마다 배운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나는 모르는 것이 있는 경우 주위 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할 때가 있다.			

제4절 분석 방법

1. 잠재성장모형 접근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양상을 확인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종단적 관계를 살펴보고자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하여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잠재성장모형은(Latent growth model) 구조방정식을 사용하여 종단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이며, 각각의 변인들을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양상을 다룬 모형이다. 횡단자료와 달리 종단자료를 활용하는 잠재성장모형은 관찰 시점 평균값 외에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평균값의 변화하는 정도를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변인의 변화하는 형태나 변인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할 수 있으며, 개인차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을 파악할 수 있는 유용한 모델이다(김주환 · 김민규 · 홍세희, 2009; Duncan & Duncan, 2004). 이러한 잠재성장모형은 변수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무 변화모형이나 선형변화모형의 형태, 비선형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된 자료가 필요하다.

첫 번째로 적어도 세 번 이상 측정된 연속 변수가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측정된 자료는 동일한 단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Kline et al. 2005). 이는 변수의 측정 시점이 달라도 동일한 방식으로 측정이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가. 잠재성장모형의 단계 및 구성

잠재성장모형(Latent Growth Model)은 관찰 시점에서 평균값(절편)과 시간 경과에 따라 평균값이 변화하는 정도(기울기)를 함께 파악할 수 있다. 이때 기울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을 의미하고 절편은 기준시점의 측정치를 보여주는 초기값이다. 이런 잠재성장모형은 개인 차이의 유의미한 정도와 개인 차이에 대한 직접·간접적 영향 요인과 각각 잠재변수 간의 변화 관계를(Duncan et al. 1999)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잠재성장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종단변화를 분석하는 개인 내 모형 1수준과 개인 간 모형 2수준으로 구성하여 개인과 집단의 발달궤적을 알 수 있는 모형이다(Curran et al. 2000). 개인 내 성장모형과 개인 간 차이 모형은 단일 차원성, 공통 척도성의 기본 가정이 충족되어야(이기중, 2012) 하며, 개인 내와 개인 간의 변화를 모델링한 두 가지 잠재변인은 상호 상관관계로 설정된다(문수백, 2009). 그 이유는 초기의 측정값이 이후의 값을 예측하기 때문이다. 개인 내 1수준 모형은 변화함수가 선형인 경우로 (식1)과 같다.

$$Z_{ij} = B_i + T_i K_j + E_{ij} \dots\dots\dots (식1)$$

Z_{ij} 는 시간에서의 개인 점수, B_i 는 개인의 초기 상태(절편), T_i 는 개인의 변화율(기울기), K_j 는 측정시간, E_{ij} 는 모형 오차를 보여준다. 동일한 시간 간격으로 4회 측정한 경우 K_j 는 0, 1, 2, 3로 표현되고 선형모형의 개인 변화 값은 시간에 비례하는 변화 값과 오차가 합해진 값이다(김주환 외, 2009). 개인 간 2수준 모형은 변화함수가 선형인 경우로 (식2)와 같이 제시한다.

$$B_i = B + U_{Bj}, \quad T_i = T + U_{Ti} \dots\dots\dots (식2)$$

B 는 초기값 집단평균, T 는 변화율 집단평균, U 는 초기값과 변화율이 개인과 집단평균에서 벗어난 정도를 표현한다(김주환 외, 2009). 이와 같이 1수준 모형, 2수준 모형은 전체 집단의 변화함수와 각 개인의 변화함수로 추정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인과 전체 집단의 발달궤적이 도출되며(Curran et al. 2000), 평균 잠재 성장모형 각 계수의 변량은 개인차를(Duncan, 1999; 김계수, 2009) 나타낸다.

Meredith & Tisak (1990)의 연구로 도입된 잠재성장모형은 통계기법이며 3번 이상 반복해서 측정한 종단자료를 활용해 분석하는 기법으로 관찰 시점 변수 평균값인 절편과 시간의 경과에 따른 평균값 변화 정도인 기울기를 잠재변수로 설정해서 각 요인의 평균과 요인 간의 경로계수를 추정할 수 있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을 확정한 후 다수의 잠재성장 모형들로 구성된 변수 간의 관련 성과 변화를 검증한다(Mac Callum, 1997).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둘 이상 반복 측정된 변수가 규칙적인 변화를 보일 때 잠재성장요인 간 관계 탐색도(Walsh et al. 2011) 가능하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김주환 외, 2009)은 독립변수 절편이 종속변수 절편, 기울기에 영향을 주며, 독립변수 기울기는 종속변수의 기울기에 영향을 주는 경로들로 구성되어 있다.

나. 잠재성장 모형의 변화 형태

잠재성장모형은 횡단자료를 사용한 구조방정식 모형과는 달리 변수의 초기 값과 변화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때 변화 형태는 변수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지 않는다는 무변화 모형과 선형변화 모형을 들 수 있다.

(1) 무변화 모형

무변화 모형의 경우에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수가 변화하지 않는다고 가정 하는 모형이다. 따라서 변수의 초기값이 시간이 흘러도 그대로 유지되며, 초기값의 평균과 분산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때 요인계수 값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가 없기 때문에 1만 갖게 된다(김주환 외, 2009). 본 연구에서는 3개 시점에 대한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들의 무 변화모형 계수는 1, 1, 1로 지정 하였다.

(2) 선형변화 모형

선형변화 모형은 일차 함수모형으로 일관성 있게 선형으로 변화하는 모형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유로운 기울기를 가정하는 자유 모수모형을 들 수 있다. 선형 변화모형은 일관성 있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런 경우 요인계수 첫 측정 시점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에 0으로 설정하고, 이후 0, 1, 2나 0, 0.25, 0.5 등으로 일정하게 증가하는 숫자를 설정할 수 있다. 반면에 자유 모수모형은 무변화 모형과 유사하게 초기값 1개 요인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기울기가 자유롭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는 모형이다. 자유 모수모형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수의 변화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요인계수를 숫자 대신 *이나 a 등과 같은 기호나 문자를 입력하여 자유롭게 변화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김계수, 2017). 이 모형은 실제 변화모형과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다변량 잠재성장모형(Multivariate Latent Growth Model)은 변수가 여러 개인 잠재성장모형을 의미한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은 여러 개의 변수를 설정하여 변수와 변수 간의 관련성을 검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변수의 변화에 따른 관련성 검증도 가능하다(김주환 외, 2009).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변수들의 변화와 변수 간의 구조적인 관계를 파악해보고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자료처리 방법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고자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과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으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정하고 변수들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 첨도 확인하였다. 이를 Cronbach's α 를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상관분석으로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둘째,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의 선형변화 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확인 후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결정하였고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으며, 잠재변인 간의 관계 확인을 위해서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이하 FIML)을 사용하여(Muthén, Kaplan & Hollis, 1987) 분석하였다. 또한, 모형 평가 방법으로 카이제곱 차이 검증(χ^2)과 적합도 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카이제곱 차이 검증(χ^2)은 표본의 수에 민감하였고 영가설이 엄격해서 쉽게 가설이 기각된다는 단점(홍세희, 2000)이 있으며, 본 연구는 적합도 지수를 이용해 모형평가를 실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로는 CFI, TLI, RMSEA를 사용하며, 보통은 CFI >.90, TLI>.90 일 때 상당히 좋은 적합도(Tucker & Lewis, 1973; Bentler et al. 1990), RMSEA.<.05일 때 상당히 좋은 적합도, RMSEA<.08일 때 아주 괜찮은 적합도, RMSEA <1.0일 때 보통의 적합도, RMSEA >.10일 때 조금 나쁜 (Browne & Cudeck, 1993) 적합도이다. 또한, 적합도 지수를 CFI >.90과 TLI >.90 및 RMSEA <.08을 기준으로 정하고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셋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구성하고 변수 간의 관계와 변화를 검증하였다.

넷째, 매개변수 유의성 확인을 위해 붓스트랩을 사용하여 잠재성장모형 간 접효과 검증을 실시하고 결론을 도출하였다.

다섯째, 변수 간의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를 통해 매개 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 변수의 결측치 확인

결측 자료(Missing Data)는 AMOS를 통해 분석할 경우 입력 자료의 행렬 계산이나 추정분석 등 모든 과정에서 장애 요인이 발생함으로 반드시 결측치를 정리 후 분석하여야 한다(배병렬, 2011). 결측치는 특정 변수에 대해 10%까지 누락 되어도 문제는 없으나 결측치 정리 여부는 분석결과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결측치의 유형과 비율, 결측치 여부를(Cohen & Cohen, 1983) 고려하여야 한다. 결측치가 있는 경우 FIML 방식은 MAR(무선 결측)의 가정이 엄격히 충족하지 않더라도 편향되지 않는 추정치를 나타냄에 따라 본 연구는 선택된 변수들과 관련된 질문 문항에 모두 응답한 다문화 청소년 1143명(여자 578명, 남자는 565명)을 대상으로 FIML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변수의 정규성 확인

잠재성장모형은 연속 변수에 대한 정규분포를 가정하며, 비 정규성은 왜도, 첨도의 일변량 정규성과 다변량 정규성 두 가지로 나타난다. 왜도는 자료 대칭성의 정도를 나타내고, 첨도는 정규분포 곡선에 대한 상대적 점수 비율을 나타낸다. 본 연구는 각 시점별 측정변수의 정규성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확인하고,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왜도(절대값 2 미만) 값과 첨도(절대값 4 미만) 값으로 정규분포(Hong, Malik & Lee, 2003) 조건을 충족하였다. 이러한 정규성은 각 변수별 기술통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

3. 분석 절차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연구모형을 분석하였다.

첫째,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인 특성 확인을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수들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 최소값과 최대값 그리고 변수들의 왜도와 첨도까지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의 변화 형태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셋째,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변수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가 미치는 영향을 종단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 프로그램은 SPSS 23.0과 AMOS 23.0의 통계를 사용하였다.

제4장 실증분석

제1절 연구대상의 특성

1. 연구자료의 특성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연구로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사용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에서 3차 측정 시점 자료 활용을 위해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변수가 모두 포함된 4차년도(중학교 1학년), 5차년도(중학교 2학년), 6차년도(중학교 3학년) 자료를 각각 1차 시점, 2차 시점, 3차 시점으로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변수의 기술적 통계

본 연구에서는 잠재변수들과 측정 문항들의 개략적인 수준을 파악하고 자료의 정규분포 가정이 충족되는지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를 분석하여 기술 통계량을 확인하였다. 통계적으로, 개별 측정 문항들과 합산점수의 왜도 절대 값이 3을 초과하지 않거나 첨도 절대 값이 10 미만일 경우 정규분포를 만족한다고 볼 수 있다(Kline et al. 2005). 이에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네 개의 변수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기 위해 각 조사 시점별로 평균과 표준편차, 정규성 확인을 통해 왜도와 첨도를 검증하였다.

가. 문화적응스트레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조사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 보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 평균값은 1차 시점 1.4055에서 3차 시점 1.4271로 증가와 감소가 있었으나 1차 시점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모든 시점에서 정규성 검증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평균값의 변화 정도의 각 측정 시점별 기술통계는 <표 4-1>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기술통계

N=1,143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문화적응스트레스 1차 시점(중1)	1.4055	.31920	1.057	.711
문화적응스트레스 2차 시점(중2)	1.4569	.34702	1.064	.808
문화적응스트레스 3차 시점(중3)	1.4271	.33164	1.374	3.839

나.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조사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 보았다. 삶의 만족도 평균값은 1차 시점 3.1846에서 3차 시점 2.9977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모든 시점에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삶의 만족도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시점별 기술통계는 <표 4-2>와 같이 제시한다.

<표 4-2> 삶의 만족도의 기술통계

n=1,143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삶의 만족도 1차 시점(중1)	3.1846	.59038	-.315	.152
삶의 만족도 2차 시점(중2)	3.1070	.61798	-.278	.206
삶의 만족도 3차 시점(중3)	2.9977	.56869	-.060	.402

다.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조사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 보았다.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1차 시점 3.1603에서 3차 시점 3.0809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모든 시점에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아존중감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시점별 기술통계는 <표 4-3>과 같이 제시한다.

<표 4-3> 자아존중감의 기술통계

N =1,143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자아존중감 1차 시점(중1)	3.1603	.53269	-.117	-.279
자아존중감 2차 시점(중2)	3.1363	.52350	-.043	-.168
자아존중감 3차 시점(중3)	3.0809	.53019	-.061	.294

라. 학교생활적응

학교생활적응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는 어떠한지를 살펴보고자 조사 시점별 평균과 표준편차를 확인해 보았다. 학교생활적응 평균값은 1차 시점 2.8520에서 3차 시점 2.8313까지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도와 첨도는 모든 시점에서 정규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 평균값의 변화 정도를 측정한 시점별 기술통계는 <표 4-4>와 같이 제시한다.

<표 4-4> 학교생활적응의 기술통계

n=1,143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학교생활적응 1차 시점(중1)	2.8520	.50897	-.005	.223
학교생활적응 2차 시점(중2)	2.8325	.50972	.009	.149
학교생활적응 3차 시점(중3)	2.8313	.48642	-.146	.495

3. 변수 간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진행하였다. 상관관계 분석 방법은 두 개의 변수 간 상호관련성 정도를 상관계수로 측정할 수도 있으며, 상관계수는 두 개의 변수 간 관계 정도를 수치화하여 나타내는 지수를 의미한다(박희서·김구, 2006). 상관분석 결과 상관계수가 모두 .60 미만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상관관계 값은 각 변인의 측정 시점 1차에서 3차까지의 값을 살펴보았으며, 동일

변수의 시점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측정 시점 1차와 2차의 상관계수가 .307**, 2차와 3차의 상관계수가 .330**로 모두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초기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삶의 만족도는 측정 시점 1차와 2차의 상관계수가 .480**, 2차와 3차의 상관계수가 .517**로 모두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초기에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높은 삶의 만족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자아존중감은 측정 시점 1차와 2차의 상관계수가 .504***, 2차와 3차의 상관계수가 .564**로 모두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초기에 자아존중감 수준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높은 자아존중감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학교생활적응은 측정 시점 1차와 2차의 상관계수가 .580***, 2차와 3차의 상관계수가 .596**로 모두 유의수준 $p < .01$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는 초기에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시간이 지나도 계속 높은 학교생활적응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176^{**} \sim -.276^{**}$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낮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자아존중감 간의 상관관계는 $-.186^{**} \sim -.302^{**}$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상관관계는 $-.140^{**} \sim -.259^{**}$ 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여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학교생활 적응 수준이 낮을 것으로 보인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286**~.553**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215*~ .420**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여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변수 간 상관관계 분석결과 제시는 <표 4-5>와 같다.

<표 4-5> 변수들의 상관관계 분석

	cul4	cul5	cul6	life4	life5	life6	estem4	estem5	estem6	lrn4	lrn5	lrn6
cul4	1											
cul5	.307**	1										
cul6	.317**	.330**	1									
life4	-.276**	-.187**	-.169**	1								
life5	-.214**	-.276**	-.192**	.480**	1							
life6	-.183**	-.209**	-.176**	.416**	.517**	1						
estem4	-.293**	-.225**	-.203**	.534**	.286**	.291**	1					
estem5	-.238**	-.302**	-.206**	.393**	.553**	.370**	.504**	1				
estem6	-.199**	-.218**	-.186**	.336**	.398**	.497**	.465**	.564**	1			
lrn4	-.259**	-.125**	-.140**	.420**	.266**	.215**	.474**	.343**	.329**	1		
lrn5	-.163**	-.164**	-.158**	.260**	.400**	.249**	.338**	.458**	.378**	.580**	1	
lrn6	-.174**	-.168**	-.166**	.240**	.285**	.348**	.346**	.385**	.492**	.524**	.596**	1

* 0.5<P, ** 0.1<P, ***0.01<P cul:문화적응스트레스, life:삶의 만족도, esteem:자아존중감, lrn:학교생활적응

제2절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과 성장 관계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데이터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4차, 5차, 6차 시점의 자료를 활용하여 각 측정 시점을 1차, 2차, 3차 시점으로 적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발달과정에서 개인별 변화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의 흐름에 따른 개인 내적 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모두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변수 간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변화모형은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연구방법이 적절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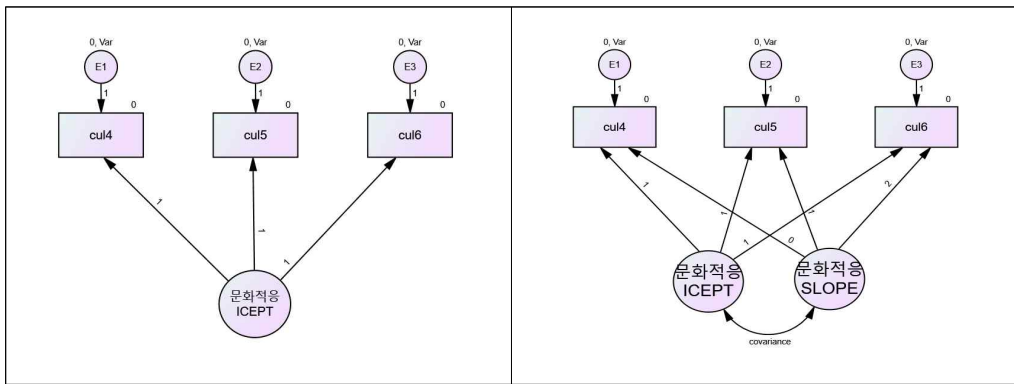
잠재성장모형의 검증방법에는 χ^2 검증과 적합도 검증 두 개의 방법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적합도 검증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는 검증이 표본 크기에 민감해 영가설이 쉽게 기각된다는 한계점 때문이다(김주환 외, 2008).

본 연구자료는 3차 시점의 비교, 시간 간격 자료로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의 선형변화 모형을 비교 검증한 후 적합도 지수가 좋은 모형인 잠재성장모형으로 최종적으로 선택하였다. 선행연구(정윤희 외, 2018; 조한익·김영숙, 2016; Wickrama et al. 2016)를 근거로 선형변화 모형은 초기치의 요인 부하량 값을 모두 1로 고정하고 일차변화율의 요인 부하량 값은 0, 2, 3으로 고정하였으며, 무변화 모형은 초기치의 요인 부하량 값을 모두 1로 고정하여 모형별 적합도 지수를 비교한 결과 최종적으로 모든 선형 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가 $RMSEA < .08$, $TLI > .90$, $CFI > .90$ 으로 적합도 조건이 충족되었다.

1. 문화적응스트레스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 정도를 검증하기 위해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 검증해 본 결과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58과 TLI=.962 및 CFI=.925를 나타냈고,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72와 TLI=.942, CFI=.942로 나타내어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가 아주 좋게 나타났으며,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 또한 좋게 나타나 성장모형을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목적에 고려하여 단순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비교는 <그림 4-1>과 같이 제시하고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표는 <표 4-6>으로 제시하였다.



<그림 4-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 비교

<표 4-6>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29.321	6	.962	.925	.058
선형변화모형	20.905	3	.942	.942	.072

<표 4-6>과 같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변화 모형 모두 RMSEA<.08, TLI와 CFI >.90으로 좋은 적합도를 나타냈고 일차함수변화모형으로 선택해서 모수를 추정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 추정 수치는 <표 4-7>과 같이 제시한다.

<표 4-7>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 수치

선택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1.419***	.026***	.006*
	변화율	.011	-.004	

* 0.5<P, ** 0.1<P, ***0.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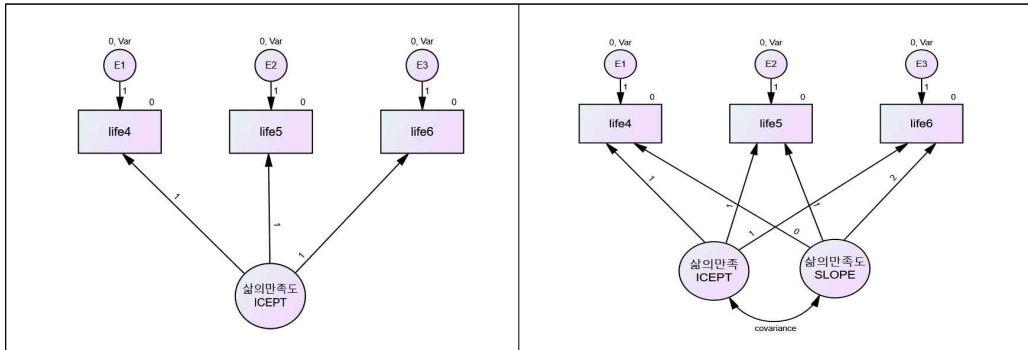
위의 <표 4-7>은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이다. 위와 같이 선택된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1.419, 초기값의 분산은 .026으로 $P<.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11, 분산은 -.004로 나타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06으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초기값 1.419에서 해마다 .011 만큼 변화하며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은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정적(+)으로 유의미하여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은 다문화 청소년은 느린 증가를 보이고 초기값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빠른 증가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2. 삶의 만족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변화가 어떠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각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검증 결과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는 $RMSEA=.135$ 와 $TLI=.913$, $CFI=.825$ 로 나타났고, 일차함수 변화모형 적합도는 $RMSEA=.072$ 와 $TLI=.975$, $CFI=.975$ 로 적합도가 아주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최종적인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비교는 <그림 4-2>로 제시하고

모형별 적합도 지수는 <표 4-8>로 제시하였다.



<그림 4-2>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표 4-8>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 모형	130.043	6	.913	.825	.135
선형변화모형	20.966	3	.975	.975	.072

위의 <표 4-8>과 같이 삶의 만족도의 잠재성장모형 RMSEA<.08로 괜찮은 적합도이며, TLI 값과 CFI 값은>.90으로 일차함수 변화모형이 무변화 모형보다 아주 좋게 나타나 일차함수 변화모형으로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 추정치는 <표 4-9>와 같이 제시한다.

<표 4-9> 삶의 만족도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3.190***	.185***	-.013
	변화율	-.093***	.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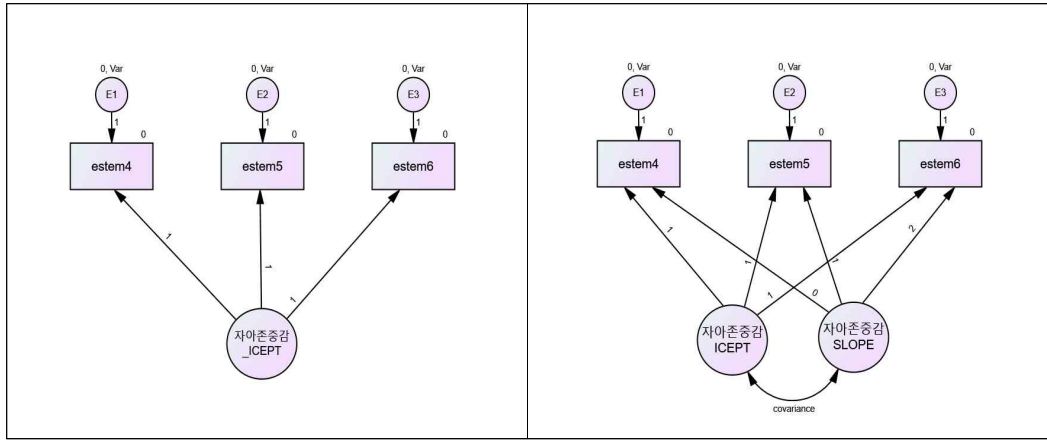
* 0.5<P, ** 0.1<P, ***0.01<P

위의 <표 4-9>는 삶의 만족도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3.190, 초기값의 분산은 .185로 $P < .001$ 수준에서 매우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93$ 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나, 분산은 .010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13$ 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는 초기값 3.190에서 해마다 $-.093$ 만큼 변화하며 삶의 만족도 수준은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나타나 유의미하여 초기 삶의 만족도가 낮은 다문화 청소년은 느린 감소세를 보이고 삶의 만족도 초기값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하지만 유의미하지는 않게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검증 결과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 $RMSEA=.077$ 와 $TLI=.976$ 및 $CFI=.952$ 로 나타났고,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는 $RMSEA=.038$ 와 $TLI=.994$ 및 $CFI=.994$ 로 적합도가 아주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적인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비교는 다음 <그림 4-3>과 같이 선택하고 모형별 적합도 지수 비교는 <표 4-10>과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3>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표 4-10>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46.978	6	.976	.952	.077
선형변화모형	7.979	3	.994	.994	.038

<표 4-10>과 같이 자아존중감의 잠재성장모형은 무변화 모형보다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일차함수 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자아존중감의 최종 모수 추정치는 <표 4-11>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1> 자아존중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3.166***	.157***	-.012*
	변화율	-.040***	.014***	

* 0.5<P, ** 0.1<P, ***0.01<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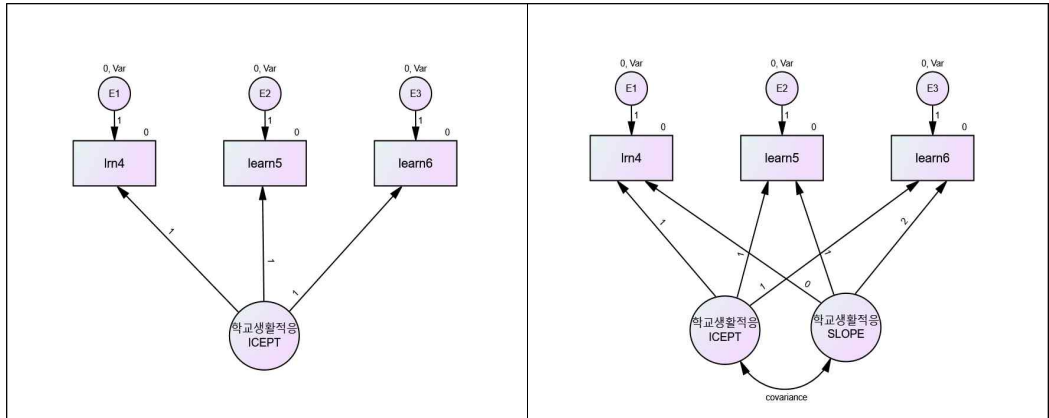
위의 <표 4-11>은 자아존중감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3.166, 분산은 .157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의 평균은 -.040, 분산은 .014로 $P<.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으며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12로 $P<.05$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초기값 3.166에서 해마다 -.040만큼 변화하며 초기 자아존중감 수준에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자아존중감 수준이 낮은 다문화 청소년은 느린 감소를 보이고 초기값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4. 학교생활적응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는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모형별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적합도 비교 검증결과 무변화 모형의 적합도는 $RMSEA=.045$ 와 $TLI=.994$ 및 $CFI=.987$ 로 나타났고, 일차함수변화모형 적합도는 $RMSEA=.038$ 과 $TLI=.995$, $CFI=.995$ 로 적합도가 아주 좋게 나타난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최종 모형으로 선택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의 모형 비교는 <그림 4-4>와 같이 제시하고, 모형별 적합도 지수는 <표 4-12>와 같이 제시하였다.



<그림 4-4>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의 비교

<표 4-12>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지수 비교

적합도	χ^2	df	TLI	CFI	RMSEA
무변화모형	19.636	6	.994	.987	.045
선형변화모형	7.860	3	.995	.995	.038

<표 4-12>와 같이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가 $RMSEA < .08$, TLI와 CFI $> .90$ 으로 더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어 일차함수변화모형을 선택하여 모수를 추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의 모수 추정치는 <표 4-13>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3> 학교생활적응의 최종 잠재성장모형 모수추정치

선택된 모형	모수	평균	분산	초기값↔변화율 공분산
일차함수 변화모형	초기값	2.849 ***	.163 ***	-.013**
	변화율	-.010	.009 **	

* $0.5 < P$, ** $0.1 < P$, *** $0.01 < P$

위의 <표 4-13>은 학교생활적응의 최종 잠재성장모형으로 선택된 일차함수 변화모형의 모수 추정치를 살펴보면 초기값의 평균은 2.849, 분산은 .163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010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분산은 .009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013으로 $P < .01$ 수준에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학교생활적응은 초기값 2.849에서 해마다 -.010만큼 변화하며 초기 학교생활적응 수준에 개인차가 있으며, 시간에 따른 변화에도 개인차가 있음을 나타낸다.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변화율의 공분산이 부적(-)으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다문화 청소년은 느린 감소를 보이고 초기값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빠른 감소세를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제3절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1.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적합도 검증

세 시점의 잠재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에 대해 무변화 모형과 일차함수변화모형의 적합도를 비교한 결과, 네 개 변수의 적합도가 아주 좋은 일차함수변화모형으로 최종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을 일차함수변화 모형인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으로 구성하고 변인들 간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 형태를 추정하여 이들의 관계를 검증하였다. 이에 다변량 잠재성장기저모형 적합도 지수는 $RMSEA = .099$, $TLI = .845$, $CFI = .904$ 로 <표 4-14>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14> 다변량 잠재성장 기저모형 적합도 지수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500.467***	41	.845	.904	.099
적합기준	-	-	.9이상	.9이상	.08이하

그러나 측정모형의 적합도가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한 수준이나 더 나은 적합도를 위해 수정지수(Modification Indices)를 확인한 후 분산이 음(-)인 오차의 헤이우드 처리하고 요인 내 측정오차 상관(Within-factor Corrected Measurement Error)을 이용하여 유사 개념 측정오차의 공분산을 허용하였다(배병렬, 2011).

내생 잠재변수 오차항 간과 측정변수 오차항 간을 설정한 결과, 적합도 지수가 $\chi^2=281.235$, TLI=.906, CFI=.949, RMSEA=.077로 수정 전 연구모형에 비해 모든 적합도 지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수정된 최종 측정모형 및 적합도 지수는 모든 경로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표 4-15>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4-15> 다변량잠재성장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구분	χ^2	df	TLI	CFI	RMSEA
기저모형	500.467***	41	.845	.904	.099
수정모형	281.235***	36	.906	.949	.077
적합기준			.9이상	.9이상	.08이하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다변량 잠재성장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TLI>.90와 CFI>.90 및 RMSEA<.08로 적합도 기준 충족으로 이에 따라 경로계수를 추정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의 추정치는 <표 4-16>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과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P<.001$) 부적 영향($B=-3.186, \beta=-.971 / B=-2.541, \beta=-.79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화율에는 매우 유의미한 정적영향($B=.367, \beta=.283 / B=.305, \beta=.36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매우 유의미하게 부적영향($B=-.643, \beta=-.311 / B=-.604, \beta=-.451$)이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이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부적 영향($B=-9.642, \beta=-2.612 / B=-2.014, \beta=-1.40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넷째,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영향($B=.980, \beta=.430$)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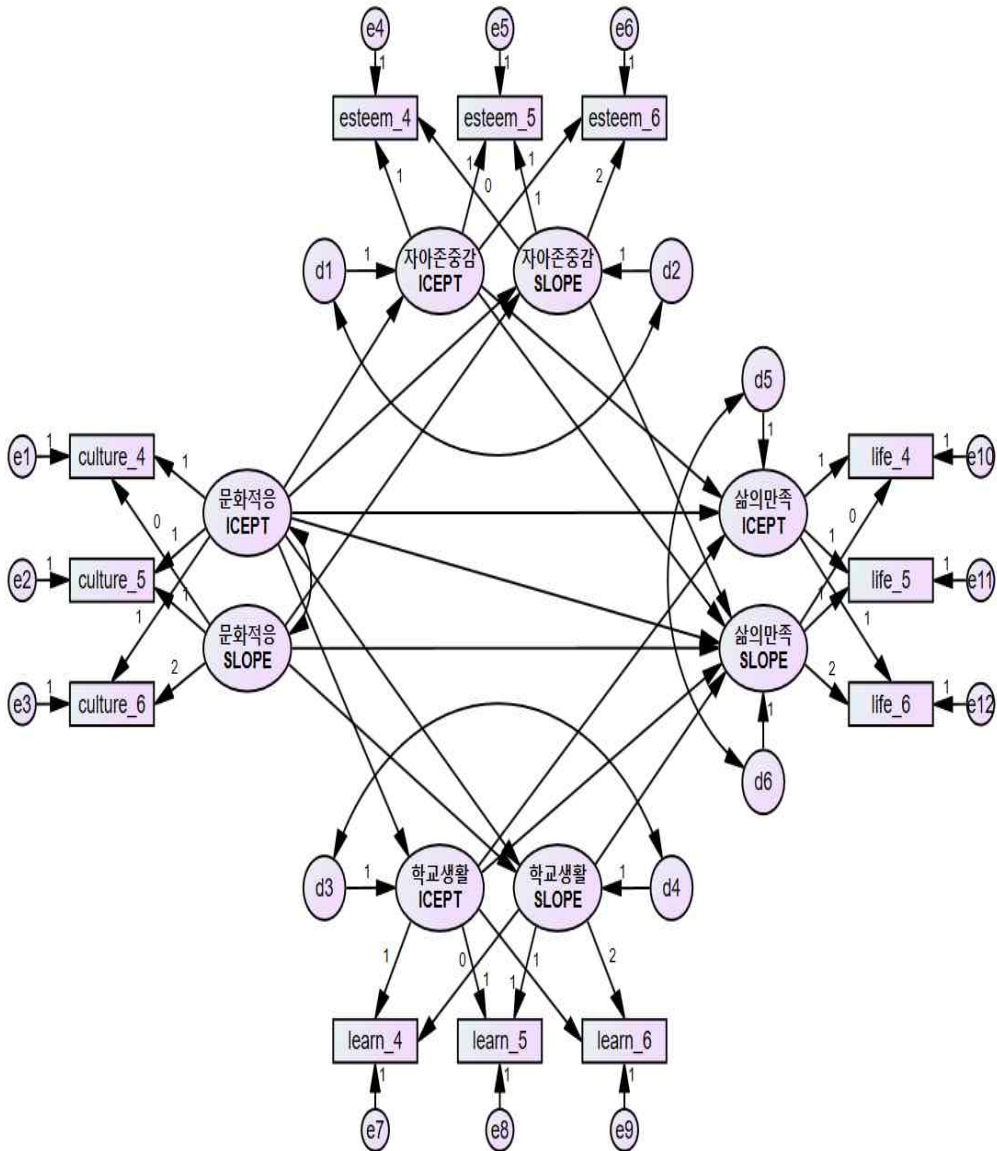
다섯째,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부적 영향($B=-1.591, \beta=-1.415 / B=-.492, \beta=-1.126$)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여섯째,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유의미한 정적영향($B=.989, \beta=.896$)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B=-.394, \beta=-.342$)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여덟째,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영향

($B=1.710$, $\beta=.43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 <그림 4-5>, <표 4-16>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4-5> 다변량잠재성장 수정모형

<표 4-16>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경로계수 추정치

경로	B	S.E.	C.R	p	β
문화적응초기값 → 삶의만족도초기값	-9.642	8.766	-1.100	.271	-2.612
문화적응초기값 → 삶의만족도변화율	-2.014	1.465	-1.375	.169	-1.406
문화적응변화율 → 삶의만족도변화율	.980	.845	1.161	.246	.430
문화적응초기값 → 자아존중감초기값	-3.186	.296	-10.752	***	-.971
문화적응초기값 → 자아존중감변화율	.367	.090	4.067	***	.283
문화적응변화율 → 자아존중감변화율	-.643	.180	-3.565	***	-.311
문화적응초기값 → 학교생활초기값	-2.541	.226	-11.250	***	-.793
문화적응초기값 → 학교생활변화율	.305	.077	3.962	***	.362
문화적응변화율 → 학교생활변화율	-.604	.165	-3.661	***	-.451
자아존중초기값 → 삶의만족초기값	-1.591	2.590	-.614	.539	-1.415
자아존중초기값 → 삶의만족변화율	-.492	.354	-1.391	.164	-1.126
자아존중변화율 → 삶의만족변화율	.989	.154	6.439	***	.896
학교생활초기값 → 삶의만족초기값	-.394	.145	-2.554	*	-.342
학교생활초기값 → 삶의만족변화율	-.065	.198	-.329	.742	-.146
학교생활변화율 → 삶의만족변화율	1.710	1.276	1.341	.180	.430

* : p<.05, ** : p<.01, *** : p<.001

가. 잠재성장모형 가설검증 결과

첫째, 연구문제 1의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각각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어떠한가?’에 대한 가설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성장변화 속도가 빠른 감소세를 보이며,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이 낮으면 변화 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져 초기값에서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상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4-17>과 같이 제시한다.

<표 4-17> 연구문제 1의 가설검증 결과

연구 문제 1.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각각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가 설	검증결과
가설 1.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1-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는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2-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삶의 만족도는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3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3-2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은 개인차가 있을 것이다.	지지
가설 1.4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안정적인 성장변화와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1.4-1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안정적인 성장변화가 있을 것이다.	지지
1.4-2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학교생활적응은 개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지지

둘째, 연구문제 2의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각각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변화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가설검증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기각되었고,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결과는 채택되었다. 또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검증결과는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는 기각되었으나,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이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치는 검증결과는 채택되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면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변화 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져 변화율에서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며 가설은 채택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는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삶의 만족도를 결정하는 외적 요인임이 검증되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학교생활적응 수준은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 또한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문제 2의 가설 검증결과는 <표 4-18>로 제시한다.

<표 4-18> 연구문제 2의 가설검증 결과

연구 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각각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변화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검증결과
가설 2.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1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1-2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2.1-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가설 2.2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2.2-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2.2-2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2.2-3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검증결과
가설 2.3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3-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2.3-2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2.3-3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연구 문제 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각각의 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성장변화 관계는 어떠한가?	
가설 2.4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4-1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2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4-3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2.5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5-1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지
2.5-2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5-3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3.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 매개효과

잠재성장 매개 효과분석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주요변수의 개인 내의 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동시에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주요변수 간 변화 관계에서는 시간적인 선행성을 살필 수 없다(김동하, 2014)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변화율을 잠재 외생 변인으로 설정하였고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을 잠재 내생 변인으로 설정하여 각자의 변수에 미친 직접적 영향과 간접적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의 중단매개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중단매개 모형으로 설정하고 효과성 분해를 진행하였다. 2,000회 이상, 신뢰구간 95%의 붓트스트랩 방법을 사용하고 직접 효과와 간접효과, 총 효과의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붓트스트랩 검증은 편의 조정된 붓트스트랩 신뢰구간 95%가 '0'을 포함하지 않으면(Preacher & Hayes, 2004) 효과는 유의

하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변수 간의 효과 분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rightarrow 삶의 만족도 초기값의 총 효과는 $\beta=-3.572$, 직접 효과 $\beta=-9.642$, 간접효과 $\beta=6.071$ 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95%의 신뢰구간의 값(-1.218~31.677)으로 '0'이 포함되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rightarrow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총 효과는 $\beta=.603$, 직접효과 $\beta=-2.014$, 간접효과 $\beta=2.617$ 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95%의 신뢰구간의 값(-.513, 10.240)으로 '0'이 포함되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rightarrow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총 효과는 $\beta=-.688$, 직접효과 $\beta=.980$, 간접효과 $\beta=-1.669$ 로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95%의 신뢰구간의 값(-19.736, -.182)으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다음 <표 4-19>와 같이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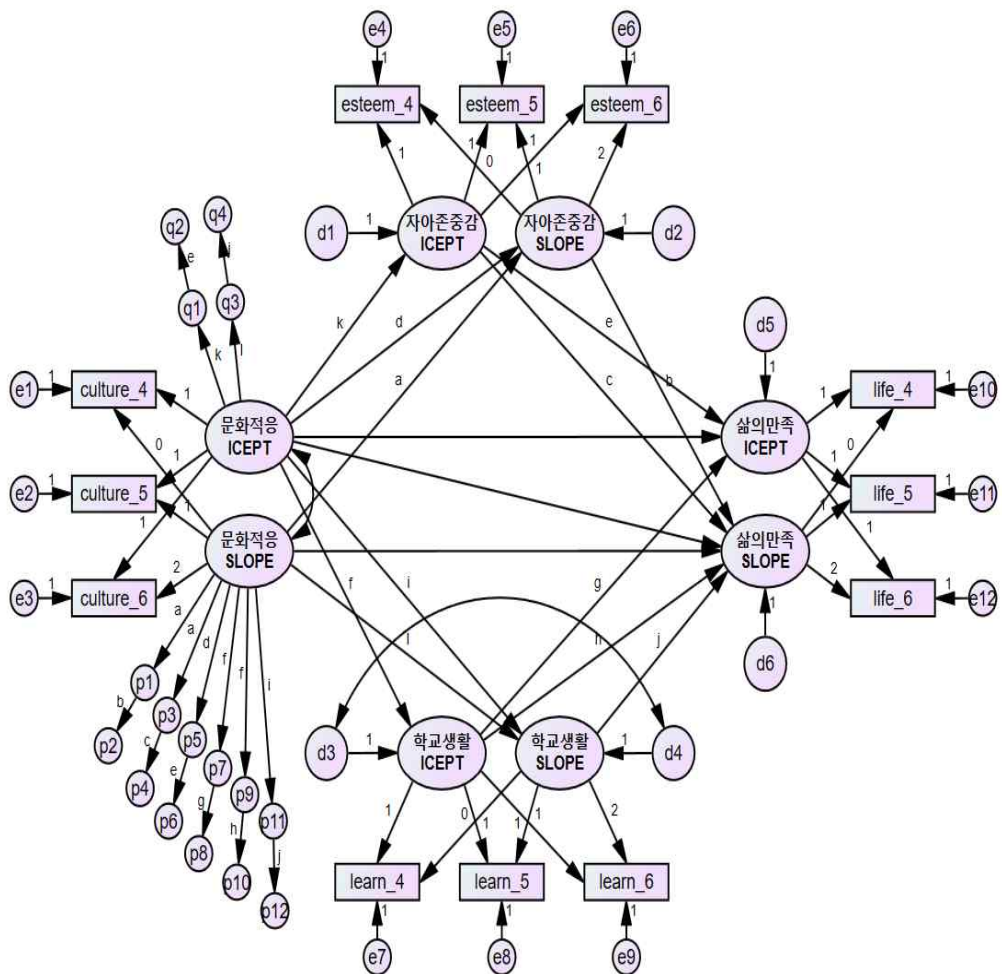
<표 4-19> 매개효과 분석

path			Lower Bounds, Upper Bounds	Two Tailed Significance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값	→	직접효과	-9.642 (-35.784, -2.008)	.010
	→	삶의 만족도 초기값	6.071 (-1.218, 31.677)	.103
	→	총효과	-3.572 (-5.176, -2.722)	.000
문화적응 스트레스 초기값	→	직접효과	-2.014 (-7.833, .741)	.220
	→	삶의 만족도 변화율	2.617 (-.513, 10.240)	.088
	→	총효과	.603 (.021, 1.039)	.046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율	→	직접효과	.980 (-.879, -.502)	.108
	→	삶의 만족도 변화율	-1.669 (-19.736, -.182)	.028
	→	총효과	-.688 (-6.671, -.067)	.013

지금까지의 분석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통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간접경로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런 결과는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개별 매개 효과는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변수의 개별매개 효과 검증

을 위해 팬텀 변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개별 매개 효과 확인을 위한 경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 자아존중감 → 삶의 만족도와 문화적응스트레스 → 학교생활적응 → 삶의 만족도로 팬텀 모형을 구축하여 붓트스트랩 2,000회와 편차 교정 95% 신뢰 구간을 설정하여 이들 각각의 경로에 대한 개별매개 효과를 검증하였다. 개별매개 효과 유의성 검증을 위한 모형(팬텀 모형)과 매개 효과 검증결과는 다음 <그림 4-6>과 <표 4-20>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4-6> 팬텀 모형

<표 4-20> 개별 매개효과 검증

경로	비표준화 회귀계수	채택 여부
문화경험스트레스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5.070	기각
문화경험스트레스 초기값 → 자아존중감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1.567	기각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 자아존중감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363	기각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 삶의 만족도 초기값	1.000	기각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 학교생활적응 초기값 → 삶의 만족도 변화율	.166	기각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자아존중감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636*	채택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521*	채택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 학교생활적응 변화율 → 삶의 만족도 변화율	-1.033*	채택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검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변화율의 간접효과가 $\beta = -.636^*$ 으로 유의미하여 자아존중감이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 검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경로에서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의 간접효과가 $\beta = .521^*$ 으로 유의미하였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관계에서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의 간접효과가 $\beta = -1.033^*$ 으로 완전 매개함을 알 수 있다.

가. 매개효과의 가설검증 결과

이상과 같이 연구문제 3의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매개 효과는 어떠한가?’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 결과는 기각되었고,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을 매개로 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검증도 기각되었다. 그러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에서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의 가설은 채택되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짐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높아지는데 이를 자아존중감이 매개됨이 검증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의 가설검증은 기각되었다. 그러나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을 매개로 검증에서는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이 채택되었으며,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에서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에는 채택되었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면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 변화 속도가 완만하게 이루어져 변화율에서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면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는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연구문제 3의 가설검증 결과는 <표 4-21>로 제시한다.

<표 4-21> 연구문제 3의 가설검증 결과

연구 문제 3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매개효과는 어떠한가?	
	가 설	결 과
가설 3.1.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3.1-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3.1-2.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3.1-3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3.1-4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가설 3.2.	문화적응스트레스는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3.2-1.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3.2-2.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기각
3.2-3.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3.2-4.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영향이 미칠 것이다.	지지

제4절 분석결과의 논의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다문화 청소년 패널자료 4차 년도(중학교 1학년), 5차 년도(중학교 2학년), 6차 년도(중학교 3학년)의 3개년 패널데이터 중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43명을 대상으로 종단분석 하였다. 이를 위한 통계 프로그램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한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검증은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은 종단연구에 적합한 분석모형으로 단일 시점만을 살펴보는 횡단 연구 한계를 보완하여 여러 시점으로 변수별 성장변화와 개인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으며, 변수 간 성장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검증과정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기술통계 분석으로 왜도와 첨도 확인 후 정규성을 확보하였으며 변수별 각각의 시점에 따라 평균 변화를 살펴보았다.

둘째, 상관분석을 실시하여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셋째, 모형별 적합도 검증으로 최종 잠재성장모형을 결정하고 모수를 추정하여 각각 변수의 성장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넷째, 결정된 잠재성장모형을 통해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확정하고 적합도 검증으로 변수 간 관계와 변화양상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의 간접매개 효과성 검증을 통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간접매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이 검증과정에서 확인된 결과는 크게 3가지 연구문제의 결과로 구분하고 분석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1. 잠재성장모형의 변화모형 설정 및 성장변화 분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각자의 종단적 변화양상은 어떠한가? 에 대한 연구문제 1의 분석결과이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잠재성장모형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이 $RMSEA=.072$ (상당히 괜찮은 적합도), $TLI=.942$ (상당히 좋은 적합도), $CFI=.942$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보여 일차함수변화 모형으로 최종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이 1.419, 초기값의 분산은 .0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011, 분산은 -.004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이 .006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변화 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지며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에 다양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삶의 만족도 잠재성장모형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이 $RMSEA=.072$ (상당히 괜찮은 적합도), $TLI=.975$ (상당히 좋은 적합도), $CFI=.975$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보여 일차함수변화 모형으로 최종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삶의 만족도 초기값은 3.190, 초기값의 분산은 .185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093, 분산은 .010으로 유의미하였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이 -.013으로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성장변화 속도가 빠른 감소를 보였고, 초기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변화 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며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다양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자아존중감 잠재성장모형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이 $RMSEA=.038$ (상당히 좋은 적합도), $TLI=.994$ (상당히 좋은 적합도), $CFI=.994$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보여 일차함수변화 모형을 최종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자아존중감 초기값이 3.166, 초기값의 분산은 .157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040, 분산은 .014로 유의미하였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이 -.012로 초기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성장변화 속도가 빠른

감소를 보였고, 초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변화 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며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는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넷째, 학교생활적응 잠재성장모형은 일차함수변화모형이 $RMSEA=.038$ (상당히 좋은 적합도), $TLI=.995$ (상당히 좋은 적합도), $CFI=.995$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보여 일차함수변화 모형으로 최종 선택하고 모수를 추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이 2.849, 초기값의 분산은 .163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변화율의 평균은 $-.010$, 분산은 .009로 유의미하였다.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이 $-.013$ 으로 초기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성장변화 속도가 빠른 감소세를 보였고, 초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으면 변화 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지며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상호 변화관계는 어떠한가? 에 대한 연구문제 2의 분석결과이다.

다변량 잠재성장 수정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RMSEA<.08$ 와 $TLI>.90$ 및 $CFI>.90$ 로 상당히 좋은 적합도를 나타낸 경로계수의 추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부적 영향($\beta=-2.612$)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도 부적 영향($\beta=-1.406$)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정적영향($\beta=.430$)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 ($P<.001$) 부적영향($\beta=-.971$)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유의미한($P<.001$) 정적영향($\beta=.283$)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자아존중감 변화율에 유의미한($P < .001$) 부적 영향($\beta = -.31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 ($P < .001$) 부적 영향($\beta = -.793$)을 미쳤으며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유의미한 ($P < .001$) 정적영향($\beta = .362$)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유의미한($P < .001$) 부적 영향($\beta = -.451$)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넷째, 자아존중감의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에 부적 영향($\beta = -1.415$)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도 부적 영향($\beta = -1.126$)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유의미한($P < .001$) 정적영향($\beta = .896$)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학교생활적응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유의미하게($P < .05$) 부적 영향($\beta = -.342$)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 영향($\beta = -.146$)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한편,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변화율에 유의미한($P < .01$) 정적영향($\beta = .430$)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 매개효과 검증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두 개의 매개변수가 기능하고 있다. 이에 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 유의미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고 변수 간의 영향력을 살피기 위한 효과 분해를 실시하였다.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매개 효과는 어떠한가? 에 대한 연구문제 3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

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전체 매개 효과를 살펴보면 $\beta = -3.572$, 직접 효과 $\beta = -9.642$, 간접효과 $\beta = 6.071$ 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95%의 신뢰구간의 값(-1.218 ~ 31.677)으로 '0'이 포함되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 \rightarrow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총효과는 $\beta = .603$, 직접효과 $\beta = -2.014$, 간접효과 $\beta = 2.617$ 로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95%의 신뢰구간의 값(-.513, 10.240)으로 '0'이 포함되어 유의미하지 않았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 \rightarrow 삶의 만족도 변화율의 총 효과는 $\beta = -.689$, 직접효과 $\beta = .980$, 간접효과 $\beta = -1.669$ 로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은 95%의 신뢰구간의 값(-19.736, -.182)로 '0'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유의미하였다. 종합하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경로 분석 후 실행한 효과 분해로는 전체 간접효과에 대한 유의성만을 확인할 수 있어 매개변수별 개별매개 효과의 유의성 검증에 위해 팬텀 분석을 실시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살펴보았고,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 변화율이 $\beta = -.636^*$ 으로 유의미하게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고 삶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은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과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미하게($\beta=.521^*$, $\beta=-1.033^*$)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분석결과를 종합해보면, 학교생활적응을 잘할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고 삶의 만족도도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수준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높아질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낮아지면서 삶의 만족도 변화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중단매개 효과 검증을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다문화 청소년 패널 자료 중 4차년도, 5차년도, 6차년도의 3개년 패널데이터 자료 모든 문항에 응답한 1,143명을 대상으로 종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SPSS 23.0과 AMOS 23.0을 활용한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을 적용하였으며, 모형검증을 위해 적합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변수들은 선형 변화모형에 부합하였고, 각 변수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추이와 종단적 관계가 검증되었다.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의해 매개됨을 검증하였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모두 감소하였고 특히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 폭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변량 잠재성장 모형은 종단연구에 적합한 분석모형으로 단일 시점만을 살피는 횡단 연구의 한계를 보완하여 여러 시점으로 각각 변수의 성장변화와 개인 간 차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고 변수 간의 성장변화와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지 않았으나,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사이에서는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즉,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변화 값은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 값과 삶의 만족도 변화 값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됨을 확인하였다. 구체적인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주요 변수의 성장변화

본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각각의 종단적 성장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의한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유의미하게 나타나 초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들은 변화 속도가 급격히 이루어짐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은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개년 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성장변화와 개인 간의 변화 차이는 서로 다른 것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가파르게 감소하는 반면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완만하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성장함에 따라서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기존의 연구들(김은경, 김종남, 2016; Ying, 2005)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문화적응스트레스를 잠재계층별로 유형화한 연구(김소영·홍세희, 2019; 은선민 외, 2019; 김서정, 2019)에서도 학년이 높아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하거나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는 결과와도 부합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한 경우로 일정한 시기까지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런 감소 현상은 12세 이전에 문화적응을 하는 이민 2세와 3세대는 이민 1세대보다는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게 느끼고, 문화적응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해결하려는 스트레스 대처전략을 취한다는 연구결과

(Meña et al. 1987)와도 유사한 맥락이다. 즉,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도 성장함에 따라서 사회적 기술과 규범을 일상에서 습득하는 대처전략을 사용함에 따라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되었을 것으로 예측된다.

대부분의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에서 출생하여 성장하고 어머니만이 외국 출신으로 가족 전체가 주류문화와 다른 문화권인 외국의 이주 청소년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출생하고 성장해 온 다문화 청소년들도 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함에 따라 개인의 성향이나 특성에 맞는 조기 개입전략으로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한국 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한국문화와 언어 유입에 동화되는 것을 요구하는 용광로(Melting pot) 정책이 주로 사용되어(김평화, 2019; 강유선, 2020) 이들의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존중받고 공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처럼 외국인들이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동화유형으로 적응하는 것을 중시하는 사회문화적 배경은 다문화 청소년들이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의 문화를 수용하고 자부심을 느끼기보다는 이에 대한 소외감과 갈등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추후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가장 높게 경험하는 양상과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감소시키거나 완충되게 하는 요인들에 대해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분석결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변화율 또한 유의미하였으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초기 삶의 만족도가 높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 변화속도가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초기 삶의 만족도가 낮으면 변화 속도도 완만하게 이루어져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다양한 개인차가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 청소년 대상 연구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현주, 2018; 정운화 외, 2018; 김평화, 2019; 강유선, 2020)을 보이는

것과 비슷한 결과이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백승희 외(2017)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삶의 만족도가 증가하다가 중학교 1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청소년기라는 특정 성장기에 초점을 두고 발달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적 변화와 정체성 확립, 학업에 대한 부담감 등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과 스트레스로 인해 아동기보다는 삶이 복잡해지고 자기 결정에 대한 책임의 무게를 인식하게 되는 시기임에 따라 다양한 요인에 의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은 다문화 청소년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발달과정을 경험하면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에서도 개인 간의 차이가 있는 것을 보여주며, 이는 같은 상황에서도 삶의 만족도를 높게 지각하는 다문화 청소년과 그렇지 않은 다문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이 유의미한 관계에 있다는 것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수준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율에도 계속해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조기 개입전략이 필요하고 단기적이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생애주기별 단계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현장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아존중감의 잠재성장모형 초기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변화율 또한 유의미하였으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초기 자아존중감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성장변화 속도가 빠른 감소세를 보였으며, 초기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변화 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져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다양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교 시기에는 자아존중감이 감소하다가 고등학교 시기에 다시 증가한다는 송수지 등(2012)의 연구결과와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증가하다 중학교 시기에 감소한다는 이은택·이은경(2017)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비록 본 연구대상과 비록 선행연구 결과는 분석 대상에서 차이가 있으나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감소한다는 결과는 일치하고 있다.

청소년기인 중학생 시기는 신체적·인지적 변화와 함께 상급학교로 전환되는 시기로 자아존중감이 급격히 감소 될 수가 있다. 이처럼 자아존중감의 감소는 일반 청소년이나 다문화 청소년 모두 성장 과정 중에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비교분석은 못 하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한편, 자아존중감 변화율의 평균과 변량이 유의하다는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변화에 개인 간의 차이가 다양하게 나타내며, 자아존중감이 초기시점부터 변량과 변화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초기값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발달과 변화율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후기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상승을 위해서는 생애주기별 성장 과정별 실질적인 초기개입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넷째, 학교생활적응의 경우 초등학교 때는 쑥 증가하다가 중학생 이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적응의 잠재성장모형 초기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변화율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초기값과 변화율의 상관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초기 학교생활적응이 높은 다문화 청소년의 경우는 성장변화 속도가 빠른 감소세를 보이고, 초기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으면 변화 속도가 완만히 이루어져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에서는 다양한 개인 간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선행연구(장미·전종설, 2013; 김혜미·문혜진, 2013; 한성희, 2015)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다고 하였다. 황선영·고재욱(2013)의 연구도 다문화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는 보통수준보다 높지만, 학교생활 적응에서는 일반 청소년에 비해 낮다고 하였으며, 이는 다문화 청소년들이 따돌림을 더 경험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는 아동기에서 청소년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학교생활적응이 감소한다는 선행연구(류방란 외, 2012; 이영애·정현희, 2016)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 대상이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청소년기에 해당하여 신체 변화나 또래와의 관계, 학교 환경 등의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또한 급격한 신체적, 인지적 성숙으로 역동적인 발달과정을 겪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급증하는 학습량이나 정기적인 교과목 시험 등으로 본격적인 학업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박용한·이신동, 2017; 은선민 외, 2019; 손한결, 2020).

청소년기에 들어서며 아동기와 달리 또래 간의 상호작용이 증가하고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커질 뿐 아니라 학교 교칙이 엄격해지고 행동에 대한 통제가 생기는 등 학교 환경들의 변화(이영애·정현희, 2016)는 청소년기의 학교생활 적응을 낮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생활적응의 증가가 멈춘 것은 학업 부담이나 누적된 학습부진 등 환경 변화 요인들이 미치는 영향력으로 학교생활적응이 더이상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외부 강사나 지역의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및 학교 특성에 맞는 기초학력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누적된 학습 부진 해소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문화적응스트레스,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성장변화에 따른 종단적 관계는 어떠한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도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미하지 않았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 초기값과 변화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주변 환경 체계와의 갈등을 유발하고 삶의 만족을 저해할 수 있다는 Hovey & Magaga (2002)의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성장 과정에서의 다문화적 배경이 삶의 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추론하게 한다. 결국,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는 이들의 다름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갈등을 유발하는 환경적 요인과 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이 다문화적 특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공통적 역량향상 차원에 집중해야 함을 의미한다. 즉, 한국에서 나고 자란 다문화 청소년을 지나치게 특수집단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들의 다문화성을 부가적 특수요인으로 조명하는 정책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이 자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 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통합유형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학교에서 다문화 청소년, 일반 청소년, 다문화가정 학부모, 일반가정 학부모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 다문화 청소년이 이중문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둘째,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으면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 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 초기값에 매우 유의미하게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아존중감 변화율에는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지면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문화 청소년에게 가정 내·외에서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를 무시하고 일방적 한국문화수용을 강요하는 동화전략을 사용할 경우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은선경(2010)의 연구와 일치 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자아존중감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은 자아존중감의 변화율을 유의함을 예측하는 이들의 종단적 관계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이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하면 자아존중감은 더디게 감소하지만,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은 빠르게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아존중감 초기값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초기값 간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감소시키는 매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간의 자아존중감의 종단적 매개 효과를 검증한 결과에서도 자아존중감 변화율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부적 영향을 줄여주는 매개 효과가 있음이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이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Ullman & Tatar(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남윤주·이숙, 2009, 백지숙 외, 2014; 박은민, 2013)에서도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를 높게 인식한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아존중감의 감소 폭이 클수록 삶의 만족도가 더 빠르게 감소한다는 본 연구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은 물론 시간이 흐를수록 그 감소 폭이 급격히 증가한다는 김소영·윤기봉(2016)의 연구와 일치한다. 결국, 청소년기의 자아존중감은 삶의 만족도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내적 요인이며 다문화 청소년에게도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내적 요인이라고 한 구현영 등(2006)과 김평화(201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 정서로부터 위축된 심리상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자신의 부정적 감정 상태를 원상회복하게 하는데 보호 기제로서 작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Day & Jankey(1996)의 연구에 의하면 자아존중감은 자신의 경험에 대한 주관적 해석의 의미이기 때문에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경험은 스스로 긍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반대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이 자신을 둘러싼 특별한 환경에 대해 배타적으로 인식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정서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중문화의 특성과 이중언어 구사 능력,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이해와 현지 연계능력은 세계화를 위한 메신저 역할수행을 하는 미래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은 학교생활적응 초기값과 변화율에 유의미한 정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은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은 문화적응스트레스를 낮추는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선행연구들은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은 문화적응스트레스와 관련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는 연구(Yeh and Inose, 2003)와 감소한다는 연구(김평화·윤희미, 2020; 봉초운 외, 2018; 김은경·김종남, 2016; 은선민 외, 2019; Ying et al., 2005),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한다는 연구(Phinney, Horenczyk, Liebkind and Vedder, 2001)들은 일치되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해 왔다. 이러한 상이한 결과들은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에 따라서 특성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출생하였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은 중도입국 청소년이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 탈북 청소년 등과 달리 태어날 때부터 우리 사회의 문화에 지속해서 노출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또한, 외국인 출신 부모의 영향으로 가정 내 문화와 사회 주류문화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흐름에 따라 빠르게 주류문화를 내면화하기 때문에, 문화적 차이는 크지 않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박동진, 2019; 이상균 외, 2012; 이지영, 2016; 전수정·윤혜미, 2013; 이덕희, 2016; 차한솔, 2020; 손한결, 2020)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상과 같이 높은 수준의 문화적응스트레스를 경험하거나 낮은 수준의 학교생활적응으로 어려워하는 다문화 청소년일 경우, 특별한 개입이나 적극적인 지원이 없다면 이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고, 누적되어 그 영향력은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높고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경우는 조기개입이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개별적이거나 이벤트성 정책으로 보여주기식 개입방법보다는 학교 현장 안에서 학교생활적응을 위한 지원에 초점을 맞춘 접근이 필요하며, 이런 지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때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된다.

3.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종단매개 효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상호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 변인으로 선정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독립변수인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종속변수인 삶의 만족도 간의 경로에서 두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

유의미성을 통계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밝혔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 형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재확인함과 동시에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변화에도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율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측면을 보여준 것이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서 매개한다는 전수정·윤희미(2013)와 손한결(2020)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낮아질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아지며, 그 결과 학교생활적응을 더 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과 삶의 만족도 초기값 간의 경로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 초기값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초기값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 검증결과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간의 경로에서 모두 유의미하게 매개 작용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 변화율에 미치는 영향도 유의미하였다. 다시 말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문화적응스트레스 변화율과 삶의 만족도 변화율 사이에서 유의미하게 매개변수로 기능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적응스트레스가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에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난(안선정 외, 2013)의 연구와 일치하며, 그밖에 다문화 청소년 대상 횡단적 접근 연구(박동진·이지연, 2019; 김지혜, 2019)와도 일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내적 요인이라고 한 구현영 등(2006)과 김평화(2019)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이들의 삶의 만족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 변화율이 매개 효과가

있었다는 것은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립하는 초기 청소년기의 긍정적 자아존중감 형성이 이후 발달과정에서도 누적적 영향을 미쳐 이후 삶의 만족도에도 꾸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초기값과 변화율은 삶의 만족도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고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초기값과 변화율을 매개로 하여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 및 삶의 만족과 관련된 문제들을 다문화로 해석했던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관점을 제시해주고 있다. 실제로 일반 청소년이 급격한 환경의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다문화 청소년을 둘러싼 이중문화환경은 이들에게 분명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매개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높은 자아존중감 형성과 건강한 학교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이른 시기부터 조기개입이 필요하며 생애주기별 성장 과정에 맞는 지원체계를 운영함과 동시에 지역사회와 학교 현장에서는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제2절 연구결과의 시사점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에서 개인 내적 요인인 자아존중감과 개인 외적 요인인 학교생활적응의 중단매개 효과 분석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에 제시한 이론적인 시사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외국인 인구 유입 및 다문화 청소년의 증가로 한국이 다문화사회로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서 Berry의 문화적응이론 네 가지 유형을 구분하지 않았지만,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문화적응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어 이들이 비주류인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를 수용하기보다는 주류문화 흡수를 강요하는 경향이 있고 이는 수용하면서 개인별 차이가 있음을 통해 Berry의 문화적응 유형 중 동화주의 양상을 띠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단일차원 문화적응 이론을 반영하는 것으로 주류문화인 한국문화의 관여도가 높아지고 상대적으로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수용이 배제되었을 것으로도 유추할 수 있다. 이는 Berry의 동화유형인 문화적응 과정에서 주류문화를 받아들이기를 고집하고 비주류문화를 배제하는 것이며, 한국 사회가 더욱 유연하고 포용적인 다문화사회로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서는 통합유형인 주류문화와 비주류문화를 모두 흡수하는 다문화주의를 받아들여 다문화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 마련이 필요하다.

Berry의 이론을 바탕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에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본 연구는 이들의 독특한 문화적 특성이 위험 요소로 간주하여 부정적 발달을 초래한다는 결핍관점에서 벗어나 통합적 차원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이를 두고 있으며,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영향력을 확인하고,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적응의 매개 효과의 구조적인 관계를 밝혀내어 좀 더 통합적인 시각을 제공해 주었다는 점에서

기존 횡단적 접근 연구와는 차이가 있다.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관련한 연구들은 횡단 연구를 주로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와는 달리 종단연구 방법론을 사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다문화 청소년이 주류문화에서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만족도 향상에 관심을 두고,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에서는 현실성 있는 정책 발굴과 다문화 인식 제고를 통해 이들이 한국사회의 미래 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세부 실행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 이해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문화와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가 균형을 이루면서 통합할 수 있는 개입전략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이들이 한국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거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가 장기적 관점에서 이들의 삶의 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 감소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이들이 어머니 나라의 문화 정체성을 받아들이고 우리 사회 문화를 계승할 수 있도록 통합유형의 다문화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한국의 다문화 청소년은 다문화가족 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문화와 언어교육, 상담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그램은 한국문화 이해와 한국어 습득을 통해 한국사회의 빠른 적응과 통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사회적 분위기가 단일 민족을 중시함에 따라 타문화 수용에는 우호적이지 않아 다문화 청소년은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요구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문화정체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없는 사회에서 이들이 성장한다면 다문화 청소년들은 차별적인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며, 이로 인해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에게 제공되고 있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 제고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들은 한국인

으로서의 강한 정체성을 갖고, 한국어나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등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 사회적응과 관련된 서비스가 집중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이처럼 다문화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무분별한 서비스 제공은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에게는 낙인이 되어 이로 인한 스트레스를 심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제공되고 있는 다문화 지원 프로그램이 다문화 청소년이 한국문화에 동화되기를 압박하거나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게 하여 주변화 되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지 고민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서는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차원에서 봉사활동이나 국제교류 활성화 프로그램 등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 역량을 강화해 주는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하다. 한국문화와 외국 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가 상호작용하며 문화적응을 조화롭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은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 적응과 발달을 도모할 수 있으므로 한국문화와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로 서로의 문화적 특성 이해와 존중을 위한 교육환경 마련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뿐만 아니라 선주민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집단에 대한 문화 수용성 향상을 위해서는 다문화 인식 개선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타문화를 존중하는 다문화 수용성 및 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일례로 독일의 힐링스캠프 초등학교의 온종일 학교는 지역 대학,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전문가 협의 등 학교와 지역사회 전문가와 주민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아동들의 적응과 통합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에도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와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을 대상으로 다문화 교육과정 및 워크숍 등 운영하여 다문화에 대한 민감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 내의 교육 운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국가 간의 경계를 넘어서 세계 각국이 활발히 교류하며 소통하는 사회로 변화됨에 따라 이러한 사회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단일

국가 문화에만 익숙해지기보다는 여러 문화적 경험을 통해 다각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정책도 이에 맞추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결과로 향후 한국문화와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수용 태도를 가진 다문화 청소년이 두 나라 간 문화적 교류를 위한 교량적인 역할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인재로서도 중요한 역할수행을 할 것으로 본다.

셋째, 본 연구에 사용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자료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가 시간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변화양상을 보이는지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다. 기존의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대부분 소규모 사례를 기초한 횡단적 접근으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자료는 전국적 대표성이 있고, 표본의 크기가 크며 다양한 변인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를 파악하고자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종단분석을 시도하여 기존의 횡단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였다. 그동안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된 연구는 대부분 특정 시점에서 현상을 이해하는 횡단 연구에 그쳤다. 이는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종단데이터의 부재로 이들에 대한 삶의 만족도 변화과정을 확인하는 연구에 한계가 있었으나,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데이터가 오픈되면서 종단적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이 문화적응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를 종단적인 예측 변인으로 설정하여 성장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 변인의 종단적 변화에 따른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의 발달궤적에 따른 변화과정의 확인 결과는 이들에 대한 일반화 적용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이를 정책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미가 있다.

2.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 변화양상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는 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성장주기를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 수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학교생활적응, 한국어 능력습득 외에도 먼저 고려되어야 할 요인이 심리적응 능력이다. 국내에서 출생한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은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스트레스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청소년기에 심리적 스트레스 지수가 높다는 것은 이들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학습이나 학교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도 이들의 요구에 부합되게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다문화 청소년들의 심리적응을 위한 지원방안 중 하나로 화상을 통한 온라인 상담의 확대이다. 청소년들의 특성상 온라인 활동에 심리적 부담을 덜 느낄 수 있어 온라인을 통한 상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부의 Wee센터, Wee 클래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 등에서 온라인 화상상담 시스템을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다문화 청소년 상담 매뉴얼과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언어소통의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해 상담통역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 화상상담 시 통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다문화 청소년이 성인으로 성장하여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상담이 필요함에도, 이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진로상담 프로그램은 제한적이다. 이들은 일반 청소년들과는 다른 진로장벽을 경험할 수 있으며, 독특한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진로상담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교육부(2017)의 「진로상담(지도)

운영 매뉴얼」에도 언급되어 있듯이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은 심리지원이다. 진로에 대한 어려움뿐 아니라 다른 여타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진로상담을 통해서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학교 현장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진로상담이 좀 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영역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문화 관점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활동을 구성하고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연수교육도 함께 진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공적 지원보다 가정 안에서 부모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부모교육의 중요성은 학교나 지역사회 다문화 청소년센터 등에서 공통으로 언급하고 있다. 정부 차원의 공적 지원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부모들 스스로가 본인 자녀에 대한 교육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격차는 해소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에 다문화가정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해 역할을 정립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에 부모교육을 포함하고 추진하는 것이다. 먼저, 법무부의 국제결혼이민자 대상 교육프로그램에 부모교육을 의무화하는 것이다. 이 교육은 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의 문화 적응을 위한 교육이지만 이들은 모두 결혼이민자이므로 결국 부모가 될 것이라 가정하고, 부모교육을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은 성장주기별 교육 강화 방안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학 등 단계별 부모교육 시스템 개발로, 한국의 학교시스템에 대한 정보가 없는 다문화가정 부모들을 위해 자녀가 학교에 입학하면 부모가 챙겨야 하는 세세한 일상 정보부터 진학 정보까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내용을 담은 프로그램이 요구된다. 이러한 실질적인 부모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사회와 학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모두 협력하여 모형을 개발하고 다문화가정 학부모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3. 실천적 시사점

본 연구의 실천적 시사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생애주기별 원스톱 지원이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은 초등학교 4학년 시점에 문화적응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이후에는 계속해서 감소한다는 연구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생애주기별 개입 중요성을 시사한다. 다문화 청소년들의 문화적응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피부색과 외모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리 사회적인 부분에서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현행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여성가족부와 교육부에서 주관하고 있고 각 부처 차원에서 다문화가족 관련 정책들은 제공되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다문화 정책들은 시행되고 있지만, 다문화 청소년들은 다문화 자녀라는 이유로 거부당하거나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에 학교에서는 교사가 중심이 되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고 유·초등 시기부터 문화적응스트레스 지수를 낮출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되어 청소년기로 성장하기까지 생애주기별 교육이 지속해서 연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청소년기에 삶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현상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맞물려 상급학교 진학 시 학업 중단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생애주기별 연속적 지원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다문화 청소년이 본인의 어려움을 들어내어 상담할 수 있는 학교나 지역사회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상담교사, 교육 복지사, 학교사회복지사 등의 전문가가 체계적으로 사례관리 할 수 있도록 유기적인 협조 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공적 기관과 민간기관이 유아기 언어발달, 아동기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진로 지원 서비스까지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생애주기별 통합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고 이를 보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협력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외국출신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높을수록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삶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외국인 어머니가 지닌 다양한 문화적 변인을 통해 외국출신 어머니와 다문화 청소년 간의 문화적응 방식 및 영향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향설정이 필요하다.

법무부(2022)의 「출입국 통계」 자료에 의하면, 한국 사회에서 체류 외국인이 195만 명에 이르고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 가정, 북한 이탈주민 가정의 다문화 청소년들은 이제 우리 지역사회와 학교에서 중요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이해와 교육은 이젠 동화가 아닌 공존의 관점에서 이루어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인종적,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다문화 환경을 자신의 정체성 일부로 받아들이면서 한국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다문화 특성을 반영한 학교 교육 현장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교육이 이젠 일반 청소년을 위한 다문화 교육과 함께 이루어져 모든 학생이 다양한 구성원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소수에 대한 특별한 배려나 단순한 적응이 아닌 한국 사회에서 일반 청소년과 동등한 출발선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어야 하고 이들이 가진 다양성과 재능을 계발하여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실천적인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제3절 향후 연구 방향

위에서 제시된 연구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에는 몇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본 연구에 사용된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다문화 청소년을 포함해 표본으로 추출하려 했으나,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여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여성가족부(2018)의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자료에 의하면 결혼이주여성 출신 국가별 분포는 베트남, 중국, 필리핀,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이주 시기 별 나타난 외국출신 어머니의 국가별 배경 차이는 자녀 양육 환경과 성장 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나타난 결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는 외국출신 어머니의 문화적응 방식에 따라서 다문화 청소년이 느끼는 문화적응스트레스의 영향력 또한 상당한 차이를 보일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외국출신 어머니와 다문화 청소년 간 문화적응 방식의 상호 연관성과 수용 가능한 범위는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연구에서는 외국출신 어머니 나라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과 특성을 고려한 연구를 통해 외국출신 어머니와 다문화 청소년 간의 문화적응 방식 및 영향 관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의 방법론 외에도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들이 진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데이터를 사용한 양적 연구방법론을 사용하였다. 양적 연구 분석은 다수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이를 계량화된 수치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은 있으나 개개인의 문화 적응과정에서 한국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나 형성과정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다음에는 질적 연구와 같은 다양한 연구방법론을 활용하여 개개인의 다양한 문화적응 상황을 심도 있게 파악할 수 있는 연구들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은 일차적 환경인 가족과 부모 간 상호작용이 매우 중요하다.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는 어머니의 문화적응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실제로 어머니 요인은 청소년의 발달 영역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부모와 조부모, 자녀 간 문화적응스트

레스의 상호 연관성은 반영하지 못하였다는 한계에 직면한다. 따라서 부모와 조부모, 다문화 청소년 간 문화적응 양상을 살펴보고, 이들의 성장에 필요한 사회적 지지원으로서 부모, 조부모의 요인까지 고려한 분석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분석자료는 국제결혼을 통하여 국내에서 출생한 다문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로 다문화 청소년의 삶의 만족을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는 외국 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중도입국 청소년, 북한 이탈 청소년 등 다양한 다문화 청소년이 존재하고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중도입국 청소년 및 외국 출생 다문화 청소년과 본 연구 대상인 국내 출생 다문화 청소년의 유형에 따른 특성을 비교·분석하여 이들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간의 영향력과 상호관련성을 집단 비교한다면 다양한 양상을 발견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차별화되고 유형화된 다문화 청소년을 위한 정책지원과 실천방법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국내문헌>

- 강상진·전민정(2006). “고교평준화정책과 고교생의 친구관계와의 상호작용이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교육, 33(4), 121-140.
- 강유선(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이중문화수용태도의 발달के적과 발달 산물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유진·문재우(2005). “청소년 학교적응에 대한 가족요인의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6(1), 283-315.
- 강윤아·신태수(2018). “부모와 자녀의 삶 만족도가 학교 적응에 미치는 인과적 전이관계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9(3), 185-211.
- 강화 (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심리적 부적응의 관계: 적응유연 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호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곽금주(2008). “다문화가정 아동의 발달과 적응”.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08(1), 1-26.
- 곽수란(2006). “청소년의 학교적응도분석”. 교육사회연구, 16(1), 1-26.
- 교육부(2020) 「교육기본 교육통계」
- 교육부(2020).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20). 출발선 평등을 위한 2020년 「다문화교육 지원계획」
- 교육부(2021) 「교육통계」
- 구현영·박현숙·장은희(2006). “고등학교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영향 요인”.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6(1), 151-158.
- 국토연구원(2009). “그랜드비전 2050: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미래변화 전망분석”.
- 권석만(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서울: 학지사.
- 금명자·이영선·김수리·손재환·이현숙(2006). “다문화가정 청소년(혼혈 청소년) 연구: 사회적응 실태조사 및 고정관념 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상담원.

- 김갑성(2008).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18(1), 58-95.
- 김계수(2009). “『잠재성장모델링과 구조방정식모델』”.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계수(2017). “잠재성장모델링과 구조방정식 모델분석”. 서울: 한나래출판사.
- 김남정·임영식(2012). “청소년 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청소년활동의 중재효과. 청소년학연구, 19(8), 219-240.
- 김동하(2014). “가구소득, 부모우울, 청소년 공격성 간의 종단적 상호교류관계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미지(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개인 심리 및 환경 변인과 학교적응 간 상관 관계에 대한 메타분석”. 경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민주·윤기봉(2018). “사회적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 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3(1), 373-388.
- 김민형(2016). “긍정적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분석”.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보미(2007). “외국인 이주노동자 자녀의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문화적응 스트레스, 차별경험,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서정(2019).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전략과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 분류 및 적응특성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소영·윤기봉(2016).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추정: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에 대한 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2), 271-296.
- 김소영·홍세희 (2019). “외국인 학부모의 문화적응유형 프로파일이 청소년 문화적응 스트레스의 종단적 변화유형에 미치는 영향: 잠재전이 분석을 적용하여”. 조사연구, 20(3), 1-32.
- 김송렬(2020). “이주 배경 중도입국 다문화 청소년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연구: 이주민 밀집지역의 영향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숙정(2013). “음악극 만들기 경험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자기표현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순규(2011). “다문화가정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 청소년학연구, 18(3), 247-272.
- 김순규(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19(6), 109-128.
- 김승권·김유경·조애·김혜련·이혜경·설동훈(2010). “2009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여성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신경·박민경·안지선(2014). “학교생활적응과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행동유형의 조절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16(2), 163-182.
- 김신영·임지연·김상욱·박승호·유성렬·최지영·이가영(2006). “한국청소년 발달 지표 조사 1: 결과부문 측정지표 변경”.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161.
- 김아영·김수인(2011). “여성국제결혼가정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관련 심리적 특성 비교”. 교육심리학회, 25(4), 853-873.
- 김영민·임영식(2013).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잉적 양육, 자아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5(2), 343-366.
- 김영은(2014). “교과교육학: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경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윤리교육연구, 33, 53-81.
- 김용래(2000). “학교학습동기척도와 학교적응척도의 타당화 및 두 척도 변인간의 관계분석”. 홍익대학교 교육연구소 교육연구논총, 17, 3-39.
- 김유미(2011).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윤희·김현숙(2016). “초기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성별 및 애착 관계의 영향”. 상담학 연구, 17(3), 337-354.

- 김은경·김종남(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의 관계: 자아정체감의 매개효과와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다문화교육연구, 9(4), 21-43.
- 김은혜·CUILINA·노충래(2019). “다문화청소년이 인식한 가족지지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 자아탄력성과 학교생활적응 매개효과, 다집단분석-”. 한국아동복지학, 68, 87-114.
- 김재엽·이동은·정윤경(2013). “청소년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자원 봉사 활동의 조절효과”. 한국청소년연구, 24(3), 99-126.
- 김종백·탁현주(2011). “교사의 다문화 교육 인식과 다문화가정 학생의 학교적응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8(10), 161-185.
- 김주환·김민규·진영재(2008). “미디어 이용이 후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잠재성장모형을 통한 17대 대선 패널 데이터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정보학보, 76-107
- 김주환·김민규·홍세희(2009).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지은·정혜린·박혜준·이순형(2017). “지역아동센터 지지와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 관계에서 문제해결능력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38(5), 19-32.
- 김지혜(2012). “청소년 봉사활동이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을 매개로 공동체 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봉사활동 시간과 주관적 만족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4(1), 41-62.
- 김지혜(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우울과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시설환경, 7(3), 115-124.
- 김진아(2016).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학업성취도 간의 종단적 관계”. 상담학연구, 17(2), 303-326.
- 김평화·윤혜미(2020).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 25-53.

- 김평화(2019). “다문화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자아존중감과 삶의 만족도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 다변량 잠재성장모형 분석”. 충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현숙·김옥녀·윤은영(2018). “다문화가정 아동의 부모자녀관계, 문화정체성, 우울·불안, 사회적 차별감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 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다문화사회연구, 11(1), 345-375.
- 김현주(2019)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청소년의 공동체의식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종단연구 -또래의사소통과 진로정체감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현철·모상현·오성배·김선희·백송이(2015). “다문화 청소년 종단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미·문혜진(2013).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과 비다문화가정 (한국인 부모 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적응 비교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5(4), 7-31.
- 김혜원·홍미애(2007).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질 정도와 설명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14(2), 269-297.
- 김효선·이동귀·배병훈(2012).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 적응적 방어기제의 조절효과,” 상담학연구, 13(6), pp. 2641-2656.
- 김희경(2011).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나재은(2017).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적 건강에 관한 메타분석. 한국청소년상담학회지, 2, 1-22.
- 남윤주·이숙(2009). “다문화가족과 한국인 부모 아동의 모애착, 자아개념, 일상적 스트레스, 우울 비교”. 한국지역사회과학학회지, 20(3), 357-367.
- 노경섭(2016).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21』. 서울: 한빛아카데미.
- 노보람·정정화·최나야·이강이(2019).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대한 외모만족도와 한국어 능력의 종단적영향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and Environment Research, 57(3), 407-417.

- 노충래(2000). “로즈버그의 자긍심척도와 집단자긍심 척도를 활용한 교포청소년의 심리정신건강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0, 107-135.
- 노충래·윤수경·김신영(2018). “국내 난민아동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63, 23-53.
- 노충래·홍진주(2006). “이주노동자 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실태 연구 : 서울경기 지역 몽골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22, 127-159.
- 다문화가족지원법(2014).
- 류방란·김경애·이재분·송혜정·강일국(2012). “중등교육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모상현(2018).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위축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67-93.
- 문두식·최은실(2015). “부모의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청소년학연구』, 10, 213-236.
- 문수백(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학지사, 661-667.
- 문영희·안은미(2010).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이중문화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복지학, 33, 47-68.
- 민병수(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영순(1994). 교육심리학. 서울: 문음사.
- 민하영·권기남 (2004). “저소득층 아동의 학교적응: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 행동과 아동의 자아정체감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5(2), 81-92.
- 박계란·이지민(2011). “다문화 가정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9(2), 89-100.
- 박난숙·오경자(1992). “Methylphenidate 치료가 주의력결핍 과잉활동아의 인지·행동 및 사회, 학습, 정서적 적응에 미치는 효과”.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11(1), 235-248.
- 박동진(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교사 지지의 조절효과 분석”. 융합정보 논문지, 9(9), 175-184.

- 박동진·김송미(2021b). “다문화 청소년의 이중문화 수용태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웰니스학회지, 16(2), 267-273.
- 박동진(2022).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사회적 위축, 우울의 종단적 분석: 성장혼합모형과 인과적 전이 관계 분석을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박미정·유난숙(2017).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관련된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9(2), 67-84.
- 박샤론(2010).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순희·조원탁·이주희(2008). “다문화가족 자녀의 사회적응과 관련변인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27, 53-76.
- 박승민·장민철·김은하(2015). “시간에 따른 자아존중감 변화에 대한 중고등 학생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7(1), 63-84.
- 박용한·이신동(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초-중 전환기 학교적응 및 학업 성취 발달 요인에 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5(4), 1-19.
- 박은민(2013). “다문화 청소년의 생활경험 지각에 관한 질적 연구”. 인간발달 연구, 20, 1-21.
- 박진우·장재홍(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심리적인 요인, 「청소년학연구」, 21(4), 133-154.
- 박정희·장영애(2008). “부모의 양육행동 및 부모 자녀 간 의사소통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3(2), 69-85.
- 박주희·남지숙(2010). “다문화아동의 언어발달과 심리사회적 적응”. 한국청소년 연구, 21(2), 129-152.
- 박현선·이채원·노연희·이상균(2012). “다문화가정의 이중언어·이중문화적 양육환경이 자녀 발달에 미치는 영향 - 어머니 양육참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365-388.

- 박희서·김구(2006). 『사회복지조사방법론』. 서울: 비엔엠북스.
- 박희훈·이유정(2019).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가정 내 사회적 자본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다문화정체성 인식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5(1), 725-743.
- 박희훈·오성배(2014).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급별 학교생활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교육문제연구, 32(2), 35-57.
- 배경희·이수천(2014). “개인·친구·부모·학교요인이 청소년의 심리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일반청소년과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비교중심으로”. 한국복지패널학 학술대회논문집, 7, 219-246.
- 배병렬(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도서출판 청람.
- 배은경·강화(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심리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적응유연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62(1), 131-164.
- 백소영·이준우·임수정(2018).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에서 보호요인인 또래요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0(4), 109-136.
- 백수진·임영진(2013). “친절한 청소년은 왜 행복한가?: 친절성, 사회적 지지 및 삶의 만족도의 관계”. 청소년상담연구, 21(2), 25-36.
- 백승희·전현정·이정민(2018). “모와자녀가 지각한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간의 종단적관계-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한국복지패널학술대회 논문집, 11, 103-126.
- 백승희·전현정·이정민·정혜원(2019). “모와자녀가 지각한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30(2), 93-118.
- 백승희·정혜원(2017). “성장혼합모형을 적용한 다문화수용성의 발달양상과 공동체의식의 변화에 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8(1), 151-182.

- 백지숙·김진·유영하(2013).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관한 연구: 인구배경학적 요인, 개인심리적으로인, 사회환경적 요인을 중심으로”. 청소년시설환경, 11(4), 157-170.
- 백지숙·김진·정효경(2014). “인구배경학적 요인, 자아존중감, 의사소통, 사회적지지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전남지역 다문화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비교”. 청소년시설환경, 12(1), 127-141.
- 백한숙(2010). “다문화 여성의 한국어 학습을 활용한 집단상담이 자아존중감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국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법무부(2021)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법무부(2022)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부향숙·김진한(2010). “미국 인종 및 민족 정체성 발달 이론으로부터 조망한 다문화가정 자녀의 생애 발달 이해”. *Andragogy Today: International Journal of Adult & Continuing Education*, 13(4), 59-89.
- 서보준(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조절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4(3), 111-133.
- 성수나(2020) “인지심리 상담이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정체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영우(2016). “다문화 아동·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생태학적 요인에 관한 연구”.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2), 55-102.
- 서진희(2012).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불안, 우울, 자아존중감 비교”.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서희정·윤명희 (2018). “중고등학교 졸업예정 청소년의 진로정체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연구논총*, 39(1), 71-98.
- 서현석·김태균(2020). “가족지지가 다문화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효학회*.
- 석말숙·구용근.(2015). “가족요인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7(1), 55 - 74.

- 선남이(2013).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사회적 배제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설동훈·윤홍식(2008). “여성결혼이민자의 사회경제적 적응과 복지정책의 과제: 출신 국가와 거주 지역에 따른 상이성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연구, 24(2), 109-133.
- 설진배(2018). “갈등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배경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다문화수용성,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평화학 연구 19(1): 307-331.
- 성경주·김재철(2017). “청소년의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 대한 자기회귀교차 지연 효과 검증”. 청소년학연구, 24(8), 383-406.
- 손보영·김수정·박지아·김양희(2012). “바람직한 부모양육태도가 초기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학교생활적응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성차비교”, 한국청소년연구, 3(1), 149-173.
- 손영미(2012). “청소년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순천대학교 사회문화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한결(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이중문화적응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안정성과 상호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송선진(2007).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사회화 과정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다문화교육을 위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송수지·김정민·남궁지영(2012). “청소년 동아리활동 경험이 자아개념 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 121-147.
- 송순택(2014).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자아탄력성과 가족기능, 학교문화적응 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승민·이유현(2012). “초등학생들의 자아존중감이 자기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19(9), 25-46.
- 송정화(2011). “다층모형을 적용한 학생 행복의 설명요인 탐색”.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현주·황순택(2016).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만족간의 관계: 자기회귀 교차지연 모형을 이용한 종단자료의 분석”. 청소년복지연구, 18(4), 25-46.
- 신미·전성희·유미숙(2010). “청소년의 삶의 만족과 안녕에 관한 요인 연구”. 청소년학연구, 17(9), 131-150.
- 신미·전성희·유미숙(2012). “초기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분석”. 아동학회지, 33(1), 81-92.
- 신민자(2005). “집단미술치료가 필리핀 이주여성의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우울에 미치는 효과”.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주(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자아정체감에 미치는 영향”, 상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신정미·황혜원(2008). “가족소득, 자아존중감,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복지연구, 10(3), 101-122.
- 신정희(2010). “다문화가정 어머니의 문화접변태도,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탐색”.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신혜정(2007). “다문화가정 자녀의 자아정체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미영·이들녀·박종옥(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사회적 지지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이중문화적응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25, 233-254.
- 심미영·이들녀(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3), 241-251.
- 안선정·이현철·임지영(2013).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자녀갈등, 또래관계,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1(2), 77-91.
- 안수빈·강보람·이강이(2017). “아동의 미디어 이용시간, 문제행동, 학교생활적응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학회지, 38(2), 191-204.

- 안혜진(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스트레스와 삶의 만족도 관계에서 자아탄력성과 사회적지지의 조절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2), 789-807.
- 양계민(2016). “중단연구분석을 통한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발달과 정책과제”. 다문화아동청소년연구, 1(3), 3-21.
- 양계민·강경균·김주영(2017). “다문화청소년 중단조사 및 정책방안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김승경·김윤영·정소희·이정미·박선영(2012). “다문화가정아동, 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중단연구Ⅲ”.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연구보고서, 1-487.
- 양계민·황진구·연보라·정윤미·김주영(2018). “다문화청소년 중단연구 2018: 총괄보고서(연구보고 18-R14)”.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양계민·정윤미·정윤선(2021) “이주배경청소년실태조사”, 한국청소년연구원, 20-23.
- 양미진·이동훈·고홍월·김영하·남현주(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여성가족부(2013). 2012년 전국 다문화가족 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9). 2018년 전국 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2018) 전국 다문화가정실태조사, 여성가족부.
- 오성배(2005). “코시안 아동의 성장과 환경에 관한 사례연구”. 한국교육, 32(3), 61-83.
- 오승아·유준호(2017). “우리나라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 청소년 활동, 또래 애착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 아동교육, 26(3), 207-222.
- 오영경·이형실(2010). “청소년의 행동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2(4), 51-64.
- 오정아(2019). “다문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유형과 학교적응에 대한 메타분석”. 한국사회복지, 45, 159-182.

- 오해섭·최인재·염유식(2018).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조사 및 조성사업연구Ⅳ: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조사 분석 및 청소년 동아리활동과 마을공동체 지원방안”. 한국청소년정책연구.
- 유희정(2015). “문화적응스트레스 및 정서조절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우울/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6(3), 551-563.
- 유경훈(2013).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적응, 자존감, 삶의 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14(6), 2700-2706.
- 유봉애·옥경희(2013). “사회적 지지가 다문화가족 아동의 학교적응력, 정서조절력, 사회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18(4), 511-538.
- 유순화(2008). “중학교 신입생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청소년학연구, 15(7), 157-180.
- 유안진·이점숙·이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애착, 탄력성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유창민(2017). “우리나라 청소년의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의 변화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아동복지학, 59, 25-58.
- 윤은영(2019). “자기회귀교차 지연모델을 적용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성취동기, 학교적응의 종단적 관계 연구”. 다문화와 평화, 13(2), 1-22.
- 윤지영·허은정(2017). “다문화가정의 부모효능감, 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 간 관계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문화연구』, 23(6), 775-798.
- 은선경(2010). “다문화가족 자녀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33, 37-74.
- 은선민·이수현·이강이(2019).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변화 궤적 유형화: 유형 예측요인과 유형별 심리·사회적응”, 한국청소년연구, 30(2), 177-211.
- 이경상·백혜정·이종원·김지영(2011). “한국 아동 청소년 패널조사 2010 II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기중(2012). “『구조방정식 모형: 인과성·통계분석 및 추론』”. 국민대학교 출판부, 개정판.

- 이덕희(2016).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학교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원, 스트레스 대처의 매개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17(1), 544-552.
- 이봉주·민원홍(2015). “아동,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외현화 문제 간의 종단적 인과관계”. 청소년학연구, 22(8), 335-361.
- 이상균·박현선·노연희·이채원(2012). “다문화가족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문화자본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복지학, 38, 235-264.
- 이상록·김은경·윤희선(2015). “청소년의 행복감이 청소년 발달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26(4), 413-438.
- 이소희·최운선(2008).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문화 정체감과 사회적 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2(3), 163-185.
- 이수연(2009).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조기유학생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학교생활 만족도의 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6, 45-62.
- 이순성(2010). “청소년 삶의 만족도와 관련 변인의 종단적 추이 분석”.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영예·안권순(2013). “초등학생의 자아존중감과 성격 특성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0(11), 257-281.
- 이영애 정현희(2016). “초기 청소년의 학교적응 변화양상과 예측요인”. 한국 청소년연구, 27(2), 187-214.
- 이영주(2007).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용택·이은경(2017).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변화와 부모 자아존중감의 관계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21-40.
- 이용택·곽현·이은경(2016). “청소년의 체험활동만족 및 참여수준과 삶의 만족에 대한 종단연구”. 청소년학연구, 23(2), 345-370.
- 이지민(2007). “아동, 청소년상담: 자아정체감과 학교 적응이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8(4), 1593-1603.

- 이지숙(2009). “청소년 문제행동을 완화하는 보호요인 연구: 조절 요인과 Suppressor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1(4), 281-300.
- 이지애(2008). “다문화가정 아동과 일반가정 아동의 학교적응에 관한 비교연구: 자아존중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지연·그레이스정(2016). “다문화청소년의 차별경험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대처전략의 조절효과”. 보건사회연구, 36(3), 336-362.
- 이지영(2016). “다문화가정 아동의 문화변용스트레스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심리교육복지, 3(1), 33-39.
- 이종찬(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와의 관계만족도가 우울, 자아존중감, 학교적응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문화연구, 25(2), 877-897.
- 이하늘(2013). “다문화가정 결혼이주자의 경제적 적응과 삶의 만족도: 글로벌 상향혼 현상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하리·이영선(2015). “청소년의 교사· 또래 애착과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3(2), 467-486.
- 이현송(2000). “소득이 주관적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 23(1), 91-117.
- 이현웅·곽윤정(2011). “초기 청소년의 학교생활 및 삶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변인 연구”. 한국청소년학연구, 18(7), 59-83.
- 이현정·손수경·홍세희(2018).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와 학교 학습활동 및 교우 관계 간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성별 간 다집단 분석”. 한국청소년연구, 29(1), 209-238.
- 이현주(2018). “청소년의 부모애착, 정서조절과 삶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교육심리연구. 2(4), 649-670.
- 이형하(2017). “중도입국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과 위험요인 분석 : 보호요인의 조절효과”. 디지털 융복합연구 15(12), 59-70.
- 이혜주·정의현(2018). “데이터마이닝을 이용한 청소년 삶의 만족도의 결정요인의 연차별 추이 분석”. 아동교육, 27(1), 199-214.

- 이희정(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정체성 변화과정과 학교 적응”. 한국사회학, 52,(1), 77-115.
- 임선아(2018). “다문화 청소년의 집단괴롭힘 경험과 학교적응: 자아탄력성과 도움을 주는 어른의 보호역할 검증” 『아동과 권리』 22(2), 195-214.
- 임종필(2017). “부모의 양육태도 및 학교 환경이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미·전종설(2013), 다문화가정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반가정 아동과의 비교, 가족과문화, 25(4), 182-213.
- 장선아(2021). “다문화청소년 문화적응스트레스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의 매개 효과 중심으로 -”. 동방문화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유진(2019).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프로파일에 따른 심리사회적 적응 및 학업성취의 차이”. 글로벌교육연구, 11, 26-51.
- 장혜림·이래혁(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지지가 자아존중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진로 결정 수준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47, 189-218.
- 전경숙·임양미·양정선·이의정(2010). “경기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생활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전미숙(20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 배우자 인식을 중심으로”. 순천향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수정·윤혜미(2013).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방임. 문화변용스트레스 및 자아존중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교사회복지, 24, 153-179.
- 전종미(2011).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임파워먼트에 관한 연구-다문화가정과 일반가정에 대한 비교”.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전푸르나(2010).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가정 자녀의 학교적응 비교연구”.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현정·정혜원(2016). “자기회귀교차 지연모형과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중단 매개효과 검증-부모의 부정적양육방식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녀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2), 215-242.

- 전혜진·유미숙(2015).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자아존중감, 진로성숙도 및 미시체계 변인의 경로분석”. 청소년학연구, 22(6), 75-104.
- 정득·이종석(2015). “청소년 자아존중감과 환경특성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73-284.
- 정윤희·봉초운·홍세희(2018).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변화와 영향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5(1), 181-210.
- 정익중(2018). “아동의 생활시간과 행복: 시간사용은 아이들을 행복하게 하는가?” 제15차 아동복지포럼 발표논문.
-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8(3), 127-166.
- 정지윤·문성호(2011).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18(8), 265-289.
- 조성연·김혜원·김민(2011). “생태학적 맥락에 따른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 대한가정학회지, 49(3), 87-98.
- 조성희·박소영(2015). “청소년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초기 청소년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23(4), 801-818.
- 조영달(2006).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서울”: 교육인적자원부.
- 조용재(2018). “결혼이주여성의 삶의 만족도가 자녀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 한성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한익·김영숙(2016). “청소년의 미래지향목표와 자아정체감, 공동체의식 및 진로정체감의 종단적 구조관계”. 교육심리연구, 30(4), 783-810.
- 차승은·유정균(2019).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외국인 어머니를 둔 청소년의 이주배경을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42(3), 55-81.
- 차한솔(202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 사회적 위축 및 국가정체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종단적 영향”.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천희영·이미란(2015). “다문화가정 초등학교 아동의 삶의 만족도 관련변인의 유형화”. 한국영유아보육학, 95, 1-24.
- 최경란·홍지영(2018).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문화적응스트레스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 연구, 29(1), 347-374.

- 최미원(2017). “청소년 전환기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에 대한 종단연구”. 충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최선화(2009). “다문화가정 아동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대전, 충남, 충북지역을 중심으로”.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성보·이현철·김경식(2011).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이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제1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학술대회 자료집, 348-369.
- 최유선·손은령(2015). “청소년이 지각한 대인관계 양상, 학업성취, 삶의 만족도의 관계-성별, 학교급별 비교”. 상담학연구, 16(2), 233-247.
- 최윤정(2019). “2018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연구”. 여성가족부, 5(3), 533-545.
- 최현주·하영진(2017). “다문화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영향요인 탐색: 개인 간/개인 내 변화를 중심으로”. 2017 다문화청소년패널 학술대회 자료집, 222-254
- 최효인(2017).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에서 보호요인의 효과 :자아존중감, 사회적지지, 종교생활 및 다문화교육”. 단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하재필·박성희(2012). “스포츠를 통한 이주민의 문화적응 및 민족적 정체성에 대한 이해”. 체육과학연구, 23(1), 105-120.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1).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발달과정 추적을 위한 종단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5).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VI: 데이터분석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7).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 데이터 설명 자료집”.
- 한상철(2012).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적응 유연성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4), 239-258.
- 한선영(2011).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스트레스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성희(2015). “부모양육방식 및 학교생활적응이 다문화가정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탄력성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한신애·문수백(2010). “학령기 아동의 자기효능감 관련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441-455.
- 한아름(2018). “부모의 삶의 만족도, 긍정적 양육행동,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5(5), 1-24.
- 한영수·송원영(2012). “또래애착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 제1차 학술대회 자료집.
- 한정애(2008).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의 학교적응과정분석”, 경성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혜령·김현숙(2010).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외모만족도 및 외모의식성이 학교적응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육문제연구, 28(2), 61-76.
- 행정안전부(2018)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
- 허미정·노미화·최연실(2016).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타심과 자기통제에 의한 또래관계의 조절된 매개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 학회지, 21(1), 29-49.
- 홍나미·박현정(2017). “부모방임이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회적 위축, 우울의 매개효과”. 한국복지실천학회지, 8(2), 125-151.
- 홍봉선·남미애(2007). 청소년복지론. 경기: 공동체.
- 홍세희(2000). “구조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 선정기준과 그 근거”.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1), 161-177.
- 홍세희·박언하·홍혜영(2006). “다층모형을 적용한 청소년의 자아개념 변화추정”. 한국청소년연구, 17(2), 241-263.
- 황윤미·방명애·김혜인(2018). “다문화가정 중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정서행동 특성”, 「특수교육논총」, 34(2), 101-115.
- 홍진주(2004). “몽골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의 심리 사회적 적응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홍태경·류준혁(2011). “성별과 연령에 따른 청소년 비행요인의 비교분석”. 한국치안행정논집, 8(3), 113-138.
- 황매향·최희철·임효진(2016). “청소년기의 또래애착, 자존감, 삶의 만족 사이의 종단적 관계”. 아시아교육연구, 17(3), 195-220.

황선영, 고재욱(2013). “다문화가족아동의 학교생활적응실태 연구”, 한국케어 매니지먼트연구, 8, 97-117.

황진(2017). “고등학생들의 신체활동과 시간에 대한 관점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6(2), 209-223.

<외국문헌>

Anusic, I. (2013). Development of cultural identity and well-being of immigrants: Analysis of a longitudinal study of immigrants to Germany. *Michigan State University*.

Austin, J. T., & Vancouver, J. F. (1996). Goal construction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 338-375.

Barnes, P. W., & Lightsey Jr, O. R. (2005). Perceived racist discrimination, coping, stress,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33(1), 48-61.

Battle, J. (1978).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and depression. *Psychological Reports*, 42(3), 745-746.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ic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 238-246.

Berry J. W. (2006) Acculturative Stress. In: Wong P.T.P., Wong L.C.J. (eds) *Handbook of Multicultural Perspectives on Stress and Coping*. Boston, MA: Springer.

Berry, J. W. (1997). Immigration, acculturation, and adaptation. *Applied psychology*, 46(1), 5-34.

Berry, J. W. (2005). Acculturation: Living successfully in two cultur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6), 697-712.

Berry, J. W., & Kim, U. (1988). *Acculturation and mental health*. In P. R. Dasen, J. W. Berry, & N. Sartorius (Eds.), Cross-cultural research and methodology series, Vol. 10. *Health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Toward applications*, pp. 207-236.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Berry, J. W., Kim, V., Minde, T., & Mok, D. (1987). Comparative studies of acculturative stress.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21(3), 491-511.
- Bierman, K. L. (1994). School Adjustment. In Corsini, R. J., and Ozaki, B. D.(ed.), *Encyclopedia of Psychology*. John Wiley & Sons.
- Branden, N. (1992). *Power of Self Esteem*. Barnes & Noble Books.
- Browne, M. W., & Cudeck, R. (1993). Alternative ways of assessing model fit In K. A. Bollen & J. S. Long (Eds.), *Tes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Newbury Park, CA: Sage.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New York: Sage.
- Cantor, N., & Sanderson, C. A. (1999). Life task participation and well-being: The importance of taking part indaily life. In D. Kahnemann, E. Diener, & N. Schwarz (Eds.), *Well-bing: The foundation of bedonic psychology*, pp. 230-243.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
- Castillo, L. G., Cano, M. A., Chen, S. W., Blucker, R. T., & Olds, T. S. (2008). Family conflict and intragroup marginalization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in Latino college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Stress Management*, 15(1), 43.
- Cohen, J. & Cohen, P. (1983). *Applied multiple regression correlation for the behavioral science*, 2nd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Cokley, K. O., & Chapman, C. (2008). The roles of ethnic identity, anti-white attitudes, and academic self-concept in African American student achievement. *Social Psychology of Education*, 11(4), 349-365.
- Cole, D. A., Maxwell, S. E., Martin, J. M., Peeke, L. G., Seroczynski, A. D., Tram, J. M., & Maschman, T. (2001). The development of multiple domains of child and adolescent self concept: A cohort sequential longitudinal design. *Child development*, 72(6), 1723-1746.
- Coopersmith, S. (1967). *The antecedents of self-esteem*. Palo Alto, CA: Consulting Psychologists Press.

- Coopersmith, S. (1968). Studies in self-esteem. *Scientific American*, 218(2), 96-107.
- Curran, P. J. (2000). A latent curve framework for the study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in adolescent substance use. In Rose, J. S., Chassin, L., Prsson, C. C., & Sherman, S. J. (Eds). *Multivariate applications in substance use research: new methods for new questions*. Lawrence Erlbaum associates. 1-42.
- Day, H. Y., & Jankey, S. G. (1996). Lessons from the literature: Toward a holistic model of quality of life. In R. Renwick, I. Brown, & M. Nagler (Eds.), *Quality of life in health promotion and rehabilitation: Conceptual approaches, issues, and applications* (pp.39-50). Thousand Oaks, CA, US: Sage Publications, Inc.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193, 542-575.
- Diener, E. (1994). Assessing subjective well-being: Progress and opportunit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31(2), 103-157.
- Diener, E., Suh, E. M., Lucas, R. E., & Smith, H. L. (1999). Subjective well-being: Three decades of progress. *Psychological bulletin*, 125(2), 276.
- Doyle, J. M., & Kao, G. (2007). Are racial identities of multiracials stable? Changing self-identification among single and multiple race individual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70(4), 405-423.
- Dumais, S. A. (2002) Cultural capital, gender, and school success: The role of habitus. *Sociology of Education*, 75, 44 - 68.
- Duncan, T. E., Duncan, S. C., A. L., Li, F., & Alport, A. (1999).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Duncan, T. E., and Duncan, S. C. (2004).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Behavior Theory*, 35, 333-363.
- Duncan, T. E., Duncan, S. C. & Strycker, L. A.(2006). *An Introduction to Latent Variable Growth Curve Modeling: Concepts, Issues, and Applications*. Lawrence Erlbaum.

- Erikson, E. H. (1956), The problem of ego identit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4(1), 56-121.
- Erol, R. Y., & Orth, U. (2011). Self-esteem development from age 14 to 30 years: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1(3), 607.
- Feldman, S. S., & Elliott, G. R. (Eds.). (1990). At the threshold: The developing adolescent. Harvard University Press.
- Finch, B. K., & Vega, W. A. (2003). Acculturation stress, social support, and self-rated health among latinos in California. *Journal of School Health*, 7(4), 152-156.
- Fisher, C. B., Wallace, S. A., & Fenton, R. E. (2000). Discrimination distres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9(6), 679-695.
- Ford, M. E. (1992). Motivating humans: Goals, emotions, and personal agency beliefs. Newbury Park: Sage Publications.
- Franco, J. N. (1983). An acculturation scale for Mexican-American children. *The Journal of General Psychology*, 108(2), 175-181.
- Fuertes, J. N., & Westbrook, F. D. (1996). Using the Social, Attitudinal, Familial, and Environmental (SAFE) Acculturation Stress Scale to assess the adjustment needs of Hispanic college students. *Measurement and Evaluation in Counseling and Development*.
- Fujita, F., & Diener, E. (2005). Life satisfaction set point: stability and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8(1), 158.
- Germain, C.B., and Gitterman, A. (1980). *The Life Model of Social Work Practice*. Columbia University Press.
- Gil, A. G., Vega, W. A., & Dimas, J. M. (1994). Acculturative stress and personal adjustment among Hispanic adolescent boys.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22(1), 43-54.
- Gilligan, T. D., & Huebner, E. S. (2002). Multidimensional life satisfaction reports of adolescents: A multitrait - multimethod study.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2(7), 1149-1155.

-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
- Grove, C. L., and Torbiörn, I. (1985). "A new conceptualization of intercultural adjustment and the goals of training.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9(2): 205-233.
- Ha, J. P., Hums, M. A., & Greenwell, C. T. (2014). The impact of acculturation and ethnic identity on American football identification and consumption among Asian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s Marketing & Sponsorship*, 15(2), 125-142.
- Harter, S. (1986). Processes underlying the construction maintenance, and enhancement of the self-concept in children. *Psychologica Perspectives on the Self*, 3(13), 7-181.
- Higgins, E. T. (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olmberk, G. N., Colder, C., Shapera, W., Westhoven, V., Kenealy, L., & Updegrove, A. L. (2000). Working with adolescents: Guides from developmental psychology. In P. C. Kendal(Ed.), *Child & adolescent therapy: Cognitive-Behavioral Procedures*(2nded., pp.334-385). N. Y.: Guilford Press.
- Hong, S., Malik, M. L., & Lee, M. K. (2003). Testing configural, metric, scalar, and latent mean invariance across gender in sociotropy and autonomy using non-western s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y Measurement*, 63(4), 636-654.
- Hovey, J. D. (2000). Acculturative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among central American immigrants. *Suicide and Life-Threatening Behavior*, 30(2), 125-139.
- Hovey, J. D., & Magaña, C .G. (2002). Psychosocial predictors of anxiety among immigrant Mexican migrant farmworkers: Implications for prevention and treatment. *Cultural Diversity and Ethnic Minority Psychology*, 8(3), 274.

- Hseem C, K., & Abelson, R. P.(1991). Velocity relation: Satisfaction as a function of the first derivative of outcome over tim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341-347.
- Huebner, E. S. (1991). Initial development of the student's life satisfaction scale. *School Psychology International*, 12(3), 231-240.
- Huebner, E. S. (2004). Research on assessment of life satisfac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ocial indicators research*, 66(1-2), 3-33.
- Jackson, R. B., Canadell, J., Ehleringer, J. R., Mooney, H. A., Sala, O. E., & Schulze, E. D. (1996). A global analysis of root distributions for terrestrial biomes. *Oecologia*, 108(3), 389-411.
- Jasinskaja-Lahti, I., Liebkind, K., Jaakkola, M., & Reuter, A. (2006). Perceived discrimination, social support network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three immigrant group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7(3), 293-311.
- Kernis, M. H. (2003). Toward a conceptualization of optimal self-esteem. *Psychological Inquiry*, 14(1), 1-26.
- Kessler, R. C., Andrews, G., Mroczek, D., Ustun, B., & Wittchen, H. U. (1998).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composite international diagnostic interview short form (CIDISF). *International journal of methods in psychiatric research*, 7(4), 171-185
- Khanna, N. (2004). The role of reflected appraisals in racial identity: The case of multiracial Asian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67(2), 115-131.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Guilford Press. 이현숙·김수진·전수현(공역)(2010). 『구조방정식 모형: 원리와 적용』. 학지사.
- Kline, R. B. (2005).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2nded)”. New York: Guilford Press.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 Liebkind, K. (2001). Acculturation. In R. Brown & S. Gaertner (eds.), *Blackwell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intergroup processes* (pp. 386-406). Oxford: Blackwell.
- Liebkind, K. (2006). Ethnic identity and acculturation. In D. L. Sam & J. W. Berry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acculturation psychology* (pp. 78-96). New York, NY, US: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ebkind, K., & Jasinskaja-Lahti, I. (2000). Acculturatio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ong immigrant adolescents in Finland: A comparative study of adolescents from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5(4), 446-469.
- Lucas, R. E., Diener, E., Grob, A., Suh, E. M., & Shao, L. (2000). Cross-cultural evidence for the fundamental features of extrover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452-468.
- Lyons, M. D., Huebner, E. S., Hills, K. J., & Van Horn, M. L. (2013). Mechanisms of change in adolescent life satisfaction: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51(5), 587-598.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1157.
- MacCallum, R. C., Kim, C., Malarkey, W. B., & Kiecolt-Glaser, J. K. (1997). Studying multivariate change using multilevel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32, 215-253.
- McKnight, C. G., Huebner, E. S., & Suldo, S. (2002). Relationships among stressful life events, temperament, problem behavior, and global life satisfaction in adolescents. *Psychology in the Schools*, 39(6), 677-687.
- Meredith, W., & Tisak, J. (1990). Latent curve analysis. *Psychometrika*, 55(1), 107-122.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4), 347-413.
- Missall, K. N. (2002). Reconceptualizing Early School Adjustment: A Search for Intervening Variables. Unpublished Doctori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nnesota.

- Muthén, B., Kaplan, D., & Hollis, M. (1987). On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data that are not missing completely at random. *Psychometrika*, 52(3), 431-462.
- Negru, O., & Baban, A. (2009). Positive development in school settings: School environment influences on perceived school adjustment in a Romanian adolescent sample. *Cognitie, Creier, Comportament / Cognition, Brain, Behavior*, 13(3), 253.
- Neto, F., & Barros, J. (2007). Satisfaction with life among adolescents from Portuguese immigrant families in Switzerland. *Swiss Journal of Psychology*, 66(4), 215-223.
- Nguyen, A. M. D., & Benet-Martínez, V.(2013). Biculturalism and adjustment: A meta-analysi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44(1), 122-159.
- Nguyen, H. H. & Von Eye, A. (2002). The acculturation scale for Vietnamese adolescents (ASVA): A bidimensional perspective.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6(3), 202-213.
- Nguyen, H. H., Messe, L. A., & Stollak, G. E. (1999). Toward a more complex understanding of acculturation and adjustment: Cultural involvements and psychological functioning in Vietnamese youth.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0(5), 5-31.
- Nwadiora, E. & McAdoo, H. (1996). Acculturative stress among Amerasian refugees: Gender and racial differences. *Adolescence*, 31(122), 477 - 487.
- Orth, U., & Robins, R. W. (2014). The development of self-esteem.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23(5), 381-387.
- Orth, U., Robins, R. W., & Widaman, K. F. (2012) Life-span development of self-esteem and its effects on important life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2(6), 1271.
- Padilla, A. M. (2006). Bicultural social development. *Hispanic Journal of Behavioral Sciences*, 28(4), 467-497.
- Phinney, J. S. (1990). Ethnic identity in adolescents and adults: review of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108(3), 499-514.

- Phinney, J. S. (2005). Ethnic identity in late modern times: A response to Rattansi and Phoenix. *Identity*, 5(2), 187-194.
- Phinney, J. S., & Devich-Navaro, M. (1997). Variation in bicultural identification among African and Mexican American adolescent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7(1), 3-32.
- Phinney, J. S., Horenczyk, G., Liebkind, K., & Vedder, P. (2001). Ethnicity, immigration, and well-being: An interactional perspective. *Journal of Social Issues*, 57(3), 493-510.
- Pope-Davis, D. B., Liu, W. M., Ledsma-Jones, S. L., & Nevitt, J. (2000). African American acculturation and Black racial identity: A preliminary study.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8, 98 - 112.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 - 731.
- Redfield, R., Linton, R., & Herskovits, M. J. (1936). Memorandum for the study of acculturation. *American anthropologist*, 38(1), 149-152.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NY: Basic Books.
- Ryan, R. M., & Deci, E. L. (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 68-78.
- Sam, D. L., & Berry, J. W. (2010). Acculturation: When individuals and groups of different cultural backgrounds meet. *Perspectives on Psychological Science*, 5(4), 472-481.
- Schneider, S. (2001). In search of realistic optimism: Meaning, knowledge, and warm fuzziness. *Journal of American Psychologist*, 54, 250-263.
- Schwartz, S. J., Montgomery, M. J., & Briones, E. (2006). The role of identity in acculturation among immigrant people: Theoretical propositions, empirical questions, and applied recommendations. *Human Development*, 49(1), 1-30.

-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 531-543.
- Sirin, S. R., Ryce, P., Gupta, T., & Rogers-Sirin, L. (2013). The role of acculturative stress on mental health symptoms for immigrant adolescents: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49(4), 736.
- Stone, W. L. & Lemanek, K. L. (1990). Parental report of social behaviors in autistic preschoolers.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20(4), 513-522.
- Thomas, M., and Choi, J. B. (2006). "Acculturative Stress and Social Support among Korean and Indian Immigrant Adolescents in the United States." *Journal of Sociology & Social Welfare* 33(2): 123-143.
- Tolan, P. H. ,& Larsen, R. (2014). Trajectories of life satisfaction during middle school: Relations to developmental ecological microsystems and student functioning.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4(3), 97-511.
- Trickett, E. J., and Birman, D. (2005). "Acculturation, school context, and school outcomes: Adaptation of refugee adolescents from the former Soviet Union. " *Psychology in the Schools* 42(1): 27-38.
- Trzesniewski, K. H., Robins, R. W., Roberts, B. W., & Caspi, A. (2004). Personality and self-esteem development across the life span. *Recent advances in psychology and aging*, 15, 163-185.
- Tucker, L. R., & Lewis, C. (1973). A reliability coefficient for maximum likelihood 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38, 1-10.
- Ullman, C., & Tatar, M. (2001). Psychological adjustment among Israeli adolescent immigrants: A report on life satisfaction, self-concept, and self-esteem.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0(4), 449-463.
- Walsh, J. L., Senn, T. E., Scott-Sheldon, L. A., Vanable, P. A., & Carey, M. P. (2011). Predicting condom use using the information-motivation-behavioral skills (IMB) model: A multivariate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The Society of Behavioral Medicine*, 42, 235-244.

- Ward, C., & Kennedy, A. (1993). Psychological and socio-cultural adjustment during cross-cultural transitions: A comparison of secondary students overseas and at hom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logy*, 28(2), 129-147.
- Ward, C., Bochner, S., & Furnham, A. (2001). *The psychology of culture shock*. 2nd ed. Hove: Routledge.
- Wei, M., Heppner, P. P., Mallen, M. J., Ku, T. Y., Liao, K. Y. H., & Wu, T. F. (2007). Acculturative stress, perfectionism, years in the United States, and depression among Chinese international student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54(4), 358-394.
- Wentzel, K. R. (2003). School adjustment. *Handbook of psychology*, 235-258.
- Wickrama, K. A., Lee, T. K., O'Neal C. W., & Lorenz, F. (2016). *Higher-order growth curves and mixture modeling with mplus: A practical guide*. New York: Routledge.
- Wilson, W.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306.
- Yeh, C. J., and Inose, M. (2003). "International students' reported English fluency, social support satisfaction and social connectedness as predictors of acculturative stress." *Counselling Psychology Quarterly* 16(1), 15-28.
- Ying, Y. W. (2005). Variation in acculturative stressors over time: A study of Taiwanese students in the United States. *International Journal of Intercultural Relations*, 29(1), 59-71.

부 록

설 문 지

<설문> 1. 인구 사회학적 변인 설문 문항 내용

변인	문항내용
성별	1. 남학생 2. 여학생
학년	1. 초등학교 2. 중학교 3. 고등학생. 4. 기타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은 어떠합니까?	1. 전혀 못한다 2. 못하는 편이다 3. 잘하는 편이다 4. 매우 잘한다
부모님 중 어느 분이 외국 출신이십니까?	1. 아버지 2. 어머니 3. 두 분 모두 외국인 4. 두 분 모두 한국
학생은 자신이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1. 한국사람 2.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 3.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외국인 부모님 나라 사람이기도 하다 4.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다 5. 기타

<설문> 2. 주요 변인의 설문 문항 내용

변인	문항수	문항내용	변인값
문화적응 스트레스	10문항	다른 사람들이 외국인 부모님 나라 문화를 가지고 농담을 할 때 스트레스를 받는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외국인 부모님이 다른 나라의 사람이라 학교에 가고 싶지가 않다.	
		한국에 사는 것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한국어를 잘못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주변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처럼 행동하라고 스트레스를 준다.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무시를 당한다.	
		외국인 부모님이 외국인이란 이유로 친구들이 따돌린다.	
		우리 동네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못살게 군다.	
		한국의 사람들은 우리 가족을 못살게 군다.	
삶의 만족도	3문항	나는 사는 것이 즐겁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나는 걱정이 별로 없다.	
		나는 나의 삶이 행복하다 생각한다.	
자아 존중감	4문항	나는 내 자신이 자랑스럽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나는 내 자신을 소중히 생각한다.	
		나는 우리 학급 임원(반장 등)이 될 자격이 있다 생각한다.	
		나는 미래에 훌륭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학교생활 적응	5문항	나는 학교 수업시간에 재미있다.	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은 편이다 3. 그런 편이다 4. 매우 그렇다
		나는 학교 숙제를 빠뜨리지 않는다.	
		나는 수업시간 마다 배운 내용들을 아주 잘 알고 있다.	
		나는 모르는 것이 있는 경우 주위 사람에게 물어본다.	
		나는 공부시간에 딴 짓을 할 때가 있다.	